



4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4호

(루게 366)



◆◆◆◆◆◆◆◆◆◆ 차 례 ◆◆◆◆◆◆◆◆◆◆

인류의 영원한 봄	2
사랑의 분수	4
꽃물결이 흐른다	18
기념	19
주체의 노래	20
세계여 창문을 열라	20
우리의 신념	22
언제면 그 언제면	23
우리의 고향, 하나의 가정	24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더욱 빛나게 창조하자	26
만풍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30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	30
미더운 세대	35
들끓는 현장으로 찾아간 작가들	43
총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린다!	44
여기는 화력발전소이다	45
봄날의 환희	46
위훈에로	47
병사의 의무	51
백두산상에서	55
만병초	56
중대로 가는 길에서	56
중대로 가는 길에서	57
주체형의 참신한 새 인간의 형상	58
지난날의 계급투쟁에 대한 생동한 화폭	60
농촌마을의 학교를 찾아서	62

인류의 영원한 봄

은구슬 금구슬 흐르는 물우에
깃을 추기며 날으는 새들아
푸른 언덕에 꽃비단을 깐듯
붉게 피어난 진달래, 진달래야
봄이구나 봄
태양빛 눈부신 4월의 봄이구나

해빛을 우러러 사람들은
마음 숙연히 두팔을 벌린다
봄을 한아름 가슴에 껴안은
사람들의 두눈에 아, 두눈에
흐르고 흐르며 반짝이는것은
더운 이슬이 아닌가

어쩌면 이다지도 이 봄이
이 땅의 그 모든것에
삶의 긍지를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태동하는 힘과 비약하는 열정을 주며
그리도 뜨거이 가슴뜨거이
조선의 봄을 생각하게 하는가

4월은 만경대에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새 력사의 봄빛이여라
4월은 긴긴 세월우에
새로운 삶의 시원을 열어준
새세기의 해돋이여라

이 봄이 있어
만경대의 진달래, 백두산의 만병초
눈비를 헤치며 불구름을 헤치며
가장 아름답게 억세게 피어나

이 강산에 인민의 행복 꽃피고
이 강산에 인민의 기쁨 넘쳐나라

이 봄이 있어
최사슬에 묶이웠던
수억만 가슴엔
자주성의 맥박 높이 고동치고
주체의 빛발아래
자주의 시대는 활짝 열렸어라

일찌기 오늘을 안으시고
눈얼음 쌓인 백두밀림의
천리준령과 만리 광야를
하루와 같이 넘나드시며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경대를 떠나시며 바라보신 먼 령마루
공산주의 봄언덕을 가까이 그려보시며
또다시 새 7개년의 언덕을 향하여
오늘도 온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낮과 밤 가리심없이 로고를 바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고마움에 사무쳐
고마움에 사무쳐
인민들은 두눈을 적시는것이여라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영원히 영원히 충성다해갈
오직 한마음 가슴에 불태우는것이여라
가슴에 한아름 봄을 안고

공산주의 새봄
인류의 새봄을 가까이 바라보며
인민들은 목메여 부른다
불타는 흙모의 노래
불타는 축원의 노래

이 노래
세월이 가고 또 가도
하늘땅에 한가득 넘쳐나라
이 노래
온 대륙과 대양우에

끝없이 끝없이 메아리쳐가라

아, 어버이수령님 계시여
인민의 영원한 봄은
온 누리에 꽃피나니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장은
온 인민이 바라는
인류의 영원한 봄이여라

김학연



사랑의 분수

김영길

아직은 밤이었다.

태양등빛이 뽕얇게 흘러내리는 정원에는 애들이 깎아버린 연필밥 같은 꽃잎을 발랑 뒤집은 노란 개나리가 반짝거렸고 방금 입을 더친 살구꽃망울들은 진한 향기를 뿜으며 가지마다에 분홍빛구름처럼 뒤덮였다.

봄의 향수는 정원과 거리, 은하수 흐르는 수도의 밤하늘에 넘쳐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원한 밤공기를 맞으시며 정원 한끝에 있는 시험포전에서 팽상모판의 온습도를 알아보고계시었다.

이윽하여 방안으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책상을 마주하셨다.

책상우에는 등사이크가 방금 잤아든듯한 통신문들과 보풀이 하얗게 일사한 참고서적들이 무척히 놓여있었다.

그이의 눈앞으로는 읽어보시는 글줄들이 하나의 선명한 화폭이 되어 펼쳐지는것이였다.

…가물이 어찌 심하면 이삭도 패지 못한채 말라버린 밀보리를 가을할텐가… 지구상에서 하루에만도 굶어죽는 사람이 2 만여명을 헤아리다니 …

생각하실수록 남의 일 같지만 앓으셨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일어서시여 창문을 활짝 여시고 밤하늘에 명멸하는 별들을 바라보시였다.

물밀듯 밀려드는 무거운 생각을 좀체로 떨어버릴 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리없이 창문을 꼭 마주당으시였다.

벌써 두번째로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신 그이께서는 비로소 마음을 정하신듯 천천히 수화기를 드시고 누구인가를 찾으셨다.

한참만에 전화가 걸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될수록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최선생입니까. 단잠을 깨워서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양에는 밤 한때 이슬비가 내렸는데 지방들에는 어떻습니까? … 평남도 보성리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단말입니까? …작년에 가물을 제일 많이 탄곳인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전화를 받으시며 탁상일력에 무엇인가 적어나가시였다.

《…평하로- 얼마?-음, 통보는 다 했는가요?…그리고 최선생, 봄비는 어떻습니까? …50 일안에는 가량이 없다…》

기상수문연구소의 한 일군과 말씀을 마치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더 펜을 달리시였다.

이윽하여 손가끼이에 있는 확대경을 드시고 원탁 위에 펼쳐진 농업지도로 몸을 옮겨 실으시였다.

수도에서 서북쪽으로 그닥 멀지 않은곳에 위치한 보성리는 겨우내 눈 한점 안내리다가 이 봄날에 빼어난 눈꽃이 날렸다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확대경 밑에 입쌀알만한 크기로 돌아난 《보성리》명을 붉은색연필로 진하게 그린 동그라미속에 몰아넣으시면서 혼자소리로 말씀하셨다.

《정농덕동무가 또 들에서 밤을 새우겠군…》

보성리 명예관리위원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관개수로들이 거미줄마냥 뻗어나간 서해안의 별방지대를 일별하시고 동해안의 산악지대와 자강, 량강도의 고원들을 끌고루 찾아보시며 입속말로 뇌이시였다.

《50 일이라…하늘이 보성리에 대고 아니지, 사람들에 <선전포고>를 하는군…》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보성리를 향해 떠나시였다.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벌써 몇돌기째나 차장에 도굴도굴 땀히는 이슬방울을 떨어버리며 달리고있었다.

…산을 하나 사이에 두었을뿐 한 지맥으로 잇닿은 땅에 저쪽은 눈이 오고 이쪽은 꽃이 폈다. 이것은 생물계에 삶과 죽음을 동시에 선포한 자연의 횡포였다.

지구의 한쪽끝에서는 비물이 도시를 잠그고 다른 위도상에서는 이삭 팬 곡식을 뿌리채 불태우고 호수바닥을 드러내는 왕가물과 대열과의 광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한랭전선>이라 명명하는 이상기후가 20 세기가 저물어가는 지구우를 휩쓸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굶주림과 공포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캄캄한 어둠의 장막처럼 군림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달리는 차안에서도 사색을 중단함이 없이 이상기후가 우리 나라 인민경제 특히 농업에 미친 현상과 그 타개책을 모색하시느라 정력을 쏟고계시였다.

…우리 나라에도 일부 지역들에 가물이 나타나고 있다… 또 오늘은 눈비가 내리고 땅우에 강이 흐르지만 래일… 혹은 그보다 먼후날 강이 마르고 호수바닥이 트게 된다고 하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후대들이 과연 우리의 관개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겠는가… 또 관개용수는 반드시 6 단 7 단으로 강이나 호수에서 퍼올려야만 하는가… 관개는 그 체계뿐만 아니라 억년 마를줄 모르는 물원천을 가져야 문자 그대로 완성되었다고 할것이 아닌가… 사태가 이러함에도 무엇이 잘됐소 우리는 무서운것 없소 하면서 일꾼들이 뜨끔해하지 않거던.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제를 이렇게 절박하게 세워보시고 자신의 사색을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 음미해보셨다.

열두삼천리벌을 지나 희미한 달빛을 받아 기름처럼 번들거리며 흐르는 청천강을 좌안에 끼고 상류쪽으로 얼마간 달리려니 밋밋한 고개길이 마주섰다.

고개밑으로부터 산기슭쪽으로 늘어앉은 집들이

아슴푸레 바라보였다.

마을 막바지에서는 무엇을 탐사하는지 그 룹곽으로 보아 알수 있는 삼각추형의 높다란 천막안에서 시추기가 부드러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고 콩알만한 전등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반디불마냥 반짝이고 있었다.

승용차들은 마을어귀에서 멎었다.

먼저 내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푸름한 밤기운 속에 거뭇거뭇 드리난 모관자리들을 헤아려보시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두줄기 승용차의 불빛이 그이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이윽하여 봄외투자락을 량쪽으로 제끼시고 한 모관자리에 다가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몇겹 씩운 나래를 마치 비단이부자리를 다루시듯 조심조심 벗기시였다. 마지막 나래밑에 나진 하얀 비닐박막 한쪽 귀퉁이를 빠끔히 쳐드신 그이께서는 그속에 한손을 넣어보시는것이였다.

《뜨끈뜨끈하오. 부식토를 제대로 깔았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함께 온 몇명의 일꾼들을 돌아보시였다.

이윽고 천천히 일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 이걸 보오. 강냉이영양단지요! 며칠째 한 잎사귀 더 늘었소.》 하시면서 모가 반듯한 화분형단지 하나를 손바닥우에 드시고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초록물이 든듯 연푸르고 보들보들한 강냉모잎사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시였다.

쭉쭉 뻗어나온 수십갈래의 승용차 불빛은 마치 탐조등처럼 초점을 모아 그이께서 들고계시는 강냉이영양단지를 밝게 비치고있었다.

금시 온 들판을 푸르게 물들일듯 눈부신 빛발속에 드리난 유난히도 파란 강냉모는 잎사귀마다 수정알 같은 이슬을 꿰여물고 소리없이 들어오는 봄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강냉이영양단지를 받쳐드신 한손을 높이 들어 수원들에게 빙-둘러 보이시며 저으기 안심되신듯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요놈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잤소. 허허허.》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마치 단지를 치고 강냉포기들을 골라 심고 심심히 자란 강냉포기들을 이 벌판

에 내어 풍년가을을 걷어와야 할 농민이 되신듯 한 시름 놓으시는것이였다.

이때 땅에까지 내리덮인 젖빛 안개속을 헤엄치듯 발이랑을 훔쳐 건너뛰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청년이였다. 그 청년은 불빛속에 들어서자 그만 두눈을 둥그렇게 뜨고 우뚝 멈추어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옷설을 바로잡는것이였다,

모자도 옷도 짝 줄라맨 혁띠도 제대군인 차림새였다.

팡대빠가 약간 나올사한 둥그런 얼굴에 유표하게 덩실한 코, 금시 불꽃이 일듯 이글이글한 눈썹- 꼭 어디선가 본듯한 모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쩔줄 모르고 서서 한동안 혁띠고리만 만지작거리는 청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물으시였다.

《동무는 누군가?》

청년은 습관된 동작으로 발뒤꿈치를 모아붙이면서 기운차게 대답했다.

《분조장 정만호입니다.》

《분조장? 여기가 2 분조 발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진>호 물던 분조장청년 어데 갔나?》

《반장일을 합니다.》

《반장일을-》

분조장의 말을 되뇌이시며 만족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갑자기 반기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니, 저기 명예관리위원장동무가 오는구만.》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몇발자국 마주 내려가시였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젊은이들처럼 꾹꾹한 허리를 앞으로 숙일사하고 반달음으로 활기있게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웃음으로 환히 피여났다.

《수령님! 이 찬 날씨에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구 밖에 계시니까.》

명예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문뜩문뜩 그이를 뵈올 때마다 일생 소원을 풀어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짐을 누를길 없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의 일생소원이란 어버이수령님을 집으로 모시는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중히 인사드리는 명예관리위원장의 손을 반갑게 잡으시고 물으시였다.

《정동무는 이 새벽에 웬일이요? 제대군인 분조장까지 데리구.》

그이께서는 무시로 만나는 친지에게라도 하시듯 허물없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저 애가 건설사업소에 배치됐다고 지난 가을에 말씀올린 그 손자입니다.》

《아! 그랬었구만- 소원이 풀려 기쁘겠소.》

《예, 그런데 농사라곤 한해두 해보나마나한 애에게 어제저녁 분조장 일을 덜컥 맡기질 않았겠습니까.》

명예관리위원장은 저으기 근심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을 드리였다.

《허허허, 그거야 농사<박사>인 정동무를 믿고 한일이겠지.》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에 찬 시선을 받은 정만호의 얼굴빛은 단풍잎처럼 빨갭게 물들기 시작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농사일을 두고 명예관리위원장과 무척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

수령님께서서는 발들의 합토상태며 습기는 얼마나 한 깊이까지 보존하고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보성땅에 나서 60 뼛 생일을 맞은 명예관리위원장은 지난 겨울처럼 눈 한꼬치 안내리고 팡팡 말라보기가 꼭 두번째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이였다.

명예관리위원장이 아직 어렸을 때 바로 어제처럼 청명 안날 이 보성골에 때아닌 눈발이 보이더니 그해 여름 곡식이 타죽었다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묵묵히 듣고만 계시였다.

어느새 나무 우듬지들사이로 머리를 내민 태양으로부터 눈부신 금빛해살이 이쪽 등성이발을 찬란히 비치기 시작했다. 금시에 골짜기가 환히 밝아지면서 한줄기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와 어리광부리듯 사람들의 몸에 감겨들었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폭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래 그해에 어떻게들 살았소?》

《굶어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옛날뿐이요. 지금도 농사를 망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소. 그래서 요즘 어떤 나라에서는 비를 달라고 하늘에 대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오. 허허허, 이 보성리도 가물이 심한축인데 분조장동무 책임이 정말 무겁소.》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정만호를 돌아다 보시였다.

《알겠습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그저 판에 박은듯한 손자의 대답에 이마살을 지었다.

이제껏 한것은 옛날소리고 오늘에야 무엇이 걱정이 되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시원한 대답을 못드린단말인가. 명예관리위원장은 힐책하는 눈길로 손자를 바라보면서 서둘러 말씀을 드렸다.

《수령님! 가물걱정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있구 관개체계가 다 됐는데 걱정이 뭘니까. 농사걱정은 맡아주소시오.》

《물이 가득찼다! -그래...》

명예관리위원장의 말을 받아 외우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저멀리 철뚝너머에 펼쳐진 보성농장의 논밭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것이였다.

가로세로 힘차게 뻗은 간선수로들과 그물코 맺히듯 촘촘한 지선수로들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눈앞으로는 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있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가슴뜨겁게 떠오르시였다.

바로 여기 정농덕명예관리위원장도 그길에서 알게 된 한사람이였다.

이 순간 명예관리위원장도 가슴 흐뭇이 안겨오는 농장의 규격포전들이며 관개수로들을 바라보노라니 자연 송엄한 감정에 잠기면서 감회깊은 회상이 절로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해방된 이듬해 봄이였다. 그때는 이 보성땅을 피농사나 겨우 짓는다 하여 피아골이라 불렀다.

장군님께서 주신 귀중한 제 땅에 차마 피알을 뿌

릴수 없어 정농덕농민은 삽자루를 깔고앉아 담배연기만 피워올리고있었다.

바로 그날 이 군으로 현지도도를 오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성리도 찾아주셨다. 들판에서 홀로 서성거리고있는 정농덕농민에게로 다가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사연을 들으시고 매우 걱정하시였다.

《왜 이 좋은 땅에 피를 심겠습니까.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 인민들도 이밥을 먹어야 할게 아닙니까. 벼농사를 지읍시다.》

《장군님! 워낙 물이 발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앞에 청천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10 리가 남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면 십리가 백리, 천리로 멀어보입니다. 나라가 있고 인민주권이 있는데 군내 로동자, 농민들이 합심해서 달라붙으면 십리수로가 문제겠습니까. 시작이 절반이라고 자-우리 먼저 첫삽을 떠봅시다.》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과 함께 손수 삽을 잡으시고 가래질을 시작하셨다. 정농덕농민은 너무도 황송하여 가래장을 잡은 손이 어떻게 나가는줄도 모르며 힘껏 일했다.

소문을 들은 농민들이 삽과 쟁이를 들고 구름떼처럼 밀려왔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해방된 우리 인민들이 골고루 이밥을 먹고 잘살려면 나라와 인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가는곳마다 저수지를 막고 관개를 빨리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던가... 이러한 나날속에 미구하여 창조될 우리 나라 관개력사는 그이의 구상속에서 힘차게 태동하고있었으며 불모의 땅 피아골은 벼골로 전변되였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의 그 바쁜 날에도 다시 보성리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농촌을 가장 빨리 추켜세우는 길은 힘을 뭉치는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을 무어서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시면서 조합원명부 첫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손수 적어넣어주실 때 진정 농민들이 흐느끼며 흘린 눈물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었던가...

그때로부터 정농덕은 관리위원장이 되었고 해방 후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어버이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실로 명실공히 농민이 되어 농사를 지어왔다. 그길에서 또한 정농덕은 이 세상 가장 높은 영예를 지녔으니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촌친구》라고 허물없이 불러주신 것이었다. 정농덕농민이 《농촌친구》로 처음 불리우게 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강냉이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던 20여년전에 있는 일이었다.

철없는 만호-저너석은 공연히 심려의 말씀을 들려서... 명예관리위원장은 격한 감정을 농칠길 없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그이를 받들줄 모르는 손자의 언행이 자꾸 가슴을 파고들어 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얼마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양지바른 곳곳에 명주필을 펼친듯 하얗게 널려있는 모판들을 눈여겨 살피시면서 걸음을 떼시었다. 간밤에 눈이 내렸다는 것은 말뿐이었다. 군데군데에 얼룩소 잔등같이 검슬검슬한 땅꺼풀이 물기에 젖어 번지르르할 따름이었다.

아직 해살을 받지 못한 밭고랑 여기저기에 널린 퍼석퍼석한 눈쭈들이 물먹은 소금무지처럼 스르륵 스르륵 찾아앉고있었다. 녹으면서 다 말라버리는 눈으로는 가물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을 것이었다.

자욱자욱 세이시듯 천천히 걸으시여 2분조 등성이밭으로 오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잠깐 멈춰서시었다. 밭밑을 유심히 살피시던 수령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아직 채 녹지 않은 눈무지속에 꼭디만 남은 강냉이그루를 파헤치기 시작하시었다.

당황해난 분조장은 얼른 두무릎을 꿇고앉아 강냉이그루를 뽑아들었다.

서리가 불리어 수염밭같이 허연 강냉이그루를 바아드신 수령님께서 분조장에게 보이면서 물으시었다.

《분조장동무! 이 그루가 왜 이리 허약한지 알겠소?》

겨울난 파같이 새들새들 말라든 강냉이그루를 바

라보며 무엇인가 기억을 더듬는듯 한동안 실눈을 짓고 섰던 분조장은 자신있게 대답을 올렸다.

《수령님! 비료를 제때에 주지 못했습니다.》

《왜? -땅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또 그 한마디 대답밖에 모르는 손자를 자못 노기어린 눈으로 건너다보았다.

《저기-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잖나. 저 철쭉너머에 강도 흐르구...》

《...》

저수지에 물이 넘치고 강은 흘러도 이 먼, 그것도 손바닥만한 밭의 가물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니 그 말씀에는 명예관리위원장도 선뜻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다만 농민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었다고 속으로 자신을 꾸짖을 뿐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명예관리위원장과 분조장에게 제기하신 문제를 자신께서 추구해 나가시었다.

...오직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법은...제 밭에서 물을 찾아내어 제물을 적시는 것이지... 오늘은 가물이 제일 심하고 지형조건이 류다른 이 보성땅에서 물끓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께서는 분조장을 불러 옆에 세우시고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다.

《...강냉이인 적어도 세번이상 물을 실컷 먹어야 하오. 옮길 때하고, 중간 가물탈 때 하고 개꼬리가 나올 때 수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비료를 구색맞게 주면 이삭이 쑥 나오거던... 팔뚝같은 이삭말이요. 분조에 이런 등성이밭이 얼마나 되나?》

《얼마 안됩니다.》

《그럼 논이 더 많나?》

《예.》

《물걱정은 없다고 했지. 그래 우린 논농사와 평지밭은 걱정 안해. 다 관개체계에 망라되어있거던. 이런 등성이밭이 문제란 말이야...》

이윽고 밭머리까지 나오신 수령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가녁에 실금을 그은듯 마른 자리를 남기며 매일 매일 줄어드는 자그마한 자연물구멍이가 나졌던 것

이다.

강냉이단지를 칠 때 보태여 쓰느라고 짓이겨놓아 반은 메워지고 어수선했던 물구덩이앞에 선 명예관리 위원장은 낮이 화끈거려 견딜수가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뒤아름도 못되는 물구덩이 주위를 묵묵히 도시는것이였다. 이따금 걸음을 멈추시고 산세도 가늠해보셨다.

한바퀴, 또 한바퀴... 그이께서는 동안이 뜨게 자국을 옮기시면서 생각하셨다.

(음- 이만큼 높은데서도 물을 얻을수 있겠군...)

웅덩이에 찰랑거리는 파란 물우에는 하늘에 등실 뜬 구름까지 비껴 끝없이 깊어보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분조장을 돌아보시면서 드레박을 칭하시였다.

영문을 알수 없는 분조장은 한순간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왜-드레박이 없소?》

《있습니다.》

분조장이 대답을 채 맺기도전에 옆에 널린 나래 밑에서 드레박을 찾아든 명예관리위원장은 물을 푸려고 하였다.

《괜찮소. 내가 푸지.》

기어이 드레박을 받아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툴두툴한 드레박줄을 쭈르륵 소리나도록 훑으시며 물구덩이 가운데로 떨어뜨리시였다. 보기와는 판판이였다. 채 잡기지 못한 드레박 목이 물우에 뜬 감부기처럼 곤돌거렸다.

《우물치고는 너무 알고 굴포도 아니고... 분조장 동무! 이젠 뭐라고 부르오?》

《... ...》

낮이 수수땀빛으로 변한채 대답을 못하는 분조장은 쪽 편 손바닥을 군복바지 혼술에 착 붙이고 긴장하게 서있었다. 진작 씨워한 답변을 못한 안타까움에 입술을 짹 깨물고 모대기는 분조장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마을끝에서 여전히 힘찬 동음으로 팔짜기를 뒤흔드는 시추기쪽으로 머리를 돌리시였다.

시추기들이 농사를 위해 힘을 써야 할 때가 온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지질탐사대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여 땅속의 물원천상태와 지심이 복잡하여 시추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대들도 알아보시였던 것이다.

...저렇게 큰 시추기도 필요하겠지만 또락또르의 힘을 빌어 간단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

수령님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지시였다.

분조장이 무뚝 병사식으로 한발자국 크게 떼여 앞으로 나서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시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셨다.

《수령님!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어서 말해보오.》

《저 시추기를 좀 빌려줄수 없습니까?》

《시추기? -그건 해서 뭘하나.》

수령님께서서는 짐짓 호기심을 가지고 물으셨다.

손자와 마주 서있던 명예관리위원장은 농사를 짓는 녀석이 왕청같은 시추기소리를 하자 꼭 무슨 실수를 할것만 같아 안절부절못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아니 저녀석-》 하는 소리를 간신히 입안으로 삼키며 손자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러건 말건 분조장 정만호는 조리있게 대답을 올리기 시작했다.

...분조장 정만호가 신입대원으로 입대했을 때 전선동부의 어느 한 바위고지는 물차로 실어올리는 물을 귀하게 썼었다. 정만호가 입대하여 이태만에 지질탐사대가 중대에서 멀지 않는곳에 시추기를 박기 시작했다. 요구하는 보물이 없었던지 시추기는 몇달만에 다른데로 가버렸다. 깊이가 몇백미터 된다는 그 시추구멍으로 소방호스만한 굵기의 물줄기가 팔팔 솟구쳐올랐는데 겨울에는 차지 않아 빨래하기가 좋았고 여름에는 쨍하여 전술훈련끝에 가슴을 식혔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며칠전에 흑시나 하는 생각으로 시추작업장으로 가보았다는것이였다 ...

(물끓을 잘 잡으면 몇미터만 파도 물이 나온다는걸 알면 이 제대군인 분조장은 제손으로 한다고 덤벼들겠는걸. 제대군인 분조장이 달라. 우리 의도를 제격 알아차리는군...)

담차고 영특하게 생긴 분조장을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시며 사뭇 즐거워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그렇게 남의 불에 게 구우려 해서야 되나-》

손자의 말을 듣다못해 명예관리위원장은 말참네를 하였다.

《수령님! 저너석이 아직 철들려면 멀었습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의 말에 가볍게 웃어보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분조장을 향해 다시 물으시었다.

《그래 분조장동무! 저 탐사대동무들한테 청은 들어봤소?》

《... ...》

분조장은 벌써 웃으면서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왜- 통하질 않아? -분조장동무! 그 동무들한테 당에서 내놓은 농사제일주의를 한번 설명해주시. 농사제일주의- 이것은 사람제일주의란말이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 분조장동무, 그렇지 않소? 이제 아마 시추기가 동무들을 도우러 오게 될거요.》

《예? ...》

《이런 때 한번 울렀다메봐야지. 농사에 필요하면 비행기, 땅크도 다 끌어다 쓸 배짱을 가져야 해. 한랭전선이 만호한데 싸움을 걸어왔단말이야. 응-허허허.》

가슴속 깊은곳에서 저력있게 울려나오는 수령님의 말씀 마디마디들은 골짜기를 찌렁찌렁 울렸다.

산등성이밭지경을 몇개 더 지났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로고가 너무도 과하게 헤아려진 명예관리위원장은 용단을 내리고 그이의 앞에 나섰다.

《수령님! 저 우에 벌들도 다 같은 생김새들입니다. 그만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간밤에 뿌린 눈발이 녹으면서 험해진 올리막길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명예관리위원장과 수원들에게 량해를 구하시듯 사람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었다.

《몇발자국만 오르면 끝입니다. 우리가 벌써 진길

마른길을 가려서야 되겠소. 마저 봅시다. 우리 인민을 더 잘먹이는 일이라면 난 아직도 몇만리를 더 걸겠소. 갑시다.》

수령님께서는 다시 앞장에서 걸으시었다.

인민을 위해 걸어오신 길 수천만리, 인민을 위해 걸어가실 길 수천만리, 그 길우에 사랑은 햇빛으로 넘치여 사람들의 가슴으로 흘러들고있는 것이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어찌하여 아직 곡식 한포기 서있지 않고 누렇게 마른 그 험한 길을 굳이 걸으시는지 아직은 다 알수 없었다.

2분조의 마지막 비탈발머리를 돌아서신 수령님께서는 한참동안 내려오시다가 멈추어서시었다. 그리고 멀리 뒤흔어져 내려오는 명예관리위원장을 기다렸다가 물으시었다.

《정동무! 이쯤에 우물을 하나 파면 어떻겠소?》

우물이란 말에 명예관리위원장은 자못 놀라운 기색을 지었다.

그곳은 아직 산중턱이었다. 다문 몇발자국이라도 내려가면 기슭에 가깝고 물나오기가 한결 쉬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제안이고보니 명예관리위원장은 주위를 곰곰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눈에 있는것 총기를 모아 산세를 살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명예관리위원장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옛날부터 세골짜기가 모이는곳에는 물이 있기마련이라고 통겨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세골짜기 기슭에 약간 부풀어오른 기복에 불과했다. 물은 나울 것이었으나 우물을 파서 어디에 쓰며 어찌하여 이 중턱에 우물자리를 잡으시려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얼른 짐작할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물줄기만 잘 잡으면 물이 나울 것 같다는 명예관리위원장의 대답에 저으기 안도의 빛을 띠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분조장을 가까이로 부르시었다.

《그 삽을 줌 주오. 우물자리를 하나 잡아봅시다.》

분조장으로부터 굳이 삽을 넘겨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밭고랑에 삽날을 박으시며 빙 둘러

원을 그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원안에 든 강냉이그루를 삽날로 툭 툭 치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20~30 메터만 파면 아무데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한번 찾아봅시다. 땅우에 흐르는 물은 물론 땅속에 숨어있는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흐르지 않게 다 우리 나라 관계 체계에 망라시킵시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분조장에게 우물파는 법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얼마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어정쩡해서있는 명예관리위원장에게 물으셨다.

《어떻소. 정동무, 이 우물을 파서 쓰면 2분조의 마지막 빼기까지 적실수 있겠소?》

《예? - 이 우물로 땅을 적신단 말씀입니까.》

명예관리위원장은 수령님 말씀의 참뜻을 가늠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의 두눈은 한껏 쏘르려들었다.

《저 밭들보다 더 높은곳의 밭도 적어야 할텐데...》

혼자소리로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느 농장이나 흔히 있는 다락밭들을 그려보시는지 한동안 하늘가에 눈길을 주시였다.

《수령님! 농사야 자고로 농민들이 짓는 일인데 그 손바닥만한 밭에까지 파히 심려를 말아주십시오. 그럭저럭 고생하면 한해 농사는 짓습니다.》

《허허허, 그럭저럭 7, 8 월이 오면 비가 온다는 말이지요. 이거, 정동무 머리속에도 벌써 서리가 내린게 아니요? 허허허, 물론 우물 하나 가지고는 안되오. 왜 하나만 파겠소. 밭머리마다 우물을 파고 빙빙 돌아가면서 퍼서 대면 안되겠소?》

《예?!-》

명예관리위원장은 입을 벌린채 눈만 재게 슴뻐이였다.

밭머리마다 우물을 판다! 필요한것만큼 판다... 그 우물로 이 등성이밭을 적신다... 순간 명예관리위원장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들고 걱정하시던 가물탄 강냉이그루가 얼른거렸다.

이 몇평 안되는 등성이밭에 좀 더 관심을 했더라

면 수령님께서서 오늘 이처럼 험한 길을 걷지 않으셨을것이 아닌가.

명예관리위원장은 생각할수록 머리를 들고있을수 없었다.

수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에는 분조장에게 물으시였다.

《분조에 모내는 기계가 있소?》

《예! 있습니다.》

《수확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나 분조마다 원동기가 다 있는셈이요. 우리 집 시험포전에서 봐도 원동기 하나면 우물 세개는 담당할수 있소. 그것들을 왜 한철만 돌리고 창고에 뒤두겠소. 물은 원동기로 퍼야 하오. 저런 드레박놀음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제대군인이 신변기재를 리용할줄 알아야지. 응- 허허허.》

《알았습니다. 수령님!》

분조장의 대답소리는 한결 기운차게 들렸다. 분조장은 새삼스레 고개를 숙구며 자기네 분조밭을 휘익 둘러보는것이였다. 분조장의 얼굴에는 점차 흐뭇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윽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떠날 차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동무! 부탁이 하나 있소.》

《?...》

첫순간 분조장은 어리둥절하여있었다.

《분조장동무! 한 열흘어간에 여기에 우물을 하나 파보지 않겠소.》

분조장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분조장은 하나만 아니라 분조에 필요한 우물수자를 속으로 얼른 타산해보았다.

《수령님! 명령대로 분조 밭머리마다 다 파겠습니다.》

《밭머리마다 다?-》

《옛! 그렇습니다.》

《몇개인데 언제까지 다 파겠단말이요?》

《넉근히 잡아 대여섯개면 될것 같습니다. 열흘동안에 다 파겠습니다.》

《열흘동안에? □다-?》

《옛! 그렇습니다.》

분조장의 대답소리는 더욱더 우렁찼다.

손자의 쟁쟁한 목소리를 듣는 명예관리위원장의 가슴도 후련해졌다.

《좋소. 그럼 파보오. 이제 술한 사람들이 구경올 거요. 본때있게 파서 방식상학을 하잔말이요.》

분조장! 동무는 한개 중대나 되는 분조식솔들의 생활을 책임져야겠고 나는 전체 인민의 생활을 책임져야겠으니 우리 손잡고 한해 농사를 잘 지어보자구.》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제대군인 분조장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을줄 모르시었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명예관리위원장에게로 돌아서시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이 아침도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하는것이 죄스러워 견딜수 없었다.

《수령님! 저희네 농장때문에 지내 걱정을 말아주십시오. 찬바람을 너무 맞으십니다.》

《허허허. 정동무나 몸조심하오. 이제는 밤길을 그만 걸소. 난 오늘 또 한명 새로운 농촌친구를 만나 기쁘오.》

하시면서 다시금 젊은 분조장을 애무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눈앞에는 불현듯 강냉이농사때 명예관리위원장을 농촌친구로 삼으시던 때의 일들이 떠오르시었다. 또 한명의 농촌친구!...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명예관리위원장의 가슴은 뜨겁게 끓어올랐다. 강냉이농사때의 감격스러운 날이 절로 생각키웠던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큰길로 나섰다. 승용차를 바래우던 명예관리위원장은 그만 가슴이 뭉클하며 눈앞이 흐려와서 손자의 어깨를 더듬어잡았다.

승용차가 접어든 길은 평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던것이다. 그것은 룡정리로 가는길이였다.

× ×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지 이레째 되는 날 한낮때가 되어서였다.

우물공사장의 들끓는 소음을 일시에 제압하며 앞산코숭이에 설치한 고성기에서 방송원의 격조높은

목소리가 울려퍼지는것이였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잠시 일손을 놓고 귀를 강구었다.

그것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였다. 방송원은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있었다.

이상기후현상이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막고 해마다 만풍년을 가져오기 위하여 전당,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도처에 우물을 파고 굴포를 만들며 줄짗을 박아 지하수를 적극 리용함으로써 가물을 극복할뿐더러 우리 나라 모든 밭에 관수를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것을 지하수혁명이라고 선포하시였던것이다.

《지하수혁명!...우물...》

크게 소리내어 외워보는 명예관리위원장의 심장은 너무도 크나큰 충격으로 하여 쿵쿵소리를 내었다.

놀란것은 명예관리위원장뿐만 아니였다.

곡괭이를 허공에 쳐들었던 분조장도 방금 돌을 한차 실고온 《전진》호 운전수처녀도 하나같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명예관리위원장을 바라보고 섰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이 우물공사가 단지 손가락같이 약한 한그루의 강냉이, 이 보성농장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였으며 온 나라의 농사를 위한 지하수혁명이었음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보성땅의 어느 한두 골짜기의 패기발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다락밭들과 등성이밭에 이르기까지 말끔히 관수체계에 망라시키시려는 원대한 구상속에 지하수혁명이라는 또 하나 주체농법의 리정표를 세우시고 그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음을 진작 알지 못하고 《수령님, 물걱정은 없습니다.》라고 선선한 대답을 드렸으니 자신이야말로 수령님의 심중에 실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더해 드리였는가...

과연 철없는것이 만호였던말인가? ...

명예관리위원장은 농사로 보내온 한생이 일순간에 공백처럼 돌이켜지면서 다시금 수령님을 뵈을

면목이 서지 않는것을 가슴아프게 느꼈다.

명예관리위원장이 자신이 범한 실책을 두고 일생을 돌이켜보고있을 때 제대군인 분조장과 청년들은 《야! 나는 이 우물이 지하수혁명이 될줄은 몰랐단 말이요.》, 《이 보성땅이 또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소!》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썩하면서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 ×

그로부터 사흘후였다.

이제는 만호네 분조의 우물공사를 끝마친 명예관리위원장은 농장의 전반적인 우물공사에 달라붙었다. 오늘도 우물공사장에서 아침을 맞은 명예관리위원장은 전에없이 요란한 승용차의 경적소리에 허리를 펴고 행길쪽을 바라보았다.

빠스들과 승용차의 행렬은 마을로 접어드는것이였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일손을 놓고 관리위원회로 달려갔다.

전번에 낮을 익힌 한 일군이 오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물을 보시러 나오신다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방금 도착한 사람들은 우물방식상학에 온 전원회의 참가자들이라는것이였다.

순간 명예관리위원장은 눈썹리가 뜨거워짐을 참을길 없었다.

어제는 지하수혁명이라는 위대한 방침을 선포하시고 오늘은 일군들에게 그 실천적방도를 보여주시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먼곳으로 또 나오시는것이였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손님들보다 앞서 방식상학준비를 해놓은 2 분조 우물로 올라갔다. 명예관리위원장이 방식상학 우물에 당도했을 때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 2 분조원들은 어저께 완성하여 말끔히 정리한 우물주위를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덧손질을 하고있었다. 잔넬판자로 우물주변에 울타리도 가쁘히 하고 파란 뽕끼칠까지 하여 흠할데 없는 우물이였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명예관리위원장은 어쩐지 뻗뻗치 못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얼굴이 컴컴해진 손자녀석도 한쪽편에 우두거니 서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깊

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자책과 번민속에 모태기는 손자를 바라보느라니 명예관리위원장의 마음속은 더욱더 무죽해지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결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명예관리위원장과 분조장의 온몸을 무겁게 누르고있었다.

그것은 제힘으로 우물을 파지 못한탓이였다.

실은 수령님께서 우물자리를 잡아주시고 떠나신날 그 낮으로 분조장 정만호를 대장으로 농장적인 돌격대가 무어지고 명예관리위원장이 그 앞장에서 공사를 지휘했었다.

분조장은 전호파듯 그저 우격다짐으로 내리조기고 가서내면 될줄 알았던 노릇이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다.

우선 절기따라 해낮에 해야 할 농사일도 드릴수 없었고 점심참이나 저녁에 외딴 달라붙어 파제끼려 해도 바닥이 깊어질수록 사방에서 물이 솟새어나와 어쩔수 없었다. 암반과의 싱갱이질, 쌍을 돌을 여기 저기에서 주어오는 품이란 여간한것이 아니였다. 첫날 우물을 절반도 못꿨는데 해가 뜨 떨어져서 목에 감았던 수건을 풀어 불망치까지 만들었던 분조장이다.

바로 그날 저녁때였다. 우물공사장으로 화물자동차 한대가 먼지를 말아올리며 달려왔다. 차가 멎기 바쁘게 운전칸 문이 벌럭 열리더니 작업복을 입은 군당책임비서가 내리고 적재함에서는 삽과 곡괭이를 든 군당일군들이 쏟아져내렸다.

자동차들은 연방 꼬리를 물고 들이닥쳤다. 크고 작은 돌까지 가득 실은 차와 함께 군내정무원들이련속 밀려왔다. 우물공사에 온 군이 펼쳐나선듯했다.

우물은 그렇게 완성된것이였다.

발머리마다 다 파졌노라고 쉽게 대답을 드렸던 자신의 경솔성을 돌이켜보는 분조장은 너무도 민망하여 고개를 쳐들수조차 없었다. 분조장은 자신을 뼈아프게 질책했다.

(...아무런 연구도 없고 과학적인 담보도 없이 대답은 크게 하고 실천은 하지 못한 나같은 주먹치기 농사군들이 있기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농사걱정을 하시는것이 아닌가
... 진정 나의 심장, 내 온몸이 충성심으로 뛴어번졌
던가...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어버이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남들과 같이 머리를 들고 서있을수
있단말인가... 말없이 담배연기만 날리는 할아버지,
분조원동무들, 이제 어버이수령님께서 로고를 마다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 먼 등성이밭으로 오신다
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정만호는 분조장 재목이 못
된다고 말씀드려주세요. 나는 두번다시 수령님앞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분조장의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치며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어떠
한 처벌도 받아 마땅하다고 자신을 질책하는 분조
장은 이제는 어디에 서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무거운 머리를 들수 없었다.

바로 이때였다.

열흘전과 꼭 같은 봄외투를 입으셨는데 앞단추를
열어 뒤로 제치시고 모자채양을 약간 들어올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원들과 함께 올라오시는것이
였다.

누군가가 멀리 앞서 걸으면서 손을 들어 《후여-
후여》 하며 닭무리를 쫓고있었다. 오늘따라 금방
미역을 감은듯 눈덩이 같이 흰 몸뚱이에 벗이며 부
리와 발목이 유난히 빨간 닭무리가 벌판에 한벌 덮
켜여 풀씨를 쫓느라고 사람들이 와도 움쩍을 안했
다.

명예관리위원장과 분조장은 숨을 죽이고 한자리
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순간 명예관리위원장의 가슴은 터질듯 아파났다.

(우리 보성리가 언제 한번 어버이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어겨본적 있었던가... 어찌하여 제힘으로
파지 못하였는가-내가 벌써 늙어가는가? ...맹세를
어기다니 ...영원히 농업전선에서, 혁명대렬에서 떨
어지지 말라고 명예관리위원장이라는 크나큰 신임
을 주셨는데 보답은 못할망정 ...)

한생을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철석같은 신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명예관리위
원장은 두번다시 범한 실책이 너무도 죄스러워 그

자리에 더 서있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명예관리위
원장은 손자와 함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여주며
뒤전으로 물러섰다. 사람들은 우물둘레에 빙-둘러
섰다.

촬영기를 꼬누어든 촬영가가 사람들의 앞뒤로 분
주히 뛰어다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먼저 나무바퀴 달린 원동기
를 만져보시며 이것이 창고에서 여름내 놓고있는
수확기와 모내는 기계의것이라고 설명하시다가 문
득 말씀을 중단하시였다. 그리고 사람들속에서 누
구인가를 찾으시는듯 살피보시는것이였다.

《가만-여기 우물주인이 어데 갔소? 우리 제대군
인 분조장이 왜 안보이나-》

사람들의 뒤전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서있던 분
조장은 그만 어쩔바를 몰랐다. 장화목다리와 옷도
리 여기저기에 흙탕물이 누렇게 된 옷매무시를 황
망히 더듬었다.

누군가 가볍게 등을 밀었어야 분조장은 고개를
숙인채 사람들이 띄여주는 길로 수령님 앞에 나서
서 겨우 인사를 드렸다.

《아니, 정동무는 왜 거기 서있소? 앞으로 나오
오.》

어버이수령님의 권유에 명예관리위원장은 손자
와 함께 나란히 섰다.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까지 받은 이 순간 더는
그대로 서있을수 없어 분조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드렸다.

《수령님! 사실 우물은 저희들의 힘만으로 판것이
아닙니다. 군내 정무원들이 도와줬습니다.》

《정무원들이 도와줬다-》

《... ...》

《다섯개를 파겠다고 했지? -제힘으로- 우리 분
조장이 허풍을 쳤구만. 응-》

명예관리위원장도 모여온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
고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순간 이제껏 킁킁해보이던 분조장의 얼굴이 해쓱
하게 질리는것이였다.

요 며칠사이 까슬까슬해진 입술이며 불편이 훌쩍
해진 분조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보시던 수령님께

서는 갑자기 매우 낮은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분조장-우물 하나 파는데 아마 2 백립방이상 토량을 제졌겠지?》

《예! 그렇습니다.》

《돌은 트랙토르로 열댓차 들었나?》

《예! 그렇습니다.》

《농사준비는 제대로 하면서 밤새워 팠겠구만.》

《!...》

분조장은 그만 목이 껍 메여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어쩌면 분조에서 한 일을 그대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흔드시며 말씀하셨다.

《안돼- 농민들 힘만으로는 안돼. 그래서 우선 군만이라도 동원시킨거요. 분조장동무! 수고했소. 아주 잘 팠소. 동무네 분조에서 저것 하나만 파재도 아마 밤잠을 못자셨을거요... 목수건으로 불망치까지 만들었었다면서. 응-》

문득 말씀을 끊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분조장의 한손을 다정히 잡아 가슴께로 가져다 찬찬히 들여다보시었다.

《손이 터지는줄도 모르고 일했구만...》

수령님께서서는 분조장자신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손가락의 상처자리를 조심조심 만져보시었다.

분조장은 너무도 충구스러워 손을 빼내려 움지락거렸다.

《아파?-》

《아닙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분조장의 손을 꼭 잡으신채 수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금년에도 또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농업대회를 가집시다. 나는 지하수혁명에 한몫 단단히 한 우리 분조장동무를 주석단에 추천하오...》

더욱더 고개를 수그리던 분조장은 그만 수령님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한참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퐁퐁퐁 목멘소리를 지르며 원동기가 돌아가고있는 새로 시작한 우물공사장쪽을 둘러다보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저기서 우물을 한창 파고있구만. 먼저 저리로 가봅시다.》

수령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분조장은 주먹으로 눈언저리를 뺨 문지르면서 명령받은 전사처럼 그쪽으로 내달려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걸음을 떼시었다.

우물공사장 한쪽에는 활차가 달린 삼발이가 넘어져있고 그옆에는 하얀 재티가 수북한 화톳불자리가 있었다.

우물둘레에는 물이 넘어나서 사방 질척거렸다.

분조장이 물을 퍼내느라 우물거리며 돌아가는 원동기를 재빨리 꺾다.

명예관리위원장은 한끝으로는 은근히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말씀을 올렸다.

《수령님, 물이 너무 나와서 파는데 애를 먹습니다.》

《거 야단났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우물안을 들여다보시려고 바싹 다가서시었다.

양수기를 끈 잠간사이에도 우물안에는 황토물이 빙빙 돌면서 불어나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어디서 나타났는지 빨간 흙물을 뒤집어 쓴 돌가재 한마리가 마른땅우에 나와 계바라가고있었다.

한참후 몸을 돌리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저만치 앞에서 기여가는 가재를 바라보시며 물으시었다,

《아-이런 산꼭대기에 가재가 다 있소.》

《우물 팔 때 돌틈에서 여러마리 잡았습니다. 수령님!》

《그럼 분조장이랑 구워먹었겠구만.》

《... ...》

분조장은 얼굴을 돌리며 입가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니 보성땅속에도 물이 흐른다는 소리가 아니요.》

《예! 수령님! 우물자리를 면바로 잡았습니다.》

《그래- 허허허. 자-그럼 설명을 해보라구. 우물을 파본 사람이 선생이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7, 8월이 오면 비가 오겠지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이 제대군인 분조장은 제힘으로 가물을 이겨내겠다고 이렇게 훌륭한 우물을 팠소...

웁소. 사진을 찍으라구, 바로 이런 진짜배기 농사꾼들이 있기에 우리 나라는 해마다 풍년이 드오. 동무들이 큰일을 했는데 우리 두 친구와 사진이나 찍자구. 지하수혁명기념으로 말이요…》

명예관리위원장은 너무도 먼구스러워 그대로 있을수 없었다.

《수령님! 면목이 없습니다. 저수지소리를 해서… 심려만…》

《허허허… 그래서 친구가 좋다는게 아니요. 모든걸 솔직하게 털어놓는게 친구야, 허허허…》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명예관리위원장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정동무! 훌륭한 손자를 두었소. 정동무의 대를 이을만한 기동감이 생겼소.》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못내 기뻐하시었다.

이번에는 방식상학 참가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동무들! 어저께 본 굴포와 줄짙도 좋지만 이 우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것보시오. 산중턱에다 댔는데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오. 중턱에도 좋고 기슭에도 좋고 우물을 파서 싸올리면 다락밭이나 등성이밭도 다 관수할수 있습니다. 곡식을 심는 모든 땅을 다 적실수 있습니다…》

얼마동안 사이를 두신 수령님께서는 분조장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시었다.

《분조장동무! 이 양수기에는 소방호스도 있고 비닐관도 있는데 어느것이 더 좋소?》

《수령님! 소방호스가 편리합니다.》

《보란말이요. 경제위원회에서도 농촌에 나와봐야 하오.》

하시자 수원들속에서 한 일군이 대답을 드리는 것이었다.

《예. 수령님 교시대로 평양방직과 신의주방직에 호스생산을 조직했습니다.》

《잘했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줍시다. 그래서 어떤 왕가물과 비바람이 불어와도 해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에게 이

밥과 고기국을 먹입니다. 인민들을 더 잘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살게 하는것-이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이 아침도 나라의 농사를 걱정하시며 찬바람부는 언덕에 서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노라니 한해도 아니고 두해도 아니게 걸어오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로정이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이 땅우에 바다처럼 솟아난 연풍호, 석암, 태성과 련탄저수지들… 그것은 오늘 지하수혁명에로가지 달려온 주체농법의 리정표로 이 나라에 길이 전해질 력사의 페이지들이였다.

생각할수록 고마움과 걱정애 가슴이 울렁거렸다. 명예관리위원장은 눈길로 이슬이 피어올라 두볼을 타고내리는것도 알지 못했다.

(수령님! 대대손손 이제는 우리 나라 모든 땅에 관수를 하여 한그루의 강냉이도 허약한것없이 포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수령님! 제가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농사를 어느 관리위원장이나 어느 분조장이나 어느 농민이 짓는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나라 농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짓고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에 사시고 농사걱정을 하시는 분은 과연 수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논과 밭, 등성이나 산골짜기, 곡식을 심는 모든 땅에 뿔어올리는 지하수는 단순한 물줄기나 관개용수가 아니며 후손만대에 전해질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분수이라는것을…그 사랑의 분수아래 이 땅우에 그 어떤 왕가물이 와도 우리 인민만은 풍년농사를 지어 영원히 먹는 걱정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될것입니다! …)

명예관리위원장은 다시 하늘땅을 뒤흔드는것 같은 위대한 수령님의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동무들! 농민들이 시추기를 요구하면 시추기를 동원합시다. 우리가 찾는 지하수는 한두해 농사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것입니다. □우리 도 우리 군에는 그만하면 눈비가 꽤잘 오는데, 물이 없어 농사를 못짓게야 되겠는

가- 그렇소, 오늘 당장에 물걱정을 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성일대와 같이 우리 나라 여러 지역들에는 가물현상이 나타나고있소. 모든것은 자그마한 돌파구로부터 확대되는것이요, 그렇다면 동무들! 땅우에 흐르는 강물이 마른 때에 가서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물을 파라고 하겠소?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안전한 농사를 넘겨줍시다.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물걱정과 흉년을 모르듯이 우리의 후대들도 물걱정을 모르게 합시다. 이것은 지체할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지하수를 찾는 이 혁명에 전당, 전군, 전민이 모두 달라붙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년내로 단숨에 해제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것이 없습니다. 이 보성농장에서 그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말씀을 마친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명예관리위원장쪽으로 약간 허리를 숙이시며 한결 낮으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어떻소. 정동무! 가물을 이겨낼것 같소?》

《예!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분조장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힘이 나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라붙거든. 만호를 보니 나도 한 10년 젊어진것 같애 허허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멀리 흰구름 떠도는 하늘을 즐겁게 바라보시였다. 그 하늘아래 가없이 펼쳐진 벌판에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기여다니고있었다.

한참후 머리를 돌리시고 옆에 선 분조장의 얼굴모습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하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정동무! 집이 어느쯤이요.》

《예?! -멀지 않습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일일천추 고대하던, 어버이수령님을 집에 모시고싶은 일생소원이 풀리려는 이 순간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도시 진정할수가 없었다.

《자-동무들, 이제는 내려갑시다. 우리 분조장을 한잠 재워야겠소.》

하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먼저 걸음을 떼시였다.

《!! ! …》

명예관리위원장과 분조장은 땅에 뿌리를 내린듯 자리를 뜰줄 몰랐다.

《자-어서 앞서라구, 만호가 잠드는걸 보구야 떠나지.》

수령님께서서는 바야흐로 푸른 물이 들기 시작하는 저멀리 산과 들을 굽어보시며 자국을 떼시였다.

《참 좋은 날씨요!》

수령님의 즐거우신 기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금가을과 잇닿은 푸르른 봄의 박동을 힘차게 느끼게 했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우에 또 하나 위대한 방침, 위대한 실천으로 선포된 지하수혁명! 그것은 관개의 마지막 부분까지 깡그리 완성한것이였다.

방식상학 참가자들은 지하수혁명의 위대한 리론과 실천적방도까지 받아안은 흐뭇한 가슴으로 언덕을 내리고있었다.

사람들은 보았다! 지하수혁명의 밝은 해빛아래 등성이밭마다에 설레는 강녕이바다, 벌에 넘치는 황금바다, 사철 이 땅우에 넘쳐나는 과일향기와 웃음나락을.

명예관리위원장은 소리내여 외쳤다.

-수령님! 보입니다… 세세년년 풍년이 보입니다…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풍년입니다…

명예관리위원장은 이 력사적인 1977년의 봄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이 보성땅에 사적비를 세울 때 새겨넣을 그 비문의 한구절도 떠올랐다.

…후대들이여! 왕가물속에서 풍년을 안아왔다고 기뻐만 하지 마시라. 당신들이 푼푼히 퍼쓴 저수지의 물이나 우물, 줄짙, 굴포들에 넘치는 지하수의 시원에 대해 알아야 하나니, 그것이 어느 농민이나 어느 농학박사나 관개전문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의 분수라는것을 잊지 마시라! …

명예관리위원장은 다시한번 속으로 뇌이며 흐뭇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등성이밭을 내리고있었다.

꽃물결이 흐른다

조성관

꽃물결이 흐른다
4월의 명절을 맞는 이 강산에
하늘땅을 흔드는 환호성에 떠실려
꽃물결이 굽이쳐흐른다

어버이수령님 사랑속에
색갈고운 교복을 차려입고
어버이수령님 은정이 깃든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어린이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천떨기 만떨기 피어난 꽃들

꽃물결이 흐른다
어버이사랑을 노래하며
거리와 마을에
먼 산골에 외딴 섬우에
산에 들에 피는 꽃도 알지 못하는
천만색갈 무늬 아름다운
꽃물결이 굽이쳐흐른다

아, 한집 아이들도
앞마련 뒤마련으로
꼭같이 차례지지 못하는데
온 나라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철따라 새 교복을 안겨주시는 그 사랑

어린 마음들에 그늘이 갈세라
크고 작아 서운해할세라
그 마음 미리 헤아리시여
온 나라 수백만 하나같이
몸에 맞춰 발에 맞춰
마음에조차 맞추어주시는 그 사랑

눈물을 보이지 말자고
웃어야 할 기쁜 날에
울지를 말자고 다져도
바라보며 울고
마음속에 쓸어보며
눈물은 흘러 흐르고

기빠서
너무도 기빠서
방글거리는 철없는 그 눈빛들에도
꽃잎에 맺힌 이슬과도 같이

웃음은 맺혀 구슬같고...
끝이 어데냐 그 사랑의 끝이 어데냐
진귀한 꽃 한송이
새 한마리를 보시고서도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천리 천리 현지지도의 길
달리는 승용차에서나마
잠시 쉬시어도 좋으시련만
차창에 스치는 아이들을 손저어 반기시며
모차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살피시는 그 사랑

아, 어렵던 전후의 날 길가에서 만나신
발벗은 한 아이를 두고
마안산에서 가슴에 맺히신 그 심려
아직도 풀리지 못했다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던
그 사랑 그 은정이 아니었던가

왕 없는 이 나라에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들어
소년궁전을 세워 춤노래를 주신것이...
후대들의 보육을 나라에서 맡는것을 법으로 정하시여
추울세라 더울세라
탁아소문턱에서부터 곧추 뻗은
11년제 배움의 꽃대문길에
철따라 새옷 갈아입혀 세워주신것이...

오직 후대들을 위하여
오직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으뜸가는 세상 모든것
아낌없이 베푸시여
피어나는 그 행복속에
평생의 기쁨을 두시고 로고를 잊으시는
그 사랑의 품속에서 피어난 꽃들-

꽃물결이 흐른다
4월의 명절을 맞는 이 강산에
하늘땅을 흔드는 환호성에 떠실려
꽃물결이 굽이쳐흐른다

산에 들에 피는 꽃은
봄 여름 가을 철따라 피고 저도
계절의 눈비에 질줄 모르는 꽃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피어난 꽃들
꽃이여 피어 만발하라
조선의 미래여 주체의 해발아래 피어 만발하라

그 품속에 영원히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이 되게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이 되게

기념

허수산

화창한 봄날이여라
한해전 그날처럼
교정의 살구꽃 아름답게 피어나고
연풍호의 맑은 물결도 감격에 겨운듯
기슭을 적시고 또 적시고...

행복한 이 아침
온 연풍마을이 뜨거운 눈물 머금어라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찍은 사진
어버이수령님 몸소 찍어주신
하얀 벽에 정히 모신 기념사진들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아, 감격의 그날
온 나라가 그날만은 쉬실것을
간절히 바랐던 4월의 봄명절
이슬젖은 들길을 걸으시고
여기 연풍의 학교 찾아주신 수령님
명절맞아 더 밝아진 아이들이 보고싶으시여
온 하루를 보내신 그 사랑이여

아직은 온 나라가
수령님께 축하의 인사도 드리기전에
우리 아이들부터 찾아주시고
명절차림의 모습 것처럼 기뻐해주시며
친자식처럼 한품에 꼭 안아도 주시고
앞으로도 세워보시고 모로도 세워봐주시고...

그러시고도 마음 모자라시었던가

꽃바다로 설레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더니
오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영원한 기념으로 남겨주자 하시며
몸소 사진기 드시여 해점도록
한장한장 찍어주시던 자애로운 그 영상이여

아, 수수한 우리 농민들의 자식들의 모습을
기념으로 평양에 가지고 가시겠다며
한장한장 사진을 정히 고르실 때
한없는 격정에 들먹이던 가슴
불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여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혁명을 위해 바치시는 나날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
가장 큰 기념으로 간직하시는것은
축복받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여라

이 아침 밝은 햇빛속에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을 모신
대를 두고 전해갈 기념사진 우러르며
온 연풍마을은 다시 뜨거운 감격에 설레이거니
그토록 크나큰 사랑의 품이 있기에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의 기쁨들과
우리의 평범한 모습들이
행복한 시대의 영원한 기념으로 남는구나

주체의 노래

오영재

주체의 빛발이 누리에 퍼지자
수천년 슬픔과 굴욕 속에 짓눌렸던 인간이
자주의 새 생명을 받아안고
력사우에 거연히 솟아올랐도다

가장 거룩하게, 가장 존엄있게
사람이라는 말이
소리높이 울리고
세기의 념원이 열린 푸른 하늘 아득히
주체의 새시대는 펼쳐졌도다

이 찬연한 빛발은 누리에 넘치고
위대한 정신과 신념의 세계
위대한 사랑의 새세계를 맞은 인민은
민족과 언어는 달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부른다 《주체!》

그것은 진리라는 말
희망과 미래라는 말
그것은
인간의 참된 삶이라는 말

환희로운 해빛은 세계를 밝히고
위대한 태양을 맞은 세기는
억만가닥 뿌러지는
새 생명의 빛발을 받아안고
설레이며 우러른다
은혜로운 주체의 태양
아, **김일성** 동지!

그 빛발을 안고
지구우에 화불처럼 타오르는
조선이여, 그대는 나의 조국
그 빛발아래
지구우의 모든 사람들은
형제로, 벗으로 가까와지고
달려온다
주체의 조국을 찾아
위대한 태양의 품을 찾아

그립던 어머니 품을 찾은듯
만민은 행복에 목이 메여 안겼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혁명의 맑은 량심, 투쟁의 벽찬 환희로
만민은 이 품에 안겨
력사의 주인으로 눈을 뜨고
운명을 자기 손에 억세게 틀어쥐였거니

아, 억눌린 2천만을 안으시고
백두의 설령에서 옮기신 첫 걸음
오늘은 수억만 인민을 한품에 묶어세우시고
다함없는 흙모의 정
꽃보라로 끝없이 날리는
세기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주체의 새세계를 이끄시며
우리 수령님
력사의 한복판을 걸어가고계시여라

세계여 창문을 열라

정동찬

안개 내린다
노예선 배고동소리 수평선너머 처량하던
아프리카대륙의 해안선 굽이굽이에

대서양의 짙은 안개 내린다
창가의 불빛앞에 마주앉은
아프리카의 한 시인

인민에게 주고싶은 귀국의 첫 인사를 시로 적으며
잠 못드는 밤

멀고먼 동방의 나라 조선
맑고 푸른 평양의 하늘아래 다시 서보는것인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연단에서 읊던
송가의 구절구절을 다시 더듬어보는것인가
잠 못드는 밤

날이 밝으면
찾아올 이웃들앞에
달려올 젊은이들앞에
쳐다볼 순박한 눈동자들앞에
시인은 나서리라
식민주의를 저주하며 분노하던 그 얼굴에
생의 환희에 넘친
새로운 모습으로
깃잡힌 권리를 두고 가슴치며 울던 그 얼굴에
새삶의 노래소리 밝은
새로운 목소리로

못견디게 부르고싶은 노래를
가슴속에서 터쳐내듯
끝맺은 한편의 시를 소중히 안고
잠자는 어린 딸을 깨워안아 불을 비비며
창가에 다가설 때
아프리카의 수평선에 해돋이가 시작되고있었다
후덥게 내리는 눈물에 젖은 그대로
시인은 운명을 두고 웨치고싶었다

세계여, 창문을 열라!

얼마나 오랜 세월 제국주의 검은 구름장이
이 대륙의 창문들에 비바람 몰아왔더냐
한줄기 빛도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간고한 세월 식민주의자들의 피묻은
흙사태속에
이 창문들이 파묻혀버렸던가
한모금 공기도 마시지 못하도록...

사람도
꽃도
문화도
빛이 없고
공기 없는
식민지 오돌막속에서
캄캄한 뿔창아래
질식되고
시들고

죽어버렸었다

오, 억압에 눌려
꼭 닫겨버렸던 창문들을 활짝 열라
더운이슬 머금고 망울 터치는
꽃화분을 햇빛밝은 창가에 놓으며
아프리카여, 자주의 노래 높이 부르자
까만 눈동자 어린것을 더 높이 추켜안으며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평생의 축복을 받자
불어오는 열풍에 옷자락 날리며
풍겨오는 꽃향기속에 새봄을 느끼며

세계여! 창문을 열라!

그 뉘의 집이
안데스산맥의 깊은 계곡 읍달쪽에 있건
태고연한 원시림의 막바지 깊은 그늘속에 있건
북쪽에도
남쪽에도
해빛을 보내는 태양을 우러러
창문을 열라
창문마다 뒤덮인 검은 구름 가셔버리고
피로써 얼룩진 흙사태를 밀어버리고
창문을 열라

창문을 열면
노래는
은혜로운 해발에 실려오리라
제 나라의 모국어를 후대들의 입술에서
빼앗기지 말라고
제 손으로 버림받던 사막에 물길을 대여
아이들의 손에 쥐여줄 열매들을 무르익히라고

열리는 창문마다 보내오는 환호에 손저으며
끓어오르는 격정의 파도에 실려 눈물 지으며
아프리카의 시인은
귀국의 첫 인사 끝을 맺고있어라

사람의 가슴속에 해빛을 내리신
혁명의 태양 **김일성** 동지
위대하신 그 이름 빛나는 태양 우러러

세계여, 창문을 열라!

우리는 주체의 해빛을 온몸에 받고싶다
우리는 주체시대의 대기를 마음껏 마시고싶다
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신념

오필전

아득히 먼 수평선
바다로 바다로 흐르는 대형벨트콘베아
파도를 타고 올라오는 동음소리도
이날따라 더욱 정다웁게 울리고
갈매기도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데

서해천리... 기쁨을 안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으시고
몸소 조국땅 한끝을 찾아오시여
건설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아버지수령님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저 설레는 바다처럼
넘치는 감격은 끝이 없어라
공사에서 있었던 가지가지 사연을
수령님께 아뢰는 건설자들...

한번 그러서 안되면 그 몇번
고쳐 그리기를 다시 또 몇차례
온 집단의 지혜를 다 모아
시련을 뚫고 성공한 설계가의 그 사연
수령님께서는 기쁘시여 미더우시여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정밀한 기계를 깎아내는
전문공장 아닌 부속직장에서
수만대의 로라를 자체로 깎아내고
수천대의 축을 제 힘으로 버려내던
직장장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그것이 귀중하다시며
수령님께서는 치하를 보내도 주시고

울리는 한마디 한마디...
갈피갈피 수첩에 적어가시며
어서 또 말하라고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이 웃음지으시는데

우리 기술 우리 힘만으로는
이 큰 일을 못한다고 맞서던 사람들
신비와 보수를 부시고
기어이 해냈다는 짧은 기사장
혈기에 넘치고

신념에 찬 그의 이야기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쁘시여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여라

-얼마나 장한 일이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니
힘도 커지고 자신도 생기고...
동무들은 자력갱생이란
대학졸업증을 또하나 받았소!

막장에서 쏟아지는 박토부지로
바다 멀리 뚝을 쌓고 황금벌을 펼쳐가는
불수록 통쾌한 바다우의 콘베아...
시대가 알지 못한 거창한 일을
수령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맡기셨던가

아, 한장한장 설계를 그려간 그 나날속에
가슴엔 드눌줄 모르는 담이 커졌고
한치한치 푸른 바다 한복판으로
철의 잔교를 세워간 그 나날속에
빛나는 창조와 새력사가 태어났거니

거대한 삶의 토양에
우리의 신념은 뿌리내렸다
자력갱생 -여기에
평범한 건설자들이 영웅으로, 공학자로 되고
새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있음을!

아, 생각에 잠기시여 수평선 멀리
콘베아의 흐름을 가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한량없는 기쁨속에
서해의 억만 파도는 높뛰고
갈매기는 구름처럼 잔교우를 날으는데

바다를 누르고 높이 솟은 콘베아는
제 손으로 안아올린 조선의 힘처럼
제 발로 걸어간 시대의 발자국처럼
장쾌히 흐르고있었다
이렇게 걸어가고 또 걸어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으로
끝없이 끝없이 흐르고있었다!

언제면 그 언제면

리계심

과원의 언덕길 저 멀리
어버이수령님 타신 차는 보이지 않아도
두고가신 뜨거운 사랑이 굽이쳐와
이 마음을 달래주어라

속새풀도 시들던 서해기슭에
세상에서 제일 큰 과원을 구상하시던 그날엔
끼니마저 건느시며
과원이 설레일 이 땅을 가꾸어주시더니

눈내리는 겨울날엔
전화속에 뿌리내린 사과나무 아지마다
눈털고 꽃눈을 세어보시며
열매 주렁질 가을날에 미소를 보내주시더니

바라시고 바라시던 그 가을이 와서
사과랴 배랴 감이라
홍보석 청보석 은금의 구슬을 뿌린듯
과일의 무지개 비긴 백리과원에
오래오래 수령님 모시고싶은 간절한 심정
해마다 년륜으로 마음속에 감으며
이날을 기다려왔건만

하늘땅이 겹도록 주렁진
한그루 사과나무앞에 서시여
이 많은 과일을 따들일 수고를 헤아리시여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시고는

더 큰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는가

눈비를 맞으시며
힘들여 가꾸시던 그 시절엔
그처럼 귀중하신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건만
즐거이 보아주셔야 할 이 과원의 선경을
두시고서는
더 아름다울 인민의 락원을 꽃피우시려
또다시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여라

언제면 그 언제면
어버이수령님 시름을 잊으시고
손수 가꾸신 과원의 가을을 보시랴
백리과원의 바다를 펼쳐주시고도
온 나라를 공산주의 무릉도원으로 꽃피우시려
잠시의 쉬심을 모르시고 떠나가서는 수령님

한평생 걸으시는 그 로고의 길우에
펼쳐주신 백리과원의 바다가
위대한 사랑의 파도가 되어
이 마음의 기슭을 치누나

소리없이 뜨거운 눈물로 구슬지는
그 사랑의 길을 끝없이 따르는 이 마음
하루를 천년으로 만년으로 가꾸어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으로 설레이리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으로 꽃피우리

우리의 고향, 하나의 가정

문동식

4월 15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해마다 그러하듯이 만경대고향집을 찾아 공장을 떠났다.

연두색 물이 오른 버드나무가지들이 상쾌한 봄바람에 하느적이는 대동강기슭, 아름다운 강반을 옆에 끼고 혁명의 요람 만경대로 가는 나의 마음은 진정할줄 몰랐다.

무지개 비낀듯 무늬고운 대형버스의 폭신한 의자에 몸을 잠근 동무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기쁨이 어려어있었다.

언제나 명량한 선반공처녀들은 버스가 움직이자부터 차창으로 비껴드는 담청색 대동강물결과 티없이 맑고 푸른 하늘, 싱싱한 록음과 울긋불긋한 화초원들, 그 사이사이로 웃으며 떠들며 흐르는 행복의 물결에 매혹되어 몹시 설레었다.

버스는 벌써 대동강기슭을 지나 큰길에 나서고있었다.

《됐다, 이제 큰길에 나섰으니 패속을 놓으면 조만간에 만경대에 가닿을것이다.》

저저마다 만경대로 앞서가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어 이렇게들 말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활주처럼 곧추 뻗은 큰길에 나선 버스는 방금전보다 더 더디게 움직였다. 아니 조심스러워 발뼌발뼌 걷는것 같았다.

차창을 내다보니 따사로운 봄별이 재글재글 쏟아져 내리는 큰길에는 무수한 버스와 승용차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아, 모두들 만경대로 가고있구나. 온 나라 사람들이 고향집으로 가고있구나...

나는 가슴치는 격정에 사로잡혀 벅차오르는 흥분속에 유유히 흐르는 버스들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만경대로 가는 길에는 그 언제나 사람이 많았지만 오늘에는 더더욱 붐비는것이였다.

앞서가는 버스에서는 머리마다 나비리봉을 올린 유치원꼬마들이 구슬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뒤따라가는 버스에는 어느 건설장 아니면 어느 협동농장마을에서 떠나오는 단체인지 스무살 안팎의 새세대들이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고있었다.

또 다른 버스에는 색동저고리에 꽃댕기를 드리운 손녀애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아들 며느리와 담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웃음비낀 얼굴도 있었다.

열대 스무대 서른대... 꼬리없이 달려가는 버스들의 모양과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거기에 탄 사람들

의 얼굴과 차림은 모두 하나같이 웃음ियो 꽃ियो 노래였다.

볼수록 시야에 안겨드는 온 나라 온 강산이 흠모와 충성의 대양을 이루어 이 시각 우리와 함께 만경대로, 고향집으로 달려가는듯싶었다.

문득 나의 눈앞에는 한부서에서 함께 생활하는 정동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말에 우리 부서에 온 젊은 동무이다. 그의 고향은 창성이고 부모형제들도 모두 거기서 살고있다.

그런데 정동무는 명절준비를 서둘고있던 어제 자기 집에서 온 편지 한장을 우리들앞에 내보이는것이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우리는 올해도 명절을 만경대에 가서 쇠기로 하였다. 그러니 명절날 아침 곧장 만경대로 나오거라.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향집앞에서 너를 기다리겠으니 명심하고 약속을 꼭 지켜라...

정동무 아버지의 편지 구절구절을 되새기는 나의 머리속에는 우리 시대의 가정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교시가 떠올랐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가르치심을 다시금 가슴에 뜨겁게 새기는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 우리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혁명가정의 슬기로운 력사가 더듬어지게 되였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인민은 망국노의 설움과 울분속에서 오랜 세월을 헤여져 살았다.

사회적무권리와 착취와 억압이 판을 치던 그 세상에서는 한고향, 한가정에서 나서자란 혈육이라 해도 모여살수가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살길을 찾아 하늘땅이 열려진곳이라면 그 어디건 헤여져가야만 했다.

하기에 수난에 찬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우리 인민이 피타게 갈망한것은 한형제, 한혈육, 한가정이 하나의 지붕아래 모여앉아 회목하고 단란하게 살아보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이 간절한 소원은 오직 혁명의 영재

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폭풍에 날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우리 겨레들이 한지붕아래 모여 행복하게 살도록 조국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일찌기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하던 항일의 나날에, 자신께서 지니신 불타는 조국애와 겨레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제백만대군의 머리우에 멸적의 불벼락을 가차없이 내리셨다.

하여 이 나라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마침내 망국의 비운이 뒤덮였던 이 강산에 인민의 새세상, 새조선의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었다.

생각해보면 조국해방, 이 장엄하고 거창한 말과 함께 시작된 우리 인민의 새력사는 얼마나 찬란히 빛나고있으며 광휘로운 빛을 뿌리고있는가!

조국해방, 이 말이 세상에 선포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이 오늘로 달려온 그 모든 나날은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새삶이 꽃피나는 명절같은 나날들이었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서른세해, 유구한 세월의 흐름에 비기면 한순간에 불과한 이 짧은 기간에 수천년의 민족력사에서 잃었던 그 모든 행복과 환희와 희망을 되찾았으며 먼 앞날의 기쁨도 웃음도 오늘에 누리며 마음껏 즐긴다.

이렇게 놓고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속에 창조되는 우리 조국의 역사는 통채로 하나의 명절인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해마다 봄이 오면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마움에 사무쳐 우리 인민의 민족최대의 경사스런 명절인 4월 15일을 노래하며 만경대, 만경대로 찾아가난다.

우리 민족의 구성이시며 혁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

유서깊은 만경대가 있기에 이 땅우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주권이 있고 행복이 꽃피나는 우리의 거리와 마을이 있다.

망국의 비운이 칭칭 서리였던 이 강토에 민족재생의 서판을 뿌리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초가집이 있기에 조국이 있고 조선의 영예가 있다.

력사의 새 기원을 열어준 주체의 새시대가 여기서 태어났고 인류의 행복도 기쁨도 미래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무궁토록 만발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차창밖에 뻗어간 이 땅의 천만 갈래 길과 길들이 만경대초가집에서 시작되어 온 나라에 끝없이 뻗어간듯싶었다.

즐비하게 일떠선 새 집들은 모두 만경대고향집에

서 솟아나 온 나라에 세간난듯,

일터와 거리와 마을, 이 나라 그 어디서나 머리를 높이 쳐들고 활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아오는 하나의 식솔인듯싶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우리 조국은 하나의 가정, 이 땅의 수천만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아버지수령님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하나의 혈육, 하나의 형제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된 마음의 고향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생각도 숨결도 같이하며 하나의 심장으로 살며 혁명하는것이다.

이것은 전제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대가정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의 래일을 향해 정열과 락관에 넘쳐 즐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상념속에 깊이 잠겨있던 나는 뺄스안에 높이 울리는 말소리에 머리를 번쩍 들었다.

맨 앞자리에 앉았던 정동무가 차내용마이크를 손에 들고 《지금 뺄스는 만경대고개길을 넘어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집,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대를 이어 싸워오신 유서깊은 만경대의 고향집, 만경대고향집이 가까와옵니다.》라고 격조높이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그 순간 차창을 내다보며 탄성을 올렸다. 만경봉이 보였다. 푸른 소나무, 들메나무, 백양나무... 고향땅의 산천초목이 설레이고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뺄스에서 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가정을 영원히 따라 배우려는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해일처럼 넘치는 혁명의 요람-만경대!

만경대는 말그대로 환희의 바다, 충성의 꽃바다였다.

그 충성의 꽃바다속에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하나의 깨끗한 물방울이 되고저 나는 승엄한 마음으로 삼가 웃기를 여미고 고향집을 향해 경건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우고 또 외웠다.

아, 고향땅에 도도히 굽이치는

만민의 흐름이어

천만년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로

인류의 위대한 태양을 노래하며

세월의 한끝까지 영원히 파도치라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더욱 빛나게 창조하자

리동수

혁명의 필봉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시대의 혁명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혁명작품에 높이 우러러모시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고 자연과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가는 숭고한 역사적위업이다.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인 이 숭고한 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혁명작품을 최상의 사상에술적높이에서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우리 문학에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와 신념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 인민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이 한결같은 심정은 실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자각성과 높은 의식성에 기초하고있으며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바쳐가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숙망을

반영하여 최근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안에 있는 장편소설들과 함께 수많은 우수한 단편소설들이 최근 우리 독자들속에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읽히우고있다.

단편소설들인 《평양은 노래한다》(고병삼, 《조선문학》 1976, 3), 《밤나무숲이 설레일 때》(리종렬, 《조선문학》 1976, 10)를 비롯하여 얼마전에 나온 《조선의 행복》(박유학, 《조선문학》 1977,10), 《사랑의 행군길》(진재환, 《조선문학》 1977,12) 등이 그 실례로 된다.

이 작품들에서는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흥분시키는 뜻깊은 사연과 인상깊은 사건을 줄거리로 하고 다양한 화폭속에서 깊이있는 종자를 밝혀내고있다.

인민의 의지와 신념에 확고히 기초하시여 엄혹한 전쟁의 시련을 승리로 뚫고나아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단편소설 《평양은 노래한다》는 사색적이면서도 박력있는 묘사와 정론적필치로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가렬처절한 전선시찰의 수천리 로정을 마치고 고향의 화광이 번뜩이는 수도 평양으로 들어서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허물어진 담벽사이 작은집에서 울려나오는 한가닥 선율을 찾으시였으며 그후에는 노래의 주인공인 작곡가를 몸소 부르시여 그에게 크나큰 열정과 힘을 주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불타는 고지에서 포탄깎지로 만든 전사들의 화선악기를 보시고 포화속에서도 굶어들줄 모르는 역센 투지와 랑만에 격동되시며 멸적의 그 노래로 원썩놈들에게 호된 타격을 안길 조선인민군 군무자대에술축전을 평양에서 조직할것을 선포하시는데이다.

작품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력한 신형무기도, 그 어떤 군사기술적우세도 전사들이 간직한 의지의 힘과 정치도덕적우월성을 초월할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신하시고 전사대중의 신념에 확고히 의거하시여 승리의 전망을 락관적으로 믿으시는 숭엄한 모습과 그이의 세련된 령도예술을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깊이와 뜨거움을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품으로 싸우는 전사들을 안아주시었으며 고통이 멎어가는 전사의 심장에 활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시었다.

단편소설 《밤나무숲이 설레일 때》는 적의 화점을 피뿔는 가슴으로 막아련대의 공격을 보장한 박성호전사를 뜨거운 한품에 안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동깊은 화폭속에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실화적인 내용전달에 치우칠수 있는 이야기를 감동적인 세부와 인상적인 생동한 화폭으로 전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야전병원침대에 누운 성호의 손에 쥐여진 밤알의 세부와 관련된 뜻깊은 사연은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형상을 깊이있게 펼쳐보여주는 색깔있는 이야기다.

오래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전사의 입에서 소생을 예고하며 새어나온 첫말- 그것은 부모를 찾는 아들의 단순한 웨침이나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격전의 고지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육친의 정이 깃든 밤알을 찾는 절절한 흠모의 웨침이었으며 모진 육체적고통이 생명을 휘어잡고 괴롭히는 순간에도 손에서 놓지 않은것, 그것은 바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사랑의 밤알이었다.

그가 온몸에 흉탄을 받고도 다시 소생할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약의 효능이라고만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사의 가슴속깊이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부어준 힘이며 그 사랑에 목매여 받아안은 전사의 불타는 충성심과 흠모심에 뿌리박은 의지의 힘이였다. 작품은 바로 이 깊은 사상을 핵으로 심고 감동적인 세부를 파고들어가면서 심화시키고있다.

최고사령부의 밤나무숲이 가을바람에 설레일 때 우수수 떨어지는 밤송이를 주어드시며 고향의 가을을 그럴 고지의 전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작품에서는 자애에 넘친 그 은정이 그대로 시화되어있다. 그리고 격전이 지나간 불타는 고지우에서 사랑의 밤알을 받아안던 전사들의 감격, 그 밤알을 언제나 놓지 않고 뜨겁게 간직한 전사의 순결한 량심과 충성심을 감동깊은 세부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한 전사의 생명과 안정을 위해 군단의 대공화력까지 동원시켜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배려속에서 박성호전사는 기적같이 살아나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길수 있었으며 대

지를 활보하며 원썩 미제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탄을 안길수 있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로운 품은 한없이 넓고 깊어 이 땅 모든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조선의 행복》은 준엄한 항일혁명성전에서 고귀한 최후를 마친 혁명전사의 딸을 찾지 못해 수십년을 심려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끝내 뜨거운 사랑의 품으로 찾아주시는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혁명가들의 대오에서 강호중대장과 그의 안해인 지하공작원 오윤심을 다시는 볼수 없게 된 쓰라린 심중의 괴로움을 느끼시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시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남기고 간 어린 딸 혜경이를 기어이 찾아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의리를 다하시려고 현지지도의 머나먼 로정을 오가시는 차창가에서 잊지 못할 혜경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시며 그 행처를 알길 없는 안타까움에 심려를 금치 못하시였고 때로는 방금 그를 만날것만 같은 기쁨으로 흥분되시기도 하시는데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옥천리 소 방목공 남혜경이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고 이름도 나이도 신통히 같은 그 처녀가 어쩌면 자신께서 찾으시는 유자녀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며 현지지도과정에 친히 그를 만나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것이다.

그러나 옥천리 혜경이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찾으시는 강호의 딸 혜경이가 아니었다. 더없이 허전해지시는 마음으로 그이께서는 석포장물우에 실려간 혜경이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눈물겨운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신다.

그이께서는 강호의 딸을 찾지 못했지만 일 잘하는 훌륭한 처녀를 만나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혜경이같이 착하고 일 잘하는 동무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먼길도 오겠다고 뜨거운 믿음의 말쑥을 주신다.

작품에서는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강호중대장과 윤심에 대한 인상깊은 회고속에서 형상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과 숭고한 공산주의적의리, 풍부한 인간성과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옥천리에서 돌아오신후 교육일군열성자회의를 지도하고계실 때 찾아온 한 로인을 통하여 연단에서 토론을 한 모범교원 미영이가 그이께서 그렇게 찾고계시던 강호의 딸이였다는

놀라운 사실에 접하게 되신다. 그리고 로인이 그 옛날 다름아닌 석포강가에서 거의 물에 잠긴 배안에서 우는 혁명전사의 딸을 구원하여 고이 키워준 그 로인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신다.

이렇듯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수화기를 드시여 옥천리를 찾으시는것이다. 그 이께서는 투사의 딸인 혜경이와 함께 것처럼 키워야 할 이 나라의 귀한 딸이 조국의 변방 방목지에 있다고 늘 생각하고계셨기때문이다.

혈전의 나날에 함께 싸운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의리를 지니시고 베풀어야 할 온갖 사랑과 은혜를 다 베푸시며 한 유자녀만이 아닌 모든 유자녀들과 온 나라의 인민들을 크나큰 한품에 안으시여 그토록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행복,

참으로 이것은 우리 시대,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며 온 조선의 행복이었다.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는 이렇게 심어지고있다.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형상을 창조하면서 우리 문학은 항일의 피어린 혈전의 나날에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과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인민적사업작풍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행군길》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의 고귀한 모범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찌는듯한 무더운 여름날 허기와 갈증을 이겨가며 어려운 행군을 계속하던 대오앞에 시원한 단맛을 풍기는 참외밭이 나서게 된 정황을 설정하고 유격대원들과 지휘관 그리고 원두막주인의 생각과 행동을 각이한 시점에서 묘사하면서 너그럽고도 자애로우시며 그토록 도량이 넓으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유격대의 규률을 잘 알면서도 어린 대원들은 벌써 환성을 지르며 참외를 먹고싶은 생각을 감추지 못한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있는 지휘관은 인민의 재산에 손상이 미칠것을 우려하여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보고드린 다음 대오를 멈추고 정치사업을 선행한다. 그런가하면 참외밭로인은 갑자기 보지 못하던 큰 부대가 나타나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참외밭을 보고 떨어지지 않는 밭길을 옮겨야 할 대원들의 서운한 심정과 몇푼의 돈을 위해 엄청난 참외밭을 다루며 고생속에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살림을 헤아려보시고 참외밭을 통채로 사도록 하시는데있다.

런대장과 정치위원은 대원들에게 규률을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지 친부모나 만형의 심정으로 그들이 규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잘 돌봐주지 못했던 자책감에 잠기면서 어버이장군님의 아량있고 웅심깊은 품모에 못내 감격을 금치못한다.

대원들은 지휘관의 강한 요구성과 정치사업방향에 따라 참외밭에 손을 대지 않을것이며 행군목표를 향해 말없이 행군을 계속할것이다.

그러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엄격한 규률성을 요구하시면서 먼저 대원들의 그 심중을 가늠하시였다.

규률은 강한 요구성이나 원칙 하나만으로 유지되는것은 아니다. 뜨거운 사랑에 안받침되고 고상한 자각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규률이야말로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도 지휘관과 대원들사이의 진정한 신임과 사랑에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언제나 대원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희망과 요구를 제때에 통찰하시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어주시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시여 통이 크고 도량이 넓으시게 모든 일을 처리해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은 화폭으로 펼치고있다.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 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을 아담한 이야기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최근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들의 성과는 이밖에도 적지 않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형상한 혁명적작품창작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다그치며 그 사상에술적품위를 결정적으로 높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위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바쳐 나가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교양해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문학에 높이 모시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밀접히 결부시켜 심오하게 형상하는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그것을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결부시켜 감명깊게 형상해야 한다.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주체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고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높이 솟아오른것도,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허덕이던 우리 인민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도 오로지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력, 인민적령도자의 고매한 품모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이 끝없는 민족적자부심과 영예,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가며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 보여주려면 마땅히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위대한 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해나가는 나날에 현명한 령도의 모범, 천리혜안의 빛나는 예지로 앞을 멀리 내다보시는 과학적예견성, 비범한 통찰력과 명철한 판단력, 과감한 결단성과 혁명적원칙성,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시는 완강한 의지, 한가지 일을 포치하시고 편이여 다른 일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혁명적전개력과 대담성 등 그이의 령도예술을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힘을 믿으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시여 어려운 난국을 풀어나가시는 고귀한 령도방법, 소박성과 겸손성,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에 대한 깊은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려야 할것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형상하면서도 감동적인 사실과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본질과 정치적의의를 밝혀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도 인민대중을 령사의 주인으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흘러나오는것이므로 그와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그 본질이 옹계 밝혀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영상을 높이 모시는 작품창작에서는 또한 령사적사실, 사건의 본질과 그 정치적의의를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힘을 기울

이며 심오한 철학적인 종자를 탐구해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에서 령사적사실이나 실화적인 사건에 의거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똑똑한 철학적인 종자가 박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작품의 품위와 가치를 제대로 살릴수 없다. 똑똑한 종자는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깊은 학습과 탐구를 거듭하여나가는 과정에서만 골라질수 있다.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하고 탐구한 흔적이 령력하지 못한 작품에서는 거기에 세워진 문제성도, 사상의 핵으로 심어진 종자도 찾아보기어렵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형상하는데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세부라도 신중하게 대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에 설정되는 사건들은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놓는 빛나는 사변들이며 령사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므로 심중하고 책임성있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장편소설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찬란한 혁명로정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령사적사건들이 취급되고있으며 단편들인 경우에도 한시기 또는 그 단면에 있는 본질적인 사건들이 묘사되게 된다.

따라서 작품에 설정되는 사건들이 우선 령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조금이라도 손색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며 그 사건의 배경과 본질 및 령사적의의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뜻이 깊게 형상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작품에 그려지는 하나의 세부라도 종자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으로 그려야 하며 령사적사실과 형상을 부각시키는 전형적이고도 표현적인 풍부한 세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온 세상에 널리 선전하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광스럽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빛나는 영상을 깊이있게 형상한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보람있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만풍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에 대하여-

럼희래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는 최근 년간에 우리 시문학이 거둔 또하나의 빛나는 성과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관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심한 가물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의 보다 높은 발전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몸소 지하수 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끄시여 이 땅우에 또다시 만풍년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귀한 은정을 칭송하는것을 사상주제적과업으로 하고있다.

시는 머리시와 두개의 장, 맺음시로 구성되어있다.

머리시는 온 벌과 들에 대풍이 들어 기쁨과 행복으로 설레이는 풍요한 조선의 가을의 자랑찬 정경을 생동하고 정서적인 화폭으로 활짝 펼쳐보이면서 력사에 없는 만풍년을 몸소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노래하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있다.

제 1 장에서는 빛나는 예지와 강철의 의지로 지구를 휩쓰는 한랭전선을 맞받아 지하수혁명방침을 선포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농법을 훌륭히 꽃피우도록 온 한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면서 우리 인민을 사랑어린 손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주고있다.

제 2 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쉬여주시기를 온 겨레가 것처럼 간절히 바라던 민족최대의 4월의 명절날에도 나라의 농사를 심려하시여 포전길우에 서계시는 그이의 숭고한 영상과 이 땅의 높은 산, 깊은 골짜기들을 찾으시고 지하수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정, 온 한해 들에 계시면서 곡식을 가꾸시여 이 땅에 대풍을 안아오시고도 오히려 그 공로와 기쁨을 우리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끝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맺음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해마다 만풍년의 기쁨과 행복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감격, 조선의 만풍년을 영원한것으로 다져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며 길이길이 살리라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고있다.

시는 1 장 앞부분에서 지하수혁명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지구를 말리우며
이 땅에 오는
무서운 대열파를
이 봄에 벌써 헤아리신 수령님

땅을 말리우며
강을 말리우며
휘몰아오는 사나운 열파를
순간에 멈춰세우시는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당중앙전원회의 높은 연단우에서
지하수혁명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

천줄기 만줄기
땅밑에 흐르는 물줄기
천줄기 만줄기
땅우에 출렁이는 관개수를
밀려오는 왕가물에 맞세우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수령님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착안하시고 무르익히신 지하수혁명에 대한 위대한 구상을 당의 방침으로 선포하시고 만풍년의 터전을 굳건히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님.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하수혁명방침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왕가물을 이겨내고 해마다 만풍을 이룩하는 주체농업의 터전을 튼튼히 닦는 현명한 자연개조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지하수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왕가물의

혹심한 피해를 이겨내고 류레없는 대풍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기에 장시 1 장 앞부분에서는 땅과 강을 말리우며 이 땅에 뿔쓸어오는 대열과를 이른 봄에 벌써 헤아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지하수혁명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풍모를 숭엄한 감정으로 가슴뜨겁게 노래하고 있는것이다.

우의 시련들은 지구를 말리우며 닥쳐오는 사나운 대열과, 무서운 왕가물을 헤아려보시고 주체농업의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독창적인 지하수혁명방침을 선포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위대성을 얼마나 감동적인 시형상으로 훌륭히 재현하고있는것인가.

장시는 지하수혁명방침을 선포하신데 뒤이어 몸소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끄시고 만풍년을 마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시는 제 1 장 첫머리에서 오로지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 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고 어깨우에 찬서리와 흰눈을 받으시며 이 땅의 모든 들판과 언덕우에 거룩한 자옥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새해 정초부터 농촌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새 움이 돋는 봄날 물소리 높은 청천강기슭의 아름다운 농촌전경의 생동하고 정서적인 시적화폭속에 모시여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다가서고 물러서는 푸른 산과 푸른 골짜기, 반기며 마주오는 산기슭 하얀 문화주택들과 봄아지랑이 피는 논과 밭들이 안겨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승용차의 차창을 두고 하는 주정토로는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봄이면 이 땅의 봄이 제일먼저 비끼고 가을이면 이 땅의 가을이 제일먼저 어리는 그 차창》이란 깊이 탐구되고 발견된 시구들, 온 한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이 나라 들판과 언덕, 마을과 골짜기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주시고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온 강산에 넘쳐나는 만풍년의 기쁨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에 대한 심오한 시적형상으로 하여 이 대목은 빛나며 시적감동은 그렇듯 큰것이다.

장시는 이어 농업전선에 만단의 무장을 갖추어주시고 주체공업의 지원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 포전과 포전을 찾으시여 지하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기울으신 크나큰 사랑과 로고를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청천강기슭의 이름없는 밭머리에 달리던 차를 멈추시고 우물앞으로 다가가시여 방금 쌓아올린 흙무

지우에 깊은 자옥을 내시고 농민들의 흙문은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보부리가 전원회의결정을 제일 먼저 받들었다고 높은 치하를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그리도 기쁘시고 만족하시여 흙드레박이 걸린 삼발을 잡으시고 지심깊이에서 맑은물이 솟구치는 우물을 내려다보시며 농민들과 함께 흙드레박을 내리시여 손수 물을 떠보시고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이 땅의 한포기 곡식, 이 땅의 마지막 밭이랑까지 자연의 그 어떤 횡포도 감히 다칠수 없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듯 농민들과 일군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결심이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주체의 요구대로 강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휘어잡으시며 한랭전선을 물리치시는 위대한 수령님,

시는 광란하는 한랭의 태질속에서 날마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숨져가는 때에 찬바람과 왕가물을 이기고 해마다 오는 조선의 만풍년은 이 땅과 우리 인민들에게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사랑의 열매라고 크나큰 긍지에 넘쳐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장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눈내린 밭에서 한 제대군인분조장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는 감격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총을 쥐었던 제대군인이
이제 다루어야 할
농사의 그 많은 일들을 헤아리시는듯
믿음에 찬 안광으로 굽어보시던 수령님

이랑우에 수북이 덮인 흰눈을
한손으로 밀어놓으시고
또다시 밀어놓으시며
손수 언땅에 금을 그으시여라
강냉이영양단지
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며

가슴속 솟구치는
감격의 눈물이런가
땅을 짚어가시며
포기농사법을 배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손우에는
하얀 눈이 녹아
물방울이 맺히고...
수령님을 우러르는 분조장의 눈가엔
뜨거운 이슬이 맺히고...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이 깃든 자애로운 손길로 농촌혁명가들을 키우시여 이

나라 대지우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일반화한 감동적인 시형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농촌혁명가를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 안아키우시는 크나큰 사랑과 고귀한 은정을 어버이수령님의 손우에 눈이 녹아 땀한 물방울과 수령님을 목매이며 우러르는 분조장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의 대조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생동하고도 감격적인 시적화폭은 얼마나 뜨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그처럼 따사롭고 자애로운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목매이게 하는것인가!

이 대목은 장지에서 주체사상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시의 감정과 정서적흐름이 가장 고조된곳의 하나이다.

시는 다음으로 이랑우에 수북이 덮인 흰눈을 밀어놓으시고 언땅에 금을 그으시며 제대군인분조장에게 강녕이영양단지 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에 깃든 뜨거운 은정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에 받들리어 우리 농민들이 기쁨과 행복을 꽃피워온 지난 력사적로정에 깃든 크나큰 사랑을 노래한다. 백두밀림의 준엄한 그날 나라 없는 인민들의 아픔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근거지 밭이랑에 첫 씨앗을 묻어주시던 손길, 해방후 처음 맞는 봄, 이 나라 농민들의 천년소원이었던 땅을 주시고 분여받은 밭머리에 큰 패말을 박아주시던 그 손길, 협동화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던 전후의 나날 조합원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시던 그 손길,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 땅에 농촌대제를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고 프락프르, 기계화의 대군단을 보내주신 그 손길,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그 손길을 시는 얼마나 후더운 가슴으로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것인가. 이와 같이 력사적사실에 대한 시적개괄은 시의 정서를 더욱 웅심깊게 하여주고있다.

시는 이어 주체농법을 꽃피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맑은 하늘을 이고 탐스럽게 여물어가는 이 땅의 오곡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령도의 손길아래 억년가물을 모르는 깊이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바다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어 이 땅우에 설레이고 또 설레이는것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는 제 2 장 첫머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한평생을 하루의 휴식도 하심이 없이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최대의 명절 4 월 15 일에도 농사를 심려하시어 어깨우에 이슬비를 맞으시며 청천강기슭 다락밭에 서계시는 숭엄한 모습을 시는 정중히 모시고있다.

온 강산이 꽃으로 피어
다함없는 축원을 안고
간절한 마음을 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4 월의 봄명절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이 나라의 끝없는 발걸음들이
만수대 푸른 언덕으로 굽이치는데
명절의 그날에도 수령님께서
어깨우에 이슬비를 맞으시며
청천강기슭
이름없는 다락밭에 서계시였어라
.....

조용히 옮기시는 발자욱
자욱마다 새기시는 깊은 생각
옮기시는 그이의 자욱자욱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던 마을의 한 로인은
목매이는 소리로 말씀드리여라
《수령님, 오늘 농장원들은 다 쉽니다.》

소박한 로인의 그 진정을
뜨겁게 안아주시며
옷섶에 맺히는 이슬을 털어주시는 수령님
《로인님, 땅이 합토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이 숭고하고 감동어린 시적화폭은 시의 사상주체적내용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가장 빛나는 형상이다. 이날만은 쉬여주실것을 바라는 진정 어린 로인의 말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뜨겁게 들으시며 땅이 합토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는가 하고 하시는 말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뜨거우신것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장시는 농사가 아무리 천하지대본이라 해도 이날에야 어떻게 수령님께서 들판에 서계셔야 하고 쌀이 아무리 귀중한들 수령님께서 옷을 적시시며 찬비내리는 들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베푸신 은혜를 받기만 하고 주시는 행복을 받기만하고 수령님께서 쉬셔야 할 이날마저 포전에 계시게 한 우리이건만 오시는 때마다 이러히도 뜨거이 손을 잡아주시니까라고 하면서 하늘에 다 담을수 없고 땅에 다 담을수 없는 크나큰 그 사랑, 그 영광, 그 은정을 목매여 노래하고있다.

시는 다음 부분에서 찬바람 불고 찡찡 얼음이 터지는 정이월부터 벼바다, 강녕이바다가 온 나라 벌과 들에 설레이는 가을까지 온 한해 현지지도의 길우에 오르시어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찾으시고 우물의 개수와 깊이를 헤아

리시며 아무리 왕가물이 밀려와도 천년 가물을 모르는 만년대제로 만들라고 가르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감동적인 시형상으로 모시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목매여 지는 해를, 지는 달을 아쉬워하면서 목수건을 태워 해불로 쳐들고 우물을 파고 또 파며 그이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포전과 포전마다를 《만풍년포전》으로 꽃피운 농장원들의 충성의 깨끗한 마음을 안고 설레이는 대풍든 벌을 자랑차게 노래하고있다.

장시는 농촌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온 벌과 들에 황금나락으로 물결쳐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의 벼바다, 강녕이바다를 기쁘신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만풍년을 이룩한 치하를 전체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과 지극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향기로운 가을바람
풍년의 노래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벼바다, 강녕이바다를 바라보시며
차창가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수령님

《얼마나 좋소.
들은 벼바다요
언덕은 강녕이바다요》
《풍년이요
대풍이요.》

들바람을 헤치시며
물결치는 금나락을 헤치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하시여
벌에 울리시는 수령님의 말씀

《올해 만풍년을 이룩한
전체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내가 감사를 보낸다고 전해주시오.》

땅이 꺼지도록 풍년이 든 가을을 인민의 기쁨, 인민의 행복으로 받아안으시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눈바람과 찬서리를 맞으시며 온 한해 들에 계시고 온 한해 곡식을 가꾸시여 이 땅우에 만풍년을 안아오셨건만 오히려 그 성과를 우리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자애로 넘치는 치하를 주시는것이다.

이 시형상이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크나큰 보람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영상을 모신 장시에서의 또하나의 빛나는 화폭이다.

이 시련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것처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며 주무심과 휴식을 잊으시고 자신께서 몸소 마련하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성과들을 오히려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목매이게 하는것이며 인민의 자애로우신 어버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이 부풀도록 느끼게 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어버이수령님께 대를 두고 영원히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끓어넘치게 한다.

장시는 맺음시부분에서 해마다 오는 조선의 만풍년든 가을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며 그로 하여 이 락원의 강산에 기쁨과 행복이 설레인다는것을 자랑차고 환희로운 정서로 노래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의 만풍년은 영원히 우리의것이며 한평생 들길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이 땅은 만풍년으로 설레이리라는 굳은 확신과 세세년년 대풍의 기쁨속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길이길이 조국의 룡성번영을 이룩해나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랑만적인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이 장시가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송되고있는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되는것이다.

이처럼 장시와 사상에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만풍년을 마련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시적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고귀한 은덕을 감동깊게 노래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와 함께 생동한 시적화폭의 묘사와 주정토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시의 전편을 충성의 열정으로 흘러넘치게 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 장시 전편을 즐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사상정서적흐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품모에 대한 칭송이며 만풍년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감격과 감사,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국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충성의 열정이다.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녕이바다여》는 시에 풍만하게 넘쳐흐르는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높은 시적감동을 자아내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성과작이다.

장시의 첫머리에 넘쳐흐르는것은 풍년든 기쁨에 설레이는 감격의 서정이다.

시는 첫머리에서 설레이는 벌, 물결치는 들이 끝없이 우리 부르는 노래도 끝없고 우리의 기쁨도 끝없는것이라고 환희에 찬 주정을 토로하면서 벌을 따라 백리, 언덕을 따라 또 백리 가도가도 끝없고 걸어도걸어도 끝없는 강녕이바다, 동서 어느쪽을 바라보아도 설레이고 넘치는 이삭의 바다, 이삭의 물결이라고 간결하고 정서적인 시어로 만풍년든 농촌의 흐뭇한 정경을 펼쳐보이면서 서정적주인공이

자랑에 넘치고 행복에 겨워 기쁨의 감정을 활짝 뽐여내고있는것이다.

기쁨과 충성의 열정이 융합된 풍만한 서정은 대풍이 든 농촌의 생동하고 정서적인 시적화폭,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주정도로와 결합되어 작품에 더욱 즐기차고 풍만하게 흘러넘치며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장시의 첫머리에서 만풍년든 조선의 가을에 대한 환희에 찬 서정적묘사, 제 1 장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청천강기슭의 새움이 돌고 물소리 높은 봄의 정경, 지하수혁명의 앞장에 선 보부리농민들을 찾으시고 기쁘신 마음으로 치하도 하시고 고무도 하시는 장면, 안주땅에서 현지도의 하루해가 저물던 날 저녁 제대군인 분조장을 몸가까이에 부르시여 손수 한손으로 흰눈을 밀어제끼시고 언땅에 금을 그으시며 강냉이영양단지 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는 장면, 제 2 장에서 인민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쉬여주실것을 것처럼 바라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사를 심려하시여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고 이름 없는 다락밭에 서시여 한 로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 청천강기슭의 산 높고 골 깊은 고장에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판 우물의 개수와 깊이를 헤아려보시며 현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대목,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피는 이 강산에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목이 메어목수건을 뒤통로 붙태워가며 우물의 돌쌓기를 마감짓는 감격적인 모습에 대한 인상 깊은 묘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풍년든 들과 벌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만족하신 마음으로 황금나락으로 설레이고 물결치는 농촌의 가을을 돌아보시는 제 2 장 마감장면 등의 생동하고 정서적인 화폭들에서 시의 서정이 얼마나 뜨겁게 굽이치고있는것인가.

감동적인 계기들에서 주어진 강렬한 주정도로도 또한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강조하고 부각하면서 장시의 서정을 강화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장시로 하여금 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으로 차넘치게 하였으며 기쁨의 정서와 충성의 열정으로 뚫어넘치는 사상정서적감흥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시에서 짙은 서정의 개방과 서정적묘사의 능숙한 결합은 형상의 깊이를 보장하고 사상정서적감동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장시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탐구되고 세련된 시어와 언어형상수법의 능란한 구사로써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이 시의 높은 사상정서적감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열정을 생동하고 정서적이며 운물적인 언어로 표현한데서 오는 것이다.

장시는 시적언어형상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른 자랑스러운 성과작이다. 높은 언어형상으로 하여 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리내어 읊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시는 발견이 있고 사색이 깃든 시구들, 능란히게 켜여진 시적언어형상수법에 의하여 사람들을 작품의 심오하고 숭고한 체험세계로 이끌어간다.

어느 런, 어느 시구절을 특별히 레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모든 시어들과 시구, 시련들이 탐구되고 세련되어있고 모든 시구들과 시련들에 운물이 맥박치고 시적정서와 흥취가 넘쳐나게 굽이쳐흐른다.

시문장표현은 간결하고 생동하며 형상적인 언어로 일관되고 아름답고 정서적인 시어로 정화되었으며 선율을 탄 음악적인 말로 세련되어있다.

시의 운물은 기쁨과 행복으로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의 황금물결처럼 물동적이고 정서적이며 류창한 노래의 흐름과도 같이 순탄하며 감격과 고마움, 충성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여 격조높다.

이 시의 언어형상의 성과는 형상적인 시어의 탐구, 대조와 대구, 반복과 강조, 상징, 함축과 생략, 어순의 바꿈, 수사학적질문 등 시의 언어형상수법을 장시의 사상정서적내용에 맞게 재치있고 능란하게 씌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그리하여 생동하고 선명한 시적묘사로써 감동적인 화폭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었으며 작품에 기쁨과 행복의 서정, 충성의 열정이 풍만하게 차넘치게 하고 노래부르고싶도록 물동적이며 음악적인 운물,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메아리쳐가는 시의 여운으로 하여 사람들을 숭고한 시세계에로 이끌어들이는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의 시형상을 빛나게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장시는 그가 담은 숭고하고도 자랑스런 사상주제적내용, 차고넘치는 서정, 정서적이며 음악적인 시적언어표현으로 하여 사상예술성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장시의 형식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하는 빛나는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다.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오늘날뿐만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것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 온 누리에 영원토록 메아리쳐갈것이다.

미더운 세대

김길환

왕-

끝없이 펼쳐진 《기계바다》 위에 교대시간을 알리는 맑은 고동소리가 울려갔다.

살결이 보동보동한 손목을 들고 콩알만한 시계를 살짝 들여다본 《청년호》 선반공 정애는 기대스위치를 끄고 마지막 나사못을 꺾던 바이트를 풀어내렸다.

그는 노란 술들이 달린 정결한 공구함에서 기대술을 꺼내들었다. 조그마하고 오동통한 손이 선반우를 날과람있게 돌아가며 쇠팅을 털어냈다. 곤색 작업복을 가튼히 입은 정애의 몸매 날씬한 모습은 흥겨운 춤을 추는듯 가볍고 툄동적이었다. 오목한 코등에 맺힌 송골송골한 땀방울이 채광창으로 비쳐든 저녁해빛에 구슬처럼 반짝거렸다.

대형시추기조립에 쓰일 나사못을 오늘도 두배남짓이 꺾아낸 처녀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더우기 점심시간에 작업반장을 통하여 알려진 뜻밖의 소식은 지금도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저녁 8시부터 대형시추기제작을 마감짓기 위한 돌격대를 묶는 모임이 공장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었던것이다.

정애의 작은 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처녀선반공의 노래》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새 희망 끝없이 나래쳐가는
노을이 불타는 공장하늘가...

《정애, 넌 어쩔 맘이 그리두 편안하니? 노래까지 다 부르구.》

제품대를 사이에 둔 옆기대운전공 복희가 기름걸레로 베트를 바빠 닦으며 건네는 말이였다.

복희란 정애와 함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대형기계작장에 배치받은 처녀였다.

《애두, 이제 우리모두 영예로운 돌격대원이 될걸 생각해보라마. 난 막 하늘로 날것만 갈아.》

《우리 같은 애들두 돌격대에 받아줄가?》

《우린 뭐 선반공이 아니라니?》

《그렇지만... 너나 나나 기델 잡은지 여섯달두 못되는 헛병아리들이 안야. 난 그 소식을 들은 담부터 속이 두근거리구 불안해서 일손이 안걸렸다 애.》

《참, 오늘은 네가 별스러워졌구나. 우리 짝는 나

사못이 얼마나 필요하구 중요한거니, 저 어마어마하게 큰 시추기들이 나사못들만 없어보려마!》

《... ... 》

《복희야, 그런 코납작한 소린 똥다가 있잖니, 너그 ... 수리공동무한테나 해라, 호호...》

오동통한 손등으로 입을 가린 정애는 복희쪽에 대고 고운 눈을 빨며 간드러지게 웃었다. 정애도 공장 참모회의에 갔던 직장장인 아버지가 긴장된 얼굴로 돌아와서 작업반장들에게로 드달려다닐 때에는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였었다. 그랬으나 지금 그런 속내와는 달리 복희에게 제법 엉뚱한 소리를 할수 있는것이 못내 즐거워났던것이다.

《호호... 넌 정말 썸핑이 좋다애.》

복희도 동무의 배심든든한 말에 신심이 생겼던지 한손으로 입을 싸쥐며 따라 웃었다.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꺾고있는 나사못들이 정말로 대형시추기에 없어서는 안될 부속품이라는 확신이 새삼스레 드는 것이였다.

기름통을 들고 기대구석과 짬들에 기름을 주기 시작한 정애의 해맑은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잔물결쳤다. 그의 입에서는 끊어졌던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다.

나는야 알뜰한 처녀선반공
충성의 한마음 펼쳐간대요
저 하늘 끝까지...

어느사이 기대청소를 끝낸 복희가 동무들과 함께 가르르 웃어대며 현장나들문가로 달려가고있었다.

《정애, 이젠 그만하구 빨리 와- 자리가 없음 어찌니?》

《응, 인차 따라갈게-》

제 마음에 흡족하도록 기대청소를 해놓지 못한 정애는 조바심을 애써 누르며 그냥 청소를 다그쳐댔다.

그는 제품대우에 복희랑 함께 무뎅히 꺾아놓은 나사못들을 (오랜 기능공언니들처럼 이 두 처녀도 제품대 하나를 함께 쓰고있는 터였다.) 땀시나게 진렬해놓고 윤기가 알른거리도록 기대를 닦았다. 그런후에도 자기 기대와 함께 복희기대주위까지 한바퀴 돌아보고서야 자리를 떴다.

탈의실에 들어서니 동무들은 벌써 다 가버리고 없었다. 세수를 마친 그는 탈의함에서 연분홍원피스를 꺼내 갈아입고 체경앞에 섰다. 무릇 사회에 첫 걸음을 대딛기 시작한 처녀들이 옷맵시에 적지않은 신경을 쓰듯이 정애 역시 몸단장에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편이었다. 그는 그것이 한갓 남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부질없는 치장이 아니라 모든 일을 미리메터로 다루는 선반공의 정교하고도 빈틈없는 마음의 반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향이 없는 지금 몸에 걸치기만해도 보기 좋게 꼭맞는 꽃무늬원피스를 띠며 깃이며 뒤주름까지 깐깐히 살펴보고서야 문밖으로 나섰다.

그가 하늘색들가방을 손목에 걸고 청사복도를 총총히 걸어나오는데 뒤에서 작업반담당 검사원아주머니가 불려세웠다

《원, 체네들이 오늘은 정신들이 없구나, 애 정애, 오늘 네가 깎은 나사못에 허용공차를 벗어난것이 없었니?》

《예?!》

아주머니의 뜻밖의 말에 어지간히 놀란 정애는 두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희들 제품대에 공차를 약간 벗어난 나사못이 하나 있더라. 부속품이 너무 긴장해서 조립장에 넘기긴 했는데 맘이 놓이지 않아.》

《전 그런것이 없었는데요. ...》

얼결에 부정한 정애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오늘 깎은 나사못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았다. 맘속에 짙어있는것은 하나도 없었다.

《복회더러 물어봐두 모르겠다지... 하여간 이담부터 주의해라.》

《네.》

검사원아주머니는 시간이 바쁜듯 검척 툴 손을 휘저으며 검사원실로 들어가버렸다.

정애는 천천히 돌아섰다. 암만 생각해보아도 자기는 불합격품을 낸것이 있는것 같지 않은데 이상했다.

선반공들속에서는 공동제품대를 쓰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겨왔다. 그렇게 하고있는 선반공들은 둘다 기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는것을 의미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믿고있는 높은 공산주의적품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했던것이다.

그런데 복회와 함께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순조롭게 써오던 제품대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긴것은 여간 충격이 큰것이 아니었다.

(혹시 복회가 깎은데서 나온것이 아닐까?... 아닐거야. 검사원아주머니 그 애게두 물어봤다지 않아.

그럼 내가 덤벼치면서 그런것을 깎구두 모르고있는것이 아닐까?... 그럴수가 없어. 난 정확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진 정애는 함치르한 중발머리를 탈썩거리며 정문을 향해 종종걸음을 놓았다.

로동자문화회관에는 벌써 사람들이 바다를 이루었다. 흥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요속에 잠겨든 정애는 어느덧 검사원아주머니의 말을 가뭇없이 잊어버렸다.

복도에 들어선 그는 비로도문장을 가만히 들고 관람석을 훑어보았다. 앞자리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빈틈없이 앉아있었다. 뒤구석으로 간 정애는 앞에 앉은 작업반처녀들을 띠여보자 눈웃음을 보내고 조용히 원피스자락을 쓸어내리며 자리에 앉았다.

야릇한 기계기름냄새가 떠도는 관람석은 어느때없이 떠들썩했다. 활기에 넘친 론쟁소리와 웃음소리, 머리에 기름을 번들거리게 바른 청년들의 괜한 승벽다툼, 좌석을 정돈하는 관리원의 목소리... 사람들은 끝수 없는 흥분에 들떠있었다.

회의시작을 알리는 파르릉소리가 울렸다.

지배인과 현철직장장, 그뒤로 근로단체일군들과 혁신자들이 주르르 나와 주석단에 앉았다.

술렁거리던 사람들이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숨엄한 분위기가 떠도는 장내에서는 간간이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전체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일어나 장중한 관현악반주에 맞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정중히 부르고 앉자 지배인이 연탁으로 나섰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장내를 둘러본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 우리는 동무들도 아다싶이 대형시추기를 마감할 긴박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무들!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두 굴할줄 몰랐구 당앞에 맹세한 날자와 시간을 어겨본적이 단 한번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린 천만번 쓰러지는 한이 있어두 닷새후에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여이 충성의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마이크로 울리는 그의 석심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나 첫마디부터 사람들의 가슴을 그러잡았다.

《이 엄숙한 시각, 공장 참모부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돌격대를 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돌격대는 우리 공장의 침단에 선 영광스러운 전위대입니다.》

이제 선발되는 동무들은 매우 간고한 시련을 이

겨내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수많은 곡절과 애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동무들만큼 영광스럽게 두 당이 신임하는 가장 빛나는 위치에 서게 될 사람은 없을것이며 그만큼 보람차구 행복한 사람들은 없을것입니다.

공장참모부는 이 무거운 과업을 대형기계직장 현철직장장동무에게 책임지웠습니다.》

박수소리가 일어났다. 현철직장장이 약간 일어나 경의를 표하고 앉았다.

《그럼 이제부터 돌격대 대장동무가 대원명단을 부를것입니다.》

현철직장장이 움쭉 일어나 활기있게 연락으로 일어나갔다. 시원스레 울리짖은 짧은 머리에는 희숙 희숙한것이 섞여있긴 했으나 철색얼굴의 자그마한 눈에서는 강철빛 같은것이 번쩍거리고있었다.

사업수첩을 펼쳐든 그는 매 직장들에서 선발된 돌격대원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부르기 시작했다. 심장의 박동이 들릴것만 같은 장내가 찌렁찌렁 울리게 대답하며 지명된 로동자들이 무대로 뛰어올라갔다.

정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조이며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있었다.

《...다음, 대형기계직장 2 중천리마<청년호>선반 작업반.》

(우리 작업반에 왔구나!)

저도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인 정애는 꼬깃꼬깃해진 손수건을 손등이 하얗게도록 움켜쥐고 아버지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현철직장장은 작업반장과 세명의 기능공을 부르고는 《이상의 동무들입니다.》하고 끝을 맺었다. 자기와 복희의 이름은 없었다.

온몸이 그대로 귀가 되어 듣고있던 정애는 고개를 꼭 떨구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쿵쿵 방망이질했다. 장내가 떠나갈듯한 환영곡이 울리고 돌격대원들에게 생화목음이 안겨지건만 그의 귀에는 웅-하는 가느다란 소음만이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는 돌격대원들이 충천한 기세로 연락으로 뛰어올라가 어떻게 불같은 토론을 하고 결의들을 다졌으며 언제 맹세문이 랑독되었는지 알지 못한채 고개를 숙이고 넋없이 앉아있었다. 부끄러웠다. 수많은 눈길들이 자기 한몸에 와 실리고있는듯싶었다.

그는 순결한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해온 불같은 열망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애달랐고 가장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버림받은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정애는 남몰래 이런 영광의 자리를 얼마나 꿈꾸어왔고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그러한 동경과 꿈은 단순히 첫 로동복을 받아안은 사회복무의 출발점에서부터가 아니라 썩 그 이

전의 단발머리 어린 소녀시절부터 싹터온 뿌리깊은 것이었다. 하건만 정작 그 시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지금 공장도 직장도 사람들도 자기 존재쯤은 안중에도 없었고 꼭 그 대렬에 필요한 사람들의 썸에 넣어주지도 않는것이였다.

정애는 목이 메었다. 금시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올것 같았다.

모임이 끝났다. 작업반처녀들이 관람석복도를 나가며 흥분해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별이 컸어, 기능두 높지 못한 처지에 얼마나 주체님구 허망한 생각이었니.》

《기능만 높으면 받아준다니뭐?》

《모두들 보려마, 한다하는 기능공들이 안야?》

《그럼 우리 정애와 복희 왜 안뽑았대? 기능공인 니들과두 어깨를 겨루잖니?》

《글쎄...》

정애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호- 나갔다. 해맑은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비끼고 늘 선량한 담씨가 내비치는것 같던 눈에는 안타까움과 이طم할수 없는 하소가 내비쳐있었다.

작업반동무들이 두 처녀가 돌격대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를 의문에 불일만도 하였다.

정애와 복희는 견습공시절부터 어찌나 애를 쓰고 직심스레 기능을 배웠던지 지금은 그 나이또래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당당한 5 급선반공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아무리 까다롭고 복잡한 부속품도 선뜻 말아나섰으며 또 그것을 거침없이 해체끼군했다. 그들의 손기 날래고 알뜰한 일숨씨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랐고 공장정문에도 나이지국한 혁신자들과 나란히 미소를 머금은 두 처녀의 사진이 큼직하게 나붙어있었던것이다.

텅 빈 관람석에서 맨 나중에 기분없는 얼굴로 일어난 정애는 장식등이 현란한 회관복도로 힘없이 걸어나왔다.

저쪽 출입문가에 복희가 머리를 숙인채 서있었다. 한참동안 무엇인가 바재이며 망설이던 그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시름겨운 발걸음을 문밖으로 옮기였다. 그도 몹시 피로운 모양이였다.

정애는 복도에 우두커니 선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진 왜 우릴 받아주지 않았을까? 혹시 검사원아주머니의 말을 들으신것이 아닐까? 아니면 아직 어리다구 그랬을까?)

한참 서있던 정애는 담찬 맘을 먹고 2 층휴계실로 올라갔다. 휴계실에는 담배물주리들을 꼬나문 아버지와 지배인이 머리를 맞대고앉아 돌격대대렬을 편성하고있었다.

고개를 든 지배인이 주눅이 들어 들어선 정애를 띠여보자 반색을 했다.

《허, 이거 우리 보배가 왔구만, 그래 요사이 일이 재미나냐?》

《... ...》

정애는 대답을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고 섰다.

현철직장장이 조용히 물었다.

《왜 가지 않구 여기를 올라왔느냐?》

《.....》

여전히 대꾸를 못하는 정애를 보고있던 지배인이 사람좋은 웃음을 웃었다.

《허허 ... 돌격대에 넣어달라는게구만.》

《전... 해낼수 있습니다.》

《허- 이거 야단났군. 내게 권한이 있나? 돌격단이 대장이 주관하는건데.》

지배인이 이런 말을 하여 현철직장장을 넋지시 건너다보았다. 직장장은 신중하고 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하건만 그의 작은 눈에는 대견한 미소가 깊숙이 감춰져있었다.

현철직장장은 이제는 펍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어느 쉬는날 사업토론을 하러 집으로 찾아온 지배인과 장기를 두면서 했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그는 술하에 남은 자식이 막내딸 하나밖에 없어 쇠내가 물씬물씬 풍기는 후비를 키울것이 큰 걱정이라는 말을 비쳤다가 되게 통을 맞았었다. 그 일이 었그제 같은데 정애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뿔뿔이 돌격대에 넣어달라고 찾아와 자기앞에 서있는 것이었다.

사실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실컷 쇠불이를 다루어온 그로서 이제 부러울것이 무엇이 있으랴만 자식들의 직업문제 하나만은 늘 가슴에 얹혀서 내려가지 않았었다. 그에게도 끝끝한 사내자식들이 자그만치 셋씩이나 있었건만 나래를 돌쳐놓으니 다 제갈데로 가버리고말았던것이다. 맏아들은 어느 비료연합기업소 당위원회 부부장으로 일하고있고 둘째는 해군군관으로, 셋째는 지난해에 신접살림을 펴고 나갔는데 그마저 실험실기사였다. 사회적필요로 보나 국가적립장에서 봐도 당이 맡겨준 초소들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그들을 이제 끌어다가 쇠를 다루게 할수는 없는 일이고 오로지 마지막 자식밖에 바라볼것이 없는 형편에서 그마저 드센 사내라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아들 하나 없이 딸들만 주련이 기르고있는 사람들이 이 턱없는 욕심을 알면 뒤에서 주먹질을 할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로서는 한때 자기로서의 서글픔을 안고 살아왔던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한 딸의 성장과 일솜씨를 목격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은연중 자식들중에서 그래도 그것이 기증 낫다고 생각하며 한없는 긍지를 느껴왔고 그래서 사내자식들에게 주지 못한채 가슴속에

묻어두고있던 불같은 애정을 강그리 쏟아부어주곤 했었다.

이런 심경에 잠긴 현철직장장은 제발로 찾아와 당돌하게 제기하는 딸의 소행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도 딸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이번 돌격대를 조직할 때 정애를 넣고싶은 마음이 없었던것은 아니였다. 그랬으나 그는 이 생각을 단념해버리고말았다.

그의 눈에 비친 정애는 하나의 귀한 구슬이긴 했으나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 굴려도 어지러워지지 않을 티없이 깨끗한 구슬이 되겠는지는 아직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이 일은 내 맘대로두 못하는거야. 이번 돌격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장참모회의에서 탕탕 튀기면서 고른 사람들이다.》

《전... 무슨 과업을 주시든 정말 자신있어요!》

정애는 물기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간절히 부르짖었다.

《글쎄 그걸 누가 모르냐? ... 너두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가느라면 차차 공장과 사람들이 찾을게 구 나라가 불려줄 때가 있을게다. 어서 가보렴.》

정애는 어깨가 처지고 맥이 풀려 휴계실을 나왔다. 복도계단을 천천히 내려서는 그의 속눈썹에 축축한 이슬이 맺혔다, 가로수길로 나온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호젓한 집에 홀로 앉아있는 정애는 몹시 울적했다. 며칠밤을 새며 힘에 부친 일을 하고도 지칠줄을 몰랐고 오히려 더 명랑해지군하던 그가 이처럼 락심해지기는 처음이였다.

창밖을 점도록 바라보고있는 그의 눈앞에 첫 로동복을 타안고 집으로 출달음쳐온 날 저녁의 즐거운 추억이 삼삼해왔다.

그날저녁은 정애의 사회진출로 하여 온 집안이 경사가 난듯 들썩했다. 맏오빠와 셋째오빠는 물론 조카애들을 데린 두 울케들까지 축하해주려고 집에 와있었다. 식구들은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벽찬 사회에 첫발자국을 들여놓은 정애에게 교훈을 말해주고 훈시를 했다.

맛나게 피운 담배를 재털이에 끈 아버지가 올방자를 틀고 앉으며 입을 열었다.

《난 네가 우리 가정에서 마지막 로동자인데 나라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해주기만 바라다.》

《이제 두고 보세요. 저도 결심이 크니까요.》

《허긴 결심이 중요한거지.》

《오빠, 제가 세운 첫 목표가 뭔지 알아요? 실습기간에 4 급공이 되는거야요.》

아버지가 펄쩍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아니? 네가 단번에 4 급공을?! ...원, 되지두 않

을 소릴, 계획이란 능력에 맞게 세워야 하는거다.》

《아이 정말, 정 믿기 못하시겠으면 아버지, 내기 하자요!》

《허허... 경쟁말이지. 정 네 소원이 그렇다면 하자.》

《제가 4 급공이 되면 어쨌래요, 아버지? 담배를 끊으시겠지요?》

《담뱃?!》

아버지는 그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부엌에서 성수가 나서 지집판을 들고 돌아가던 어머니가 혀를 찼다.

《저런 버르장머릴 봐라.》

《어머니두, 경쟁은 심각해야 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끓자꾸나.》 하고 대답했다. 《근데 네가 지면 무조건 널 공급과루 내보낼테다. 일없겠냐?》

이번에는 정애가 속눈썹을 내리깔며 대답을 못했다. 아버지 제안 역시 보통 심중한것이 아니었던것이다.

《왜 대답이 없느냐?》

정애는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그도 그만 가는 한숨을 내쉬며 응하고말았다.

《저두... 그렇게 할래요.》

《됐다. 보증은 여기 우리 부부장이 선다?》

《네.》

《어허이구, 부녀간의 경쟁인데 뭘 그리 어마어마하게 하슈, 늙은령감이 한발 물러서질 않구.》

그 말에 온 식구가 웃었다.

그후 석달이라는 짧지 않은 실습기간 정애는 하루 두세시간도 자나마나했다. 은하수가 기울도록 책상에 마주앉아 탐구의 밤을 지새기도 했고 남몰래 현장에 남아서는 추위에 떠는 달빛아래에서 수리하려고 밖에 내놓은 낡은 선반을 돌려보기도 했다. 손바닥살점을 묻혀낼듯 얼어든 왕복대손잡이를 입술을 깨물며 돌렸고 파철무지에 가서 소재풍다리를 주어다가는 기능공들도 주저하는 6 급나사못을 합격품이 나올 때까지 깎아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은 손바닥에 잡혔던 물질이 터져서 못건디게 쓰러났으나 맘을 담차게 도사려먹고 동이 틀때까지 서튼개나 깎아냈다. 그러나 그중에는 완성품이 단 한개도 없었다. 정애는 너무도 분하고 안타까와 선반주축함을 안고 소리없이 흐느껴울었다.

그렇듯 오동통하고 보드랍던 손바닥에 물질이 생긴 때로부터 그것이 터져 피가 흐르고 다시 험상궂던 손에 판판한 못이 박힐 때까지의 하많은 나날에 정애의 가슴속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도록 이

끌어준 힘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오로지 아버이 수령님께 충성다하고있는 아버지처럼 공장과 사람들속에 매우 필요하고 귀중한 그런 로동계급이 되려는 불같은 열망이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정애의 눈물겨운 노력은 끝내 열매를 맺고말았다. 실습을 마친 그는 기능급수시험에서 단연 4 급공이 되었다!

새 기계설비운영증을 받아든 그날 정애는 퇴근고동이 울리기 바쁘게 집으로 내달렸다. 저녁때 정애는 돋보기를 걸고 신문을 보고있는 아버지에게 달려올라가 파란 뚜껑의 4 급공 운영증과 함께 그렇듯 한숨을 쉬며 심각하게 걸었던 경쟁은 까맣게 잊은듯 백화점에서 산 《사슴》 30 갑을 살그머니 내놓았었다. 그때의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수가 없었다. 물론 그 기쁨뒤에 숨어있는 정애의 피어린 노력을 아버지가 다는 알수 없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이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딸의 손바닥만 들여다봤다면 얼마나 아연해졌을것인가!

그러나 이튿날 정애가 집으로 왔을 때 어머니는 책상빼람에서 난데없는 고약을 내놓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네가 어제밤 잘 때 아버지가 너의 터갈라진 손을 자꾸 쓸어만지시더니 이걸 사오셨구나.》

정애는 엄하면서도 웅심깊은 아버지의 애뜻한 사랑에 목이 메여올라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었다.

그런 아버지가 어찌하여 자기가 애라게 열망하는 돌격대에는 받아주지 않는것인지 이해할수 없었다. 기대앞을 자주 찾아오군하던 지배인도 발전이 빠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지어 기능급수 시험 때에는 자기가 깎은 제품을 들여다보면서 《허, 이거 내 수업을 밟 때가 됐구만.》 하고 턱을 만지며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정결도를 두고 은근히 자랑해마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지배인조차 왜 자기를 모르는체 할가?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정애는 아버지가 공차를 벗어난 나사못을 알고있으며 그때문에 돌격대에 받아주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정애는 문득 억울한 감이 들었다. 마치 복희때문에 돌격대에 들어가지 못한것만 같았다. 그는 복희가 돌격대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불안하고 속이 울렁거려 일손이 걸리지 않았았던 말이 떠올랐다. 아마도 복희가 흥분한 나머지 오작을 낸것 같았다. 그러면 복희는 어찌하여 검사원아주머니의 물음에 모른다고 했을가? 아닐것이다. 복희는 그럴애가 아니었다. 흥분하기는 자기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엌문이 열리더니 공구창고원을 하는 어머니가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섰다. 아직도 젊은여자들 못지않게 들손이 있는 어머니였다. 부인가방을 벽에 걸던 어머니는 옷방에 앉아있는 딸의 심란한 얼굴을 보자 걱정스레 물었다.

《너 왜 얼굴색이 좋칠 않니? 옷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은게나 아니냐?》

《제가 뭐 어린앤줄 아세요?》

《그럼 어째 옷두 갈아 안입구 그 모양이냐? ... 무슨 일을 하든 비단같은 맘을 갖구 해야 랑패없느니라.》

《... ...》

《애, 오늘은 네가 좀 저녁지으렴, 내 급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있어요?》

《넌 아직 모르구있냐, 돌격댈 무은걸? 그 령감이 좀 뿔해서 그랬던지 회관에서 명단 부를 때 내 이름만은 슬그머니 빼놓칠 않았겠니. 나이 씬이 넘은 령감이 이제사 무엇이 열적은지...》

《그럼 어머니두 돌격대원이야요?》

《우리 장비실 실장의 말이 특별히 날 뽑았다더라. 그 큰일에 내가 비치지 않구서 된다던?》

이렇게 궁지에 넘쳐 말한 어머니는 여러가지 찬거리를 부뚜막에 꺼내놓고는 어느새 힝 나가버렸다.

정애는 책상에 턱을 고이고 망연히 앉아있었다. 어머니까지 나가고보니 심사가 울적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일손을 잡지 않고는 더 쓸쓸해지고 공허해지는 마음을 녹াত힐수 없을것 같았다. 그는 실내복을 갈아입은 다음 산뜻이 다림발이 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내려섰다.

술에 쌀을 안친 정애는 칼도마를 내려놓고 깨끗이 씻은 무우를 쪍다쪍다 썰기 시작했다. 가락맞는 도마소리와 함께 가쁘히 썰어지는 무우를 내려다보던 정애의 머리에 또다시 허용공차를 약간 벗어난 사숫이 떠올라 손을 멈췄다. 그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갑자기 문밖 현관에서 손기척이 났다. 제관직장용접공청년이 쑥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길다란 도면두루마리가 들려있었다. 정애와 복희랑 한학교 동창생인데 여기로 자주 놀러 오군한 청년이다.

《아버지 계시나?》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 계실까? 이 자동용접기합리화안을 보여드리구 방출 받자구 했는데... 알겠어.》

돌아서던 청년은 한없는 부러움이 비친 정애의 눈길과 마주치자 게면쩍은 미소를 지으며 《난 정애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하고는 훌 나가버렸다.

그가 나간지 일본도 지나지 않아 또 둔탁한 손기척이 들리더니 구레나룻이 꺼낸 프레스직장 3천톤 프레스작업반장이 성큼 들어섰다.

《아바이 아직 안들어오셨나?》

《예.》

《하- 그길루 시추기조립장엘 들어가신 모양이군. 책상우에 글쭙질 써놓을테니 오시면 꼭 드려라.》

프레스반장은 옷방으로 댕큼 올라가 책상에 마주 앉더니 우람한 몸집을 궁싹거리며 쪽지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형단조화기술협의회가 있으니 수고스러우신데로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분분한데 직장장아바이가 반드시 계셔야겠습니다. 장소는 설계과 프레스실.》

밑에다 《3천톤.》이라는 멋들어진 《작업반수표》를 휘갈기고난 반장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거울앞에서 꺼낸 턱을 쓸어보았다.

눈치빠른 정애는 비누며 면도칼이며 술을 옷방으로 살그머니 들여보냈다. 미소를 지은 반장은 모루같이 네모진 얼굴에 온통 비누거품을 부적부적 칠한후 그 많은 구레나룻을 잠간새에 말끔히 밀어버리고는 기분좋아서 가버렸다.

정애는 부엌에 오도카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진 얼마나 좋을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받으려구 찾아다니니 얼마나 행복할가? 난 언제면 아버지처럼 될가?)

사실 현철직장장의 둘째에는 부러울만큼 사람들이 찌는 날이 없었다. 그는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귀중하고 필요한 존재였다. 공장당확대위원회는 물론 공장참모회의며 무슨 기술협의회니 무슨 확장공사니 하는 모든 크고작은 일에 그를 부르지 않는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정애는 아버지가 언제 잠자리에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늘 사람들에게 복이우고 일에 파묻혀 돌아갔다.

지어 어떤 날은 무슨 일때문이였는지 이틀밤을 꼬박 밝힌 아버지가 겨우 야밤삼경에 들어와 단잠에 들었을가말가 했는데 또 한사람이 찾아왔었다. 문을 연 정애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새 피진 눈을 비비며 아무말없이 일어나 그를 반갑게 맞는것이였다. 방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됐구만, 됐어!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좋은가 영? 허허...》 하는 환희에 넘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리였다. 아버지는 정지에 대고 《여보, 내 잠간 나갔다오겠소.》 하고 기쁨에 겨워 나가서는 아침을 펴놓았을 때에야 신발을 툭툭 털며 들어서는것이였다.

이 모든 아버지의 사업과 생활의 참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라난 정애는 어린 소녀시절부터 벌써

참되게 사는 사람의 기쁨과 보람이 어떤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아무도 찾는곳이 없고 사회의 기억밖에서 무위도식하는 인간만큼 불행하고 또 그런 인간의 생활만큼 빛을 잃은 속된 삶이 더는 없을것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체득해왔던것이다. 때문에 정애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이 척척 해내고 그래서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훌륭한 선반공이 되고야말리라는 결심이 하나의 굳은 신념으로 인박혀있었다.

이런 정애로서 절호의 기회가 온 오늘에 와서까지 손톱눈이 닳도록 숙련해온 기능과 마음의 준비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것이 이만저만 가슴아프게 생각되는것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복희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 더 커지고 그를 더욱더 의심하게 되는것이였다. 복희가 지금 자기곁에 있다면 당장 뺏정히 따지고들어 사실을 명백히 까밝히고싶었다. 모든 사람들이 벅찬 이 하루밤을 값높고 유익하게 보내고있는 때에 오직 자기만이 집에 들어박혀 부뚜막을 지키고있는것이 복희때문에 빚어진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래일아침 출근하자바람으로 복희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래전부터 불이 부어 푸루거리는 가마전을 수심에 잠겨 바라보던 정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솔뚜껑을 삐쪼롬히 열어놓았다. 들끓던 가마는 그제야 잦아들었다. 그러나 가마속보다 더 끓는 자기의 가슴속은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잦혀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피로왔다.

정애는 저녁을 다 짓고나자 정지에 올라가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밤은 고요속에 깊어갔다.

그는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문화회관으로 나왔을 때 왜 즉시에 복희를 찾아 물어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랬다면 모든것이 명백해지고 이처럼 가슴이 가위눌린듯 답답하지 않을것이였다...

벽시계가 석점을 쳤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소리없이 들어왔다.

웃방으로 올라간 아버지가 정지에 대고 물었다.

《애가 자우?》

《지금 몇신데 아직 앉아있겠수. 낮에 보니 낮색이 좋지 않던데 무슨 일이 있었수?》

《잠들었으면 다투우.》

어머니는 자리에 눕자 고르로운 숨소리를 내며 이내 깊은 잠에 들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으나 아직도 웃방에서는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주무시지 못하고계시는구나!)

잠을 애써 청하던 정애는 입술이 말라들고 근심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내리눌러 숨이 가빠왔다. 잠

시간이 몹시 아까운 아버지가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아직도 주무시지 못하는것만 같아 더는 누워배길수가 없었다.

살그머니 일어난 정애는 머리를 단정히 매만지고 웃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버지의 발치에 조심스레 앉았다.

《아버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자질 았구있었어나?》

《저...아버지, 허용공차를 아주 약간 벗어진 나사 못두 대형시추기에 쓸수 없나요?》

《왜?》

《부속품이 긴장할 땐 쓸수도 있잖나요?》

《아무리 날자가 긴박하다구 허용공차에서 벗어난 나사못을 어떻게 쓰겠나. 누가 오작을 냈느냐?》

《아니...》

《선반공들은 아주 미세한 치수도 허용해선 안된다. 너무 아는것이지만 그래서 선반공들이 나의 마음을 알려거든 내가 깎은 제품을 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맘속에 그런 드림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부속품을 깎구 내버리는 죄밥이나 마찬가지로야.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 사회의 죄밥말이다...》

그 말에 눈덕을 내리깔고앉은 정애는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현철직장장은 울방자를 고쳐틀고 앉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것처럼 나사못이 없이는 아무리 큰 기계두 이루어지지 못하는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불완전한 나사못이 들어간 기계는 견고치 못하구 또 오래갈수두 없어. 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두 마찬가지야. 당이 정해준 초소에 한사람이라두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서있다면 조국이 어떻게 되겠나? 돌격대에 뽑힌 사람들을 소홀히 봐서는 안된다. 그 매 한사람한사람은 노동과 생활을 통해서 검증받은 훌륭한 사람들인게야. 그들이야말로 마음놓고 무엇이든지 맡길수 있지.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구 어려울 때마다 찾아주는거다.》

《... ..》

《난 너를 믿구있다. 높은 기술을 가지는것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역경속에서두 일미리공차두 허용치 않는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한 사람만이 나라에 쓸모가 있는 귀중한 재목감이 된다는것을 알고있다고 말이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정애는 더는 아버지앞에 앉

아빠길수가 없었다. 아래입술을 지그시 감쳐문 그는 금시 치마폭에 눈물을 떨궈졌만 같아 조심히 일어나 부엌문을 열고 나왔다. 현관을 벗어난 그는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아이들놀이터로 스스스적 걸어갔다. 그는 버드나무밑에 움적일줄을 모르고 오래 동안 서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갑자기 등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있었다.

《네가 오늘은 왜 이러냐?》

《... ..》

《감기들겠다. 어서 들어가 자자... 너의 아버지 프레스반장의 쪽지를 보더니 끝내 눈을 붙여보지 못하구 또 공장으로 나가셨구나.》

《어머니!》

정애는 한손을 자기 어깨에 얹은 어머니에게 돌아서며 목이 메어 부르짖었다.

집으로 들어와 또다시 자리에 누운 정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마디한마디 되새기며 다시한번 오늘의 일을 이것저것 더듬던 그는 문득 복희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대하고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희 역시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결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 애는 그러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정애의 온몸에는 소름이 짹 끼쳤다. 그는 놀란듯 옷몸을 벌떡 일으켰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아- 내가 왜 한 제품대를 쓰는 복희를 의심하고 있었을까? 잘못된 일을 왜 그에게서만 찾으려고 했을까?)

그는 두눈을 꼭 감았다. 복희와 함께 한 제품대를 쓰자고 약속하던 즐거운 그날이 선하다.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도우며 일하자, 그래서 우리도 공산주의제품대를 통하여 하루빨리 참다운 선반공이 되고 아버지수령님의 충실한 딸이 되자고 손을 맞잡고 굳게 약속했던것이 어제런듯한데 이게 무엇인가? 과연 그 약속이 언니들을 그저 본파기 위한것이였고 한갓 남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결치레에 불과했던것인가? 아니였다.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럼 내가 왜 검사원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길로 조립장으로 달려가 그들앞에 사과하고 새것을 깎지 못했던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기전에 그것을 넌떡 책임질줄은 모르고 깨끗한 복희의 마음을 의심하려던것은 무엇인가? 가장 미더운 자기 동무들, 어깨를 견고 즐거움이나 어려움이나 함께 나누며 희망한 미래를 앞당겨오자던 동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것이 얼마나 저렬한 생각인가?

이것이야말로 오작을 낸것보다 더 어리석고 너절하고 역겨운것이 아닌가?

아- 깨끗한 나의 량심은 어데다 내버리고있었던가!

정애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모닥불을 들 쓴듯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다. 가슴이 못견디게 저리고 수치스러운 자책감이 온몸을 들쑤셨다.

그는 어머니 몰래 일어나 이불을 개여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문밖으로 나온 그는 결연히 공장을 향해 발길을 땀다.

길가에는 인적하나 없었다. 눈섭같은 달이 먼 화학공장의 굴뚝끝에 걸려있었다.

가로등불빛이 엷은 어둠을 몰아내며 정애의 앞길을 비쳐주고있었다.

대형시추기조립장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팔을 걷어붙인 조립공들이 아슬하니 높은 시추탑에 달라붙어 어느새 정수리를 조립하고있었고 용접공들이 불보라를 줄줄이 날리고있었다. 가공작업반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바이트끝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다.

정애는 가슴이 몽클하고 목안이 콕 잠겨들었다. 불덩이같은것이 응결되어있는 이 빛나는 자리에서 맘껏 웃고 떠들며 땀을 흘리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 없고 용렬해보였다.

정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품 실은 밀차를 밀고오는 지배인앞으로 다가갔다.

《지배인아저씨, 제가... 제가 나사못을 잘못 깎구도 이때까지... 전 정말 돌격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배인은 미소했다. 이미 현철직장장에게서 모든 것을 들어 알고있는 그는 그 작은 나사못 하나를 두고도 성실하게 살기를 지향하는 어린 처녀의 마음에 몹시 감동되었던것이다.

《이젠 깨달았으니 됐다.》

《다시는 쓸모없는 나사못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

《알겠다. 우리 항상 그런 심정을 가지구 일하자.》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지배인은 지령함으로 가더니 새 작업지령서 한장을 꺼내 정애에게 내밀었다.

《...?!》

《자, 어서!》

《돌격대》라는 신성한 붉은 명판이 찍힌 새 작업지령서를 받아든 정애의 눈에는 끝내 눈물이 찼끔 솟아올라 핑 고였다. 그는 새 믿음을 가슴에 안고 눈섭끝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기대사이를 춤추듯 달려갔다.

현철직장장이 지배인에게 다가오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난 저 애가 제발루 꼭 찾아올게라고 믿었지요. 허허...》

《허허... 옹하우.》

그때였다. 땀에 흠뻑 젖은 복희가 숨을 가빠 몰아쉬며 그들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빨강계 볼이 익은 처녀의 눈가에는 땀방울만이 아닌 그 어떤 령통한 것이 맺혀있었다.

《직장장아바이, 전... 기대공자격이 없어요! 전... 오후작업때 나사못을 하나 오작내구도 돌격대에 들어가지 못할가봐... 대수롭지 않게 여기구 모른체 했어요, 전, 자신을 속였습니다. 정엘 돌격대에 넣어주세요. 네? 저때문에 정애까지...》

복희는 동실한 어깨를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을 찡근 처녀는 기대사이를 누비며 정애에게로 달려갔다.

지배인은 놀라운 눈길로 현철직장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저 애들은 나사못을 깎아서 한 제품대에 놓군하

지요. 구태여 오작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선 뭘하겠습니까.》

그제야 지배인은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확 피여났다.

로세대인 두 일군은 티없이 순결한 마음과 구김살없는 지향을 안고 자라고있는 어린 처녀들을 정에 넘쳐 바라보았다.

《저렇게 달려나오기까지 저 애들은 얼마나 심각한 내부투쟁을 했겠소. 깨끗하군. 장하오!》

《저 애들의 앞길은 의심할바없이 훌륭할겁니다.》

《정말 일욕심이 부쩍 나누만, 이 거물과 같은 새 기계와 함께 처런 진짜배기 로동계급이 자라구있으니말이요! 허허... 그래 직장장동문 아직두 저 애가 딸루 태어난것이 서운한게 아니우?》

《원,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집안에선 그래두 저 애가 제일이지요. 허허...》

현철직장장의 웃음소리는 딸을 가진 아버지의 그 령듯 공지에 넘친 웃음소리였다.

동맹소식

들끓는 현장으로 찾아간 작가들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 2 차 7 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받아안고 그 첫째 과업 수행에 펼쳐나선 들끓는 현장을 찾아 많은 작가들이 현지로 떠났다.

작가들은 현지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면서 경제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벌리는 한편 거창한 현실을 반영한 사상에술성이 높은 소설들과 서정시들을 창작하게 된다.

이미 안주종합탄광 탄부들을 찾아간 작가들은 석탄생산을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탄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탄광, 광산들을 더욱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제 2 차 7 개년 계획수행에서 채취공업의 선차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 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긴 작가들은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이곳 탄부들을 고무하여 여러가지 정치

선동, 경제선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장소의 가림이 없이 벽시와 속보, 벽보들을 써내고 시랑송도 해주어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작업교대시간에는 입갱하는 탄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열렬한 선동사업도 벌렸다.

작가들의 고무를 받은 탄부들은 자기들의 하루계획을 300~500%씩 하고도 성차지 않아 막장을 떠날 때는 석탄 한짐 더 캐기를 벌렸다. 그것만도 하루에 500 여톤이 넘는다.

이곳 탄부들은 또한 굴뚝기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 창조운동에 펼쳐나섰다.

작가 리동후, 박원식, 장호건, 리광근, 김휘초, 김동욱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 창조작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막장에서 천공기를 틀어잡았다. 굴뚝기소대에서는 작가들을 자기 소대에 등록하였다.

작가들은 지하초병들과 함께 갱막장을 폭폭 밀어 나가고있다.

이처럼 작가들은 탄부들속에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면서 벌써 사상에술성이 높은 수많은 소설들과 서정시들을 창작해내였다.

충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린다!

구희철

영광의 봉우리가 앞에 있다
조국이며, 앞으로!
행복의 언덕이 바라보인다
인민이며, 앞으로!

우리러 높이
아버이 수령님을 모신
감격에 겨운 가슴들이
새로운 전망의 설계도를 안고
충성의 대하가 되어 굽이치는 이 땅!

발밑을 굽어보면
우리 넘은 승리의 언덕과 언덕들
머리 들어 바라보면
더 높이 치달아오를
희망의 봉우리, 영광의 봉우리...

조국이며 앞으로!
인민이며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 손길따라
빛나는 자욱만을 새겨온 그 걸음으로
새 7개년의 령마루도 단숨에 날아넘자

우리는 자랑높이 바라본다
억만재부를 가득 채우며
우리 걸어온 보람찬 자욱!
우리 걸어온 진군의 로정을...

해방의 기쁨안고 달려온
2개년의 그 언덕을 넘어
벽돌 한장 성한것 없던
전후의 재더미우에
기적같이 도시들을 일떠세운
3개년의 그 언덕을 거쳐

천리마의 고삐를 틀어잡고
세기를 주름잡은 5개년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공업국을 일떠세운
7개년의 높은 언덕이며!

속도전의 불바람안고
대건설의 큰 자욱 남기며
6개년의 언덕을 날아넘은

그 투지, 그 신념, 그 충성을 안고

조국이며 앞으로!
조국이며 앞으로!
언제나 미래를 현실로 펼치며
순간도 멈춤없이 앞으로 앞으로!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옮기는 자욱!
창조하는 걸음!
쌓아가는 재부마다
인민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땅!

우리 올라보지 못한 언덕이 있었던가
바라본 그 많은 고지들을
승리의 봉우리로 기어이 이 땅에 안아올린 인민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앞에 솟은 새 7개년의 령마루도
신념에 넘쳐 바라보는 그 눈빛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이 큰 심장을 주시며
인민을 이끄시여 조국을 이끄시여
오늘의 행복을 꽃피워주신
아버이수령님 령도의 손길이며!

세월과 세월을 이으며
시대와 시대를 넘으며
시련의 날에 나래치고 시련의 언덕을 헤쳐온
자력갱생! 자력갱생의 노래소리

우리 변함없이
우리 굽힘없이
자랑높은 우리의 신념인
이 노래 이 기치따라

조국이며 날아넘자!
더 높은 2차 7개년의 언덕을!
인민이며 꽃피워가자!
더 찬란한 래일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조선의 본때를 보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강산이 뚫고
인민이 달리는 이 땅!

얼마나 휘황한 전망이
인민이여, 우리앞에 펼쳐졌는가
자동화의 노래에 노래를 더하며
무성한 철의 숲에 숲을 더하며
행복한 생활의 기쁨에 기쁨 더해갈
새 7개년! 새 7개년! 조선의 미래여!

얼마나 높은 시대의 언덕우에서
우리 더 높은 언덕을 바라보는것인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더 높은 사랑의 봉우리에 오르는가

아, 총진군의 명령은 내렸다
조국이여 앞으로! 앞으로!
총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린다
인민이여 앞으로! 앞으로!

여기는 화력발전소이다

한원희

여기가 어데인가
산악같은 보이라의 거창한 화실엔
불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어데선가 송풍압의 거센 흐름소리

뜨거운 증기는 억제할길 없는 힘을 안고
집체같은 타빈에 만부하를 건다
만속이다! 발전기는 폭풍을 안고
전류를 일으키나니
우리의 뜨거운 충성의 가장 높은 절정인가
전류계의 바늘은 끝없이 오른다

이 가슴에 용맹은 솟구치고
이 몸에 장쾌함이 일어선다
여기서 전류는 흘러
순간에 천리를 날아넘는다
북으로 천리
남으로 천리

들으라, 걱정예 목메이는
타빈의 이 음향
발전기의 이 동음
한데 어울려 울려가는 우뢰의 목소리를

마치 원쑤를 무찔러나가는 전선지구
그 강력한 화력진지를 잡아주시듯

3대혁명의 불길 드높은 온 나라를 생각하시며
여기에 발전소의 위치를 잡아주신 수령님

빛나는 예지와 천리혜안을 지니시고
바람찬 강기슭을 걸으시며
건설자들을 뜨겁게 손잡아이크시던
그 거룩하신 자욱우에
나라의 대동력기지는 솟아올랐나니

그 품에 소리없이 흐느끼던 그 마음들이
이렇듯 백광이 되여 로속에 뚫어번지고
바치고 바쳐도 다함없는 그 충성이
우뢰가 되여 창조의 벽찬 숨결을 내뿜는다
보아라, 화력의 이 기상을
드세찬 증기압의 이 힘을!

이 기상, 이 힘을 안고 전류는 흘러
들끓는 제철지구예, 지하막장에
전전하는 우리 조국, 우리 혁명에
비약의 역센 나래를 달아준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힘!
창조의 이 빛발
불타는 충성의 화력
아, 화력발전소!

봄날의 환희

김정호

별을 안은 가슴에
봄은 먼저 와
부푸는 땅우에 씨뿌려가는 걸음
저 하늘에 종다리 날리네

젊은 프락포르운전수의 웃음소리에
이랑이랑 흙물결 일고
랭상모관치너들의 노래소리에
산기슭 진달래도 곱게 피어나고

바람도
흘러가는 시내물도
만풍년을 노래하며 들끓는 봄
새 7개년의 첫 씨앗 뿌려가는
농장의 봄이여

찾아오실 때마다
주체농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이랑이랑 포기수도 세여보시며
풍년열매 가꾸어주신 어버이수령님

봄을 맞으라고
동구길이 메계 새 프락포르들을 보내주시고
이 별을 다 적시라고
푸른 물까지 보내주시는
위대한 그 사랑이여

에헤라, 이해의 봄맞이는
880만톤의 금나락이
별에 먼저
가슴에 설레는 풍년맞이 봄

아, 이 강산에
만풍년의 금날가리 솟으라고
이 봄을 꽃피워주신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을
새 7개년의 첫 씨앗으로 뿌려가는 마음

그 마음속에
봄도 먼저 와
만풍년 가을이 설레는 소리
봄날의 환희로 들끝에 퍼져가네

위훈으로

김청남

달밤.

종군작가 한태호는 원고를 들고 앉아있었다.

소속사단이 피의 격전을 치른 《ㅎ》강도하의 밤에 쓰기 시작한 희곡작품이었다.

완성한 원고를 번지는 지금 역시 조용한 서재가 아니었다. 그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달빛을 의지하여 음미하고있는것이였다.

산등성이에 가리웠다가는 다시 달빛에 환히 드러나군하는 좁다란 땡기처럼 뻗은 길로 자동차는 전속력으로 달리고있었다.

힘껏 끌어당겼다가 뒤로 뿌리치듯 길옆의 나무들과 발들, 언덕들이 확 뒤로 물러갔고 차바퀴에 부딪친 돌들이 총알처럼 튀겨났다.

자동차에는 두사람, 젊은 운전사와 한태호가 타고있었다.

정황으로 말하면 그들 두사람이자 곧 사단의 후위였다. 락동강건너 멀리까지 진출했던 야군사단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북으로, 북으로 들어가고있었다.

며칠째 갓 해방된 최전방 산골마을에서 공연중에 있는 전선극단과 함께 있다가 불가피한 정황으로 분산하여 마지막으로 떠난 그들이였다.

사단대렬과 합류하기 위해 최대속력으로 달리고있는 그들 뒤에는 미제땅크대가 따라오고있었다. 적군사단의 척후기갑중대였다.

젊은 운전사는 최대속력을 가리키는 시속계처럼 온몸의 최대긴장을 두눈에 집중하고 앞을 주시하고있다. 우회한 적들이 앞에 나타날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위급한 정황에 부닥칠수도 있는것이다.

소란스러운 전선의 달밤은 류달리 밝았다. 자동차는 달린다. 아직은 단 한번도 도중 급정거는 없었다.

《소좌동지, 사단이 지금쯤은 예정된 큰길에 내려섰을가요?》

젊은 운전사는 여전히 앞의 감시에서 시선을 옮기지 않은채 조용히 물었다.

《……》

한태호는 읽어내려가던 원고를 전체 생각에 잠겨있었다.

《뭐요?! … 이제 뭐라고 말했소?》

《사단이… 지금쯤…》

젊은 운전사는 소좌의 견장을 단 중년종군작가의 것처럼 열중했던 사색을 깬것을 뒤늦게 뒤우치면서 더듬거렸다.

한태호는 운전사쪽이 아니라 언뜩언뜩 지나가는 차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간단히 대답했다.

《아직은 산길을 걷고있을거요.》

잘막한 말이 오고갔을뿐 다시 두사람은 각기 자기 일에 열중했다. 젊은 운전사는 앞을 예리하게 감시하면서 조향간을 돌렸고 한태호는 다시 원고를 읽어나갔다. 덜컹거리는 차의 흔들림은 글씨의 획들을 부정확하게 그려놓았으나 그대로 빨리 읽어나갔다. 장면들과 대사들까지 암기하고있는것이여서 사실은 읽는것이 아니라 음미하고있는것이였다. 자기가 쓴 작품이였으나 음미해나갈수록 폭풍같은 충격을 온몸으로 느끼는 태호였다.

전쟁전에는 중앙의 어느 극단 전속작가로 활약한 그였다. 전쟁이 개시되자 곧 종군한 태호였고 그간 여러편의 소품들을 창작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성과리에 공연하였었다.

지금까지 근 10여년이란 기간을 창작생활에 바쳐오는 한태호였으나 아직은 지금처럼 양양된 흥분속에서, 이번처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확신하면서 자기가 쓴 글을 읽은적은 없었다. 그간의 종군생활에서 그는 수많은 영웅전사들과 모범전투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돌격선에도 서보았고 찬비 내리는 야간습격전에도, 피의 도하전투에도 참가한 태호였다. 그 모든것, 무너진 참호에서, 피의 도하장에서 캄캄한 습격의 밤에, 찬비내리는 행군길에서 보고 들은 충격적인 그것들이 한 영웅전사의 형상에 집중되어 생동하게 그려져있었다.

한태호는 지금 병사들을 위훈과 용감성으로 부르며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들의 무리속으로 걸어가는 주인공 영웅전사의 랑만최후장면을 읽고있었다.

자동차는 여전히 최대속력으로 달리고있다. 했으나 그는 덜컹거리는 흔들림도, 서늘한 가을의 바람도 감각하지 못하고있었다. 한태호는 들었던 원고를 다시 무릎우에 놓고 머리를 들었다. 승엄한 감정에 가슴이 빠근하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사랑스러운 나어린 영웅전사의 장렬한 최후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히, 강렬하게 눈앞에 떠올라 글을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 한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자기 이름도 못가졌던 배군의 아들이었던 주인공 나 어린 전사, 그는 이 땅위에 모든 행복을 가져다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고향을 지켜 두팔을 부상당한 몸으로 수류탄을 입에 물고 웃으며 적들을 마주 향해 걸어간다.

그는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동무들, 우리가 다시 노예로 살겠는가!...》

젊은 운전사는 놀란 시선으로 태호의 격동에 떠는 표정을 일별한다. 급인돌이다.

운전대를 급히 좌로 돌리는 운전사의 시선은 다시 빠르게 태호의 원고우를 스쳐지나간다. 그러자 그 역시 첫 독자로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솟구친듯 흥분한 눈빛으로 변한다.

한태호는 여전히 주인공의 초상을 눈물을 삼키며 그려보고있다.

《동무들, 우리가 다시 노예로 살겠는가!...》

동해안의 어느 작은 포구마을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둘째-주인공이었다. 풍랑사나운 바다처럼 다난하고 스산한 소년시절이었다. 그에게는 배사공인 아버지가 있었고 포구에서 고기뽕을 따는 어머니가 있었으나 세상에서 제일 먹고싶은것이 생선이였다. 파랭이와 물미역, 고루매...바다풀죽에 역기가 나는 주인공 둘째였다.

어느날 신포집 고양이가 물고 달아나다가 펄근 고등어 한마리를 주어들고 집으로 뛰어오던 둘째는 마주오던 어업조합의 곰보회계주임에게 도적놈이라고 붙잡혀갔었다. 얼굴사체에 퍼렇게 멍이 들고 머리까지 터진 둘째는 울지도 못하고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날 바다에서 돌아와 집에 있던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길로 뛰어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곰보회계주임놈의 두팔을 꺾어놓고말았다.

그날밤 주인공일가는 랑림산속으로 들어갔다. 고달픈 화전민생활이 시작되였다. 비탈밭, 나무등걸타는 숨막히는 매캐한 연기, 맹수들의 래습, 세상사에 짜증난 아버지의 험악한 욕설, 산불, 왜놈산림간수의 부릅뜬 눈, 절거덩거리는 쇠고랑과 아버지의 체포, 옥사한 아버지를 산비탈에 묻으며 통곡하던 어머니...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대기를 끝낸 그 뜨거운 자갈밭... 차라리 날아다니는 산새가 되는것이 소원이던 둘째 - 주인공이었다.

그는 지금 분대가 차지한 무명고지- 조국의 고지를 지켜 두팔을 부상당한 몸으로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속으로 걸어간다. 전률하는 적들의 무리속으로 걸어간다!...

그는 심장으로 웨친다.

《동무들, 우리가 다시 노예로 살겠는가!...》

자동차는 여전히 최대속력이다. 긴 급인돌이를 무사히 돌았다.

서늘러운 가을의 달밤, 패속의 질주 보통때같은 먼 멋지게 회파람을 불며 운전대를 돌렸을 젊은 운전사였으나 종시 침묵을 유지했다.

새초무성한 둔덕이 앞에 나타났다. 예리한 시선으로 앞을 살피던 운전사는 급히 제동기를 밟았다.

《셋!-》

새초무성한 둔덕에서 어떤 사람이 엎드렸던 상반신을 불쑥 솟구치며 다가오는 자동차를 향해 힘껏 고함쳤다.

삐익!- 자동차는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응?! ...웬일이요?!》

차의 시창구유리에 머리를 쏘을번한 태호였으나 아직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정황을 알지 못했다. 극도로 양양된 작품의 세계에 빠졌던 태호는 놀란 시선으로 젊은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소좌동지! ... 저기 둔덕 새초사이에...》

운전사는 시창으로 앞을 가리켰다.

《응?!...》

달밤, 전선길, ...새초밭, 자동차를 향해 몸을 솟구친 검은 그림자, ...그제야 태호는 현실감각세계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초사이로 상반신을 일으킨 사람이 처든 손에서 달빛에 번뜩이는 반땅크수류탄을 보았고 그것이 자동차의 전진을 막아섰다는것을 깨달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새초무성한 둔덕의 사람은 자동차를 향해 당장 반땅크수류탄을 뿌릴듯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날카롭게 명령했다.

《빨리 내렸! ...》

.....

《빨리!...》

수류탄을 든 사람의 고함소리는 총알처럼 다시 날아왔다.

《...?!...》

태호와 운전사는 잠시 망설였다. 달빛을 받아 흰한 새초사이로 자동차를 향하여 반땅크수류탄을 쳐들고 상반신을 일으킨 사람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볼수가 없기때문이었다.

파헤쳐진 땅, 허리부러진 나무들이 스산하게 널려있는 둔덕, 시체들과 탄피... 방금 가렬쳐질한 피의 격전이 지나간듯 주위에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솟구쳐오르고있었다.

《빨리 내렸!... 빨리!...》

당장 수류탄을 던질듯한 고함소리가 다시 날아왔

다. 뒤에서는 적땅크소리가 들려왔다.

정황은 급했다. 앞에서는 반땅크수류탄을 쳐든, 적아를 분별할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의 전진을 막아섰고 뒤에서는 미제놈의 적후땅크가 가까이 다가서고있는것이였다.

《그냥 달릴가요? ... 그까짓거 수류탄을 던지면 ...》

젊은 운전사는 둔덕의 수류탄 사나이를 쏘아보며 입을 악물고 당장 자동차를 그냥 몰아갈듯 운전대를 틀어잡았다.

《가만있소. 만약 아군이라면...》

《그렇지만 우회한 적군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옳소. 그러나...》

달밤의 적막을 잡아찢으며 적땅크의 무한궤도소리가 지심을 울리며 들려왔다.

《운전사동무! 내가 내리겠소. 동무는 그냥 차에 앉아있소!》

태호는 침착하게 만년필을 군복상의주머니에 넣고 자동차문을 힘껏 밀었다.

《아니, 소좌동지...?!...》

젊은 운전사는 따라내리려고 급히 일어섰다.

《침착하시오!》

그는 젊은 운전사를 향하여 엄격하게 말했다. 그리고 길우에 내려서면서 다시한번 빠르게 말했다.

《만약 우회한 적군인 경우 동무는 내 걱정 말고 그냥 달리시오. 그리고 내 원고를 사단정치부에 전해주소!...》

태호는 권총의 격철을 울리면서 운전사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적군인 경우 총성을 울리겠소!...》

《소좌동지!...》

그랬으나 권총을 들어온 오른손을 쳐들고 태호는 성큼성큼 새초무성한 둔덕에 올라 수류탄을 든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셋!...》

반땅크수류탄을 든 사람은 마주오는 태호를 향해 명령했다. 했으나 태호는 그쪽으로 권총을 겨누고 전진하면서 맞받아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요?》

《아군이요! 이리로 오지 말고 우측을 보시오!》

그러자 태호는 우측 멀지 않은 풀밭속에 누워있는 부상병들을 보았다. 두명이였다.

《빨리 자동차에 옮기시오! 정황이 급하오. 적땅크가 가까이 접근하고있소!》

무엇때문인지 수류탄을 든 사람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명령하는것이였다. 응하지 않을수 없는 그 어떤 강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빨리 행동하시오! 적군땅크소리를 듣지 못하

오?》

태호는 급히 부상병들이 있는쪽으로 뛰어가며 자동차를 향해 소리쳤다.

《운전사동무! 빨리 이쪽으로 오시오. 아군이요!》

아군이였다. 자동차를 막아섰던 병사와 두 부상병은 아군부대의 엄호대성원들이였다. 큰 함정을 파놓고 예정된 계선으로 빠지는 부대주력의 기동을 엄호하던 그들은 우회하여 기습을 시도하는 적군사단의 특수대와 이 지점에서 격전을 치른 병사들이였다. 태호와 젊은 운전사는 급히 부상병들을 업고 자동차가 서있는곳으로 뛰여왔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으나 적군 척후땅크는 바싹 접근해왔다. 선두 땅크가 저쪽 굽인돌이를 도는것이 어렵פות이 보였다.

젊은 운전사는 서둘러 발동을 걸었다. 자동차는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류탄을 든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 빨리!... 빨리 뛰여오시오!》

새초무성한 둔덕을 향해 태호는 급히 소리쳤다.

《동무! ...동무!-》

여전히 아무런 응대도 없다.

젊은 운전사는 차를 앞으로 몰아가며 목을 내밀고 화가 나서 고함쳤다.

《빨리 오란말이요! 빨리!...》

태호는 급히 차에서 내려 새초발 둔덕으로 뛰여갔다.

《동무 뭐요?! ... 정신 나갔소?!... 적땅크소리를 듣지 못하오?! ...동무!...》

그래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응?!... 아니?!...》

태호는 놀라 소리치며 다가섰다. 수류탄을 짊어온 사람은 두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 나어린 병사였다. 그는 의식을 잃고 언덕우에 엎드려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 병사만이 지을수 있는 궁지가 어려있었다. 순간 태호는 왈칵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른것을 느꼈다.

《병사동무!...》

태호는 병사를 흔들며 끌어안았다.

《왜 아직 떠나지 않습니까? ... 적땅크가... 아니?! ... 작가동지가 아십니까?...》

의식을 회복한 병사는 사단대렬에서 종종 보아온 중년소좌를 이런 정황에서 만나게 된것이 뜻밖인듯 놀랐다. 태호 역시 놀랐다. 언젠가 태호는 고지우에서 병사들과 함께 앞으로 꼭 쓰리라곤 결심한 작품의 줄거리를 토론한바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서전에 기초한 큰 형식의 작품이였다. 병사들은 모두 훌륭한 이야기라고 말들 했다. 그때 한 나어린 병사

는 눈물이 글썽하여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작가동지, 어쩌면 우리 일가가 걸어온 피눈물나는 어제날과 신통히도 같습니까? 꼭 훌륭한 작품으로 써주십시오!》

병사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 ... 바로 그 병사를 태호는 이 긴박한 정황에서 만난 것이었다. 태호는 말없이 젊은 병사를 등에 업고 일어서려 했다.

《왜 이러십니까 소좌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빨리!...》

《무슨 소리요? 빨리! ... 시간이 없소!》

했으나 젊은 병사는 응하지 않았다.

《소좌동지! 철수시간은 아직 30 분 남았습니다. 전 밤 12 시까지 이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나어린 병사의 말은 조용했으나 움직일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태호는 뜨거운 눈으로 병사를 바라보았다. 두다리를 부상당한 병사, 그는 사단주력의 안전한 기동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여 엄호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부상당한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다른 부상병들을 안전한 숲속으로 옮겼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결사전을 할 각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상병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류탄과 탄알들을 새초발 둔덕우에 모아놓았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임무를 수행한 병사의 공지를 느끼며 의식을 잃었으리라!...

한태호는 두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 심한 출혈로 얼굴이 창백한 병사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병사동무!... 동무는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 여기엔 내가 대신 남겠소!...》

한태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는 두다리에 출혈이 심한 병사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 원고가 놓여있는 그자리에 앉혔다.

적군땅크가 가까이 돌진해왔다. 태호는 자동차의 문을 힘껏 닫으면서 소리쳤다.

《운전사! 빨리 전진하십시오!》

《소좌동지!...》

운전사와 젊은 병사는 동시에, 애타게 소리쳤으나 태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차는 위험했다. 흙덩이와 파편, 총알들이 자동차의 적재함을 요란스레 두드리며 날아왔다. 적땅크가 불을 뿜으며 바투 다가오고있었던 것이다.

한태호는 나어린 병사가 차지했던 그 새초발 둔덕에 뛰어가 엎드리며 소리쳤다.

《운전사! 빨리 전진하라!》

드디어 부상병들을 태운 자동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돌리며 눈물을 머금은 운전사와 젊은 병사를 향해 한태호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다.

조국을 수호하는 성스런 싸움의 길에서 피로 쓴 수많은 글, 병사들을 위훈과 용감성으로 부르짖는 나팔이 되었고 수류탄이 되었던 작품들을 쓴 중군작가 한태호였다. 그는 부탁된 이 준엄한 정황에서 자기가 창작한 작품의 주인공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주인공들처럼 서슴지 않고 이 길을 택하였고 동요없이 지금의 이 영웅적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전선의 달밤, 좁다란 땡기처럼 뻗은 길로 자동차는 나는듯이 달린다. 나무들과 밭들, 언덕이 희희뿔로 물러갔고 차바퀴에 부딪친 돌들이 총알처럼 튀겨났다.

자동차에는 네사람, 젊은 운전사와 세명의 부상병이 타고있다. 그들은 얼마후 요란한 폭음과 총소리를 들었다. 그 폭음, 그 총소리는 사단에 30 분의 여유를 가져다준 큰 폭음이었다. 젊은 운전사와 극작가 한태호가 원고를 읽고있던 그자리에 앉은 젊은 병사, 그들은 복수를 맹세하며 주먹을 부르친다.

눈물이 글썽한 운전사는 태호가 읽다가 놓고간 원고들을 차곡차곡 간중그리고있는 젊은 병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소좌동지가 쓴 작품이요. 훌륭한 영웅전사를 형상해놓았소!... 앞으로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부상병, 젊은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소. 훌륭한 창작계획들을 가지고있었는데... 하지만 소좌동지는 자신의 생활로 영웅적위훈을 남겨놓았소!...》

운전사도 그리고 젊은 병사도 빛나는 정확한 말들을 했다.

달포가 지나고 진격하는 사단과 사단들, 전선중부와 전선동부... 전선과 전선들에 연극 《위훈으로》를 가진 중앙극단이 나타났다. 중막극이었다. 병사들은 연극을 보면서 모두 자기 중대에서 있는 일이라고 말들 했다. 진실했다. 연극은 병사들을 위훈과 용감성으로 부르며 전선공연을 하고있었다. 연극의 주인공- 둘째는 전선병사들과 함께 위훈을 떨치며 계속 남으로 남으로 진격해가고있었다.

병사의 의무

-공화국영웅 김성진 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동훈

1950년 6월 X×일 성진이 살고있던 홍천군 중화계리는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미제와 그 주구놈들의 악랄한 기만선전에 속아 피난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있었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공작산의 깊은 수림속에 피신했던 성진이도 산길을 타고 고향마을로 내려오고있었다.

한낮경이 되어 마을이 뻥히 내려다보이는 나지막한 산둔덕에 이르자 성진은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고향마을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변화가 있다면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흥성거리는것이였다.

마을 초가집들사이로는 아이들이 뛰여다니고 인민군대의 모습도 자주 보였다. 가만히 귀를 강구니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성진은 큰 눈을 슴벅거리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있었다. 혹 낮익은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눈을 밝히었다.

이때 덜미를 잡아 일으켜세우는듯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성진은 흠칫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무, 뭘 그렇게 살피고있어?》

이러며 한 인민군전사가 어깨에 총을 걸친채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성진의 옷차림을 찬찬히 여겨보던 그는 《무서워할게 없다니까. 자, 여기루 올라우.》 하며 선선히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성진은 전사의 앞으로 다가가 굽석 인사를했다.

《허- 이 친구 바라. 난 인사받자구 오라 하지 않았어. 동무두 이 마을에 살겠지?》

《예.》

성진은 기어드는 소리로 대답했다.

《날 따라오라우.》 하며 전사는 앞서 걸어간다.

성진은 구멍이 송송한 베잠뱅이를 털럭거리며 뒤따라섰다. 마을의 한 집앞에 이르니 거기선 조무래기들이 벌써 《인민군대아저씨, 인민군대아저씨》 하며 군대들에게 감겨돌아갔다.

성진을 데려온 전사는 학생복을 입은 한 청년에게 눈짓을 하더니 갓 찌내여 김이 오르는 빵을 가지고 왔다.

《우선 좀 먹어야지. 그래 동문 이름이 원가?》

《김성진이라구 합니다.》

《김성진...우리하구 친해보지 않겠어?》

성진은 그저 어줍게 웃기만 했다.

학생복 입은 청년이 성진에게 다가와 그의 옷차림이며 별에 까맣게 탄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성진동문 나이가 몇살이요?》

《열아홉살입니다.》

《그럼 나보다 한살났이구만. 참 안됐소. 내 소개부터 해야겠는걸. 난 최민수라고 하오. 평양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다가 전쟁이 일면서 정치공작대 성원으로 나왔소. 나하구 함께 손잡구 일해보지 않겠소? 동문 여기서 농사를 지었겠지요?》

《예, 지주집 땅도 부치고 그 집에 들어가 잡일도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했구만. 됐소. 이제부턴은 누구도 동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천대하고 마소같이 일시킬 사람이 없을지요.》

청년의 말 한마디한마디는 씨원씨원한게 귀맛이 있었다. 한살우라 하지만 정말 형님으로 존경하고 따르고싶은 사람이였다.

《성진동무, 우리 인민군대는 말그대로 인민의 군대요. 이 동무 아버지도 로동자구, 저기 별을 단 군관의 아버지도 로동자요. 우린 다 로동자, 농민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구 싸우는 사람들이요.》

《...?!》

《성진동무두 미국놈들과 리승만을 내쫓구 대지주인 장일구나 남궁만이 같은 마름놈들을 몰아내야 그 잡뱅이와 짚신을 벗어버릴수 있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쳐 싸워보지 않겠소?》

성진은 최민수청년의 말을 인차 이해할수 있었다. 놈들의 악선전으로 하여 이제껏 웅크리고있던 조바심같은것이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즉시로 가슴이 벌어지고 마음도 명랑해졌다. 성진의 등실한 얼굴엔 웃음이 가득 실리였고 어글어글한 눈엔 전에 없던 정기가 내뿜쳤다.

리보위대원이 된 성진은 로획한 총을 메고 온 세상이 굵어보일듯 활개치며 다니였다.

보위대원들은 정치공작대원청년과 함께 마을 공회당으로 쓰던 벽돌집을 선전실로 꾸리고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며칠후 그 선전실에서 새땅을 분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성진네도 장군님의 배려로 많은 땅을 분여받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꿈같은 현실앞에 눈물이 헤쳐져 온 가족이 모여앉은 저녁이면 《성진아, 장군님의 이 은혜를 어떡하면 다 갚는다니.》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곤했다.

날이 감에 따라 전선에서의 전투는 치열해져갔다. 미제침략자들은 자기의 침략무력을 수없이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전선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진은 자기도 그리로

달려가 적들과 싸우고싶은 심정을 억누를수 없었다. 마을청년들은 매일같이 재등에 올라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수군수군 토론을 했다.

어느날 그들은 정치공작원 몰래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빨리 결정을 짓자구. 정치공작원은 전선에서 싸우나 여기서 싸우나 매한가지 아니냐고 우릴 설복하지만 그제 다 우릴 아껴서 하는 말 같아.》

성진이 이렇게 말하자 청년들은 옳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가 떠난다구 욕하진 않을거야. 전번에 한번 말했더니 시물시물 웃으며 이제 나가면 당장 싸울수 있느냐고 묻는게 아니겠어. 그래 난 자신있다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자기도 원썬들과 직접 맞서 싸우고싶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 그러면 자긴 할수 없다는거야. 좌우간 우물쭈물하다간 총 한번 쏘보지 못해.》

보위대원인 리동무가 히는 말이였다.

《그럼 우리 래일이라두 당장 인민군대에 입대하자.》

성진은 자기 결심을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좋겠어.》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성진의 말을 지지했다.

이리하여 이튿날 새벽 마을청년 15명은 옆구리에 점심보자기들을 차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홍천읍으로 떠나갔다...

의용군대오에서 싸우던 성진은 전략적후퇴의 길에서 첫군복을 타입게 되었다. 성진에게는 이날이 명절과 같았다. 난생처음 입어보는 제일 좋은 옷과 탐탁한 군화였다.

성진은 군복어깨에 달린 빨간 견장을 자꾸만 내려다보았다. 자기의 림름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싶어 잠시간을 내어 슬그머니 시내로 들어가 사진관을 찾아다니기까지 했다. 사진을 찍으려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성진은 마지막으로 물건을 거두는 가게방에서 손거울을 한개 사가지고 돌아왔다.

성진은 군복웃주머니에 손거울을 넣고다니며 남몰래 자기 모습을 비쳐보군하였다.

어느날이였다. 점심식사를 맨먼저 끝낸 성진은 식당밖으로 나와 벽 한쪽모퉁이에 돌아서며 거울을 꺼내였다. 성진은 불마저 견장빛으로 빨강게 익은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는 혼자 비죽이 웃었다.

(인젠 됐어. 그만하면 때를 벗은셈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분대장의 모습이 거울에 얼핏 비치였다.

《성진이, 무슨 뽕실 그렇게 자주 보나? 요즘 바람난게 아니야?》하며 박룡만분대장이 옆에 다가서는 것이였다.

성진은 얼른 거울을 감추었다.

《허, 이 친구 사단군의소가 가까이 있다는걸 알

긴 아는 모양인데- 혹시 마음든 간호원이라두 있나?》

《아니, 나야 뭐...》

《그럼 뭐야?》

《군복을 처음 입어서 ...》

성진은 현이를 드러내며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음- 하여튼 거울은 자주 보는게 나쁘지 않아. 그래야 제 얼굴과 낫두 익히구 제 마음속두 들여다볼수 있을게거든.》

박룡만분대장은 늘 꺼매있는 넉적한 턱을 손바닥으로 슬슬 문질렀다. 성진은 락동강을 넘어섰던 싸움군분대장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부러워했다. 변함없이 태연한 거동이며 강직한 표정- 이것이 전투들에서 성진이가 보게 되는 분대장의 모습이었다.

사랑스런 눈길로 성진을 바라보던 분대장이 조용히 말했다.

《나두 처음 군복을 타입었을 때 동무와 같은 심정이였어. 성진동무두 이제부턴 완전한 병사의 자격을 가지게 됐어. 조국앞에 더 큰 책임두 지게 되구.》

《제가 책임을 지다니요?》

《그건 군인선서에도 있는거지... 군복을 입은 병사는 조국앞에 의무만을 지니게 되거든. 병사는 다만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하는데 이것이 곧 의무라는거야. 우린 그 의무에 충실하면 돼. 그러면 용감성도 나오고 기지도 나오는 법이야.》

《분대장동지, 알겠습니다.》

《성진동무, 군복을 입었으니 병사의 의무에 충실하라구. 난 그 거울속에서 우수한 병사를 보게 되길 원하네. 한 당원이 하는 말이기도 하네.》

《병사의 의무》, 《명령》-성진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새겨보았다.

...간고한 후퇴의 모정에 이어 질풍같이 내달려온 재진격의 나날들, 치열한 진지방어전. 성진은 전호속에서 키도 자랐고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체구를 가진 구대원이 되었다. 그사이 성진은 영예로운 조선로동당원으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앞에서 신성한 임무를 실행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진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전투마다에서 용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주군하였다.

1953년 1월 X일 저녁. 성진이가 속한 중대에서는 조직별로 되는 결의모임이 진행되고있었다.

초급선동원이며 민청분조장인 김성진이 얼마후에 있을 전투를 앞두고 말하고있었다.

《우리 중대는 565.7 고지를 습격탈환할데 대한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받았습시다. 우리는 이 전투의 중요성을 다 잘 알고있습니다. 며칠동안 모의훈련을 통하여 지형에도 익숙해졌고 정찰을 통하여

적들의 무력배치상태도 손금보듯 알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 우리의 용감성과 충실성을 보일 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결의가 전투에서 빛나도록 합시다. 우리들 매 병사의 전투 성과를 가지고 이 회의록을 기록하는게 어떻습니까?》

민청원 허동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에 자기의 용감성을 시험하겠습니다. 전투결과로 그것을 증명하도록 할것입니다.》

이어 장동무가 일어섰다.

《동무들, 우리뒤에는 금강산이 있습니다. 우리뒤에는 귀여운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힘든 전투임무를 맡겠습니다. 동무들에게 부끄럼 없이 싸우겠습니다.》

토론들은 간단했지만 짙막한 말속에 진심이 들어있었다.

성진은 민청원들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일어서 자기 결의를 토론했다.

《우린 1 소대 대원들로서 중대의 앞장에 설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1 소대 1 분대 대원으로서 웅당 소대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나는 565.7 고지 정찰에 직접 나갔기때문에 적들의 화점위치와 화력배치를 잘 알고있습니다. 동무들, 이번 습격전투에서 적의 화점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면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까부시고 진공로를 열겠습니다.》

565.7 고지는 가칠봉에서 뻗어내린 산줄기의 하나로서 둥그스름한 봉우리를 형성하고있었다. 이 고지와 가깝게 339 고지, 월비산, 351 고지 등 중요 고지들이 솟아있었다. 565.7 고지는 그뒤에 무연한 간성벌을 끼고있어 적들의 중요한 지령점의 하나였다.

1 월 X일밤, 땀뻘 겨울날씨였다.

중대는 눈덮인 565.7 고지로 은밀히 기여오르고있었다. 경사가 급하고 빈번한 산릉선에는 키낮은 가독나무들이 눈속에 줄기를 파묻고 휘유- 휘유- 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가지우의 마른 잎새를 살그락거리군했다.

고지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적들은 고지로 접근하는 중대의 움직임을 아직 모르는것 같았다. 성진은 최선두에서 숫눈을 헤치며 고지로 올라갔다.

점점 얼마 못미쳐 눈을 무겁게 뒤집어쓴 토목화점이 거뒸한 불아귀를 드러내고있었다.

어느덧 동천하늘이 휘연해지며 쌀쌀한 새벽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행동을 서둘러야 하였다.

배밀이로 한발작두발작 기여가던 성진은 천천히 머리를 들고 화점을 노려보았다. 검은 아귀리에서 흰 김이 가느다랗게 피어올랐다. 조금만 더 전진하면 토목화점으로 접근할수 있는 통로가 나질것이었다. 입술을 꼭 사려물고 한걸음 더 전진하던 그는 문득 뒤에서 울리는 중대장의 말소리를 들었다.

《아무래도 저 화점을 먼저 까부셔야겠소.》

《내가 올라가겠소.》

이번에는 정치부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중대장동진 안됩니다. 화점은 내가 여러번 까부신 경험 있으니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박룡만분대장이 나직이 그러나 완강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성진은 놀라듯 머리를 돌리였다.

(내가 가야 한다. 저 화점을 까부실 임무는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는 너무도 확고했다. 성진은 눈우를 기여 중대장곁으로 다가갔다.

《중대장동지, 제가 통로를 알고있습니다.》

간청하는듯한 성진의 얼굴을 지켜보며 중대장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저 화점은 제가 정찰했기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게 ...》

중대장은 말없이 성진의 손을 당겨쥐었다. 성진은 그의 손에서 뽀아오는 따듯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이 더욱 굳세여짐을 느꼈다. 중대장은 성진의 손을 한번 으스러지게 꺾 쥐었다가 스르르 놓았다. 성진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대답으로, 전우들의 뜨거운 믿음으로 접수했다.

《성진동무, 이 수류탄을 받으라우.》

박룡만분대장이 반땅크수류탄을 성진에게 넘겨주며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성진동무, 자신이 있소?》

《자신있습니다.》

《병사의 의무를 지켜야 하네.》

《알니다. 잘 알고있습니다.》

성진은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믿고있었다.

《성진이!》

분대장의 고우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성진은 힘차게 앞으로 기여갔다.

화점이 가까워졌다. 30 메터, 20 메터... 드디어 10 메터. 성진은 툭툭 방망이질하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잠시 전진을 멈추었다. 너무도 조용하다. 하지만 이제 반땅크수류탄의 폭발과 함께 고지는 잠을 깰것이다.

(조금만 더...) 성진은 또 기였다. 적화점이 손에 잡힐듯한 거리에 있었다. 놈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성진은 슬며시 머리를 들었다. 순간 갑자기 적화구가 요란히 쫓어대기 시작했다. 성진은 더 생각할 사이 없이 반땅크수류탄을 힘있게 던졌다. 한개 또 한개...

연기가 토목화점을 휩쌌다. 적중기는 숨을 죽이였다. 성진은 기뻐다. 하나의 전투임무를 수행한 통쾌감이 가슴가득 흘러들었다.

《동무들- 중기가 파괴됐소- 앞으로!》

뒤이어 신호탄이 오르고 중대의 공격서열이 일제히 머리를 들었다. .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적화구가 다시 살아나 불을 토하는것이 아닌가?!

성진은 마치도 자기가 꿈을 꾸고있는것 같았다.

사납게 울부짖는 적중기관총의 사격소리가 귀청을 아프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지금 가축채찍보다 더 아프게 자기의 온몸을 때리는것이였다. 한발 한발의 기관총소리가 가슴에 광광 메아리쳐왔다. 순식간에 쏟아져나가는 적중기관총 탄알들을 성진은 헤일수조차 있었다. 그만큼 그의 마음과 신경은 초긴장속에 있었다.

가슴을 부어쥐며 쓰러지는 전우들의 얼굴이 환각으로 떠오른다. 그것은 환각뿐만이 아닌것 같다. 성진은 불이 황황 이는 눈으로 고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적중기관총의 사격소리는 가슴을 계속 아프게 쥐여뜯었다.

(수류탄, 수류탄을...)

안타까운 일이였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초를 헤아리는 그 순간에 뇌리를 치며 흘러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성진아, 장군님의 이 은혜를 어떡하면 다 갚는다니》하며 눈물이 글썽해 말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군대에 입대할 때 동구밖 멀리까지 나와 오래오래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얼굴이 떠오른다. 하루에 백리길을 걷고도 더 걷고싶던 재진격의 나날들, 한강도하 전투며 생쌀을 씹으며 진행한 마산계선의 치열한 격전, 서울 삼각산전투에서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천신만고하여 사선을 헤쳐나오던 일, 아낌없이 자기 피를 넣어주던 간호원처녀의 잊을수 없는 모습...

이 모든것이 성진의 뇌리속에 하나의 산 화폭으로 쭈욱 엮여지고있었다.

더우기 1952년 5월 18일, 입당보증을 받던 날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성진동무, 당원이란 어떤 사람이겠소.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싸우는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원이라고 생각하오. 민청원들보다 더 용감히, 더 앞장서 싸우는게 바로 당원이요. 성진동무, 난 동무가 앞으로 당생활을 성실히 하고 병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길 바라오.》

이렇게 말해주던 분대장의 얼굴이 떠오른다.

걸어온 길들이 연장되어 이제 저 화점을 타고넘으면 꽃피는 고향마을이 안겨올것만 같다. 분명 고지너머에 고향마을이 보일것이다.

성진은 문득 현실로 돌아왔다. 불과 2미터앞에서 적중기화점이 불길을 날름거리였다.

(저 불길을 꺼버려야 한다. 저것을 끄지 못하면 전우들이 피를 흘릴것이고 중대는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못할것이다. 어떻게 꺼버릴것인가?... 아, 가

슴으로 덮자. 그러면 꺼지겠지. 아마 나의 심장의 불길은 멎을것이다. 그래도 저 불구멍은 막아버려야 한다. 저주로운 저 불구멍을!)

성진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토목화점의 겹은 아구리를 막아버렸다. 그때 성진의 눈가에선 무수한 불꽃이 튀겨올랐다. 불꽃은 끊임없이 튀어오르고 또 올랐다.

× ×

성진은 잠결에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다. 분대장의 목소리같기도 했다.

(왜 나를 깨우지 않을까?)

좀처럼 일어나고싶지 않았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땅막에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갯도입구에서 아침해살이 비쳐들며 얼굴을 간질이는것 같았다.

(해가 저렇게 떠올랐는데 일어나자. 일어나야지.)

성진은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가 결리며 온몸은 결박당하듯 움직일수 없는것이 아닌가?

《성진동무, 성진동무!... 환자가 의식을 차렸어요!》

기쁨에 젖은 간호원의 목소리. 그제야 성진은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다는것을 알았다.

성진이가 의식을 회복한곳은 전선사령부 야전병원이었다.

머리가 희속한 로박사와 군의들, 간호원들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있었다. 성진은 그것을 확인하려는듯 눈망울을 굴려 이곳 저곳 살펴보았다.

하얀 병실, 하얀 위생복, 환희에 차서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

성진은 꿈이 아닌가싶어 눈을 꼭 감았다가 떴다.

《성진동무, 동문 지금 병원에 와있습니다. 3일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동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소생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유능한 의사들과 귀중한 약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 나에게?!...)

성진은 눈을 크게 떴다. 심장의 박동소리가 귀에 툭툭 울려오는것 같았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저는 응당 해야 할 병사의 의무를 지켰을뿐인데...)

성진의 두눈에서 맑은 이슬이 피여올라 베개우에 주르륵 흘러내렸다. ...

불을 뿜는 적화구를 육탄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전사, 11발의 적탄이 가슴을 꿰었으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속에 김성진은 다시 불사조의 녀트로 소생하였다. 다시 총을 잡고 오늘도 여전히 병사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가는 공화국영웅 김성진을 세상사람들은 잘 알고있으며 자랑으로 여긴다.

백두산상에서

전병구

언제나 오고싶던곳이기에

앞서는 걸음보다

내 마음 더 빨리 뛰어올라왔다

아, 백두산 백두산이여

수천년 내려오던 전설을 이야기해주는듯

기슭을 치던 천지물도

고요히 잔물결을 일으키고

구름발을 날리며 천둥소리 몰아오던

장군봉, 병사봉도

푸른 하늘을 높이 받들고 서있구나

어디에 날려갔는가

일만조화를 순간에 일으키며

뿌리던 비방울, 흘러가는 구름바다

봄, 여름...

사시절을 봉우리에 펼쳐든 성산이여

한눈에 바라보이는구나

백운봉너머로 카륜의 푸른 언덕

전설적영웅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봉화를 올리신 산밭이여

붉은기 펄펄 대오앞에 날리며

태고의 밀림을 헤쳐오시던 동강밀영이여

멀고먼 옛날부터

모진 비바람을 이마우에 날리며

하늘에 울리는 천둥소리

불패의 대오가 걸어온

그 발구름소리처럼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주누나

말하라 백두여

그날부터 대공을 치뚫으며

그대는 불패의 녀트로 솟아올랐더라

충암절벽으로 해방의 칼날을 버리며

조선의 기상으로 정기를 뿌리며

마를줄 모르는 천지물을 기울여

이 나라 인민의 가슴에 크나큰 힘을 부어주었더라

아, 백두산, 백두산

장수별을 머리우에 이고

이 강산에 높이 솟은 그대는

내 어린시절 꿈속에서도 빛나던 성산

총을 메고 고지로 달려나가던

싸움의 그날엔 의지의 산악이던

그대의 품에 안긴 뜨거운 내 마음이여

장군봉의 억센 기상앞에서

급힘없는 그대의 힘을 간직하노라

천지물로 가슴을 추기며

백두의 숭엄한 모습을 다시 새겨안노라

누리에 찬란한 저 빛발로

세기에 빛나는 백두와 더불어

천년을 이 땅에 살며

내 마음 충암절벽처럼 굳세지라고

내 마음 마를줄 모르는 천지처럼 충성의 물결로

출렁이라고

만병초

최준경

눈내리는 아득한 절벽우에
너는야 피었구나 만병초
계절도 저어하는 백두산 령봉우에
봄을 불러 피었구나 아름다운 꽃

밤이면 장군봉의 별빛을 우러러
산에도 높은 산 흰 눈속에
아침이면 남먼저 해돋이를 반기며
산산 백두산 바위우에 피는 꽃

너야말로 들꽃들이 즐기는
시내가의 혼한 물도 봄바람도 아니 즐기고
천지가 뿜어주는 맑은 물을 마시며
백두의 찬바람속에 밝은 웃음 띄우도다

백두산의 눈서리에 금빛으로 단장하고
온 천하를 향해 웃음짓는 만병초야
송이송이 풍기는 너의 진한 향기는
절로 아름답고 굳세진것이 아니었구나

장군님의 백포자락 만년설에 스칠 때
거룩한 그 자옥에 뿌리깊이 내리고
남먼저 봄을 불러 창공에 웃음지었기에
폭풍에도 곱게 피는 백두의 꽃 되었구나

너는야 아득한 백두의 성산을
하루도 한치도 아니내리고
장군님 헤쳐가신 그날의 눈보라를
이 강산에 봄의 서곡으로 전해주도다



중대로 가는 길에서

김기호

마치도 학창시절에 즐겨오르던
등산의 그 길을 가거나 하듯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칠새 없이
떠들썩 고지로 오르던 신입병사들
영웅의 수기 새겨진 이끼푸른 바위앞에
조용히 걸음 멈춰선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노래만을 부르던 병사의 눈길에도
기쁨만을 머금던 병사의 얼굴에도
삼시에 승엄한 빛이 어린다
영웅의 수기 뜨거운 눈길로 더듬어보며...

아, 열아홉살 청춘!
그대들과 다름없는 그 시절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영생의 노래를 여기 남기고
영웅은 가장 높은 충성의 언덕을 올라갔구나
더없이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금시라도 바위우 고개길 어디선가
영웅이 웃으며 마중해줄듯싶어

병사들은 오래오래 바라보는 것인가
애절한 신입병사들
생각도 마음도 깊어지는 길이어
영웅의 중대로 가는 초소의 언덕길이어

영웅의 낮이런듯 진달래는 붉어라
영웅의 젊음인듯 초목은 푸르려라
진정 그대들 보람찬 복무의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영웅이 배필이로 다달은 위훈의 언덕에서
영웅이 한가슴을 내댈 그 충성의 높이에서
병사의 첫걸음을 떼는 발걸음 발걸음
그대들 그 어느 돌격선에 나선다 해도
그 어느 적후에 홀로 남는다 해도
마음은 언제나
참된 삶의 이 위치를 정하고 싸우리니

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영웅처럼 일찌기
가장 높은 충성의 절정에 오를
맹세도 새로이 생각도 뜨거이
총권 새세대들이 영웅의 중대로 간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피끓는 열아홉살!
충성의 그 나이에 한생을 두고 살리
충성의 이 길에서 변함이 없으리

주체형의 참신한 새 인간의 형상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고-

정연진

기자인 나는 남보다 공장 기업소들과 들끓는 건설장들을 찾아가는 일이 많다. 때때로 취재를 하고 난 뒤끝이면 나는 청년주인공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그들의 독서정형을 알아보곤 한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누구나 많은 책을 읽고있으며 우리 청년들이 책을 몹시 사랑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언제인가 나는 청년들에게 요즈음 무슨 책을 읽고있으며 어떤 책이 좋던가고 물은적이 있다. 나의 물음에 태반의 청년들이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면서 작품에 나오는 긍정적주인공들처럼 살며 싸울 결심을 저마다 표명하는것이였다.

나 역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이 작품이 왜 사람들의 가슴을 그처럼 격동시키고 우리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더욱더 튼튼히 준비해가려는 결심을 깊이 가다듬게 하는가를 생각해보곤 한다.

그러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들을 혁명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작품전반에 흐르고 있는 참예한 극성과 인간성격의 예리성에 있다고 본다.

작가는 우리 인민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혁과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던 력사적전환기인 1958년을 무대로 하면서 이 벅찬 혁명의 거류속에 작중인물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성격발전을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속에서 진실하게 그렸다.

소설을 읽고나면 우리들의 눈앞에는 주인공 상철이며 기타 긍정적인물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과 림도식을 비롯한 부정적인물들의 얼굴이 방불히 떠오른다. 이와 함께 한시간을 남들의 열시간, 백시간, 천시간 맞잡이로 여기고 《천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들의 기상과 숨결이 뜨겁게 안겨온다.

이것은 작가가 정당하게도 참예한 갈등속에서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운명문제를 옹계 해결하였기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인간형상은 생활의 혁명적 발전속에서 나타나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물론 긍정적인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것이 있고 적극적인것은 반드시 소극적인것을 동반하는것이 현실이며 투쟁을 통해서 긍정적인것이 승리하고 부정적인것이 극복되어가는것이 생활의 법칙입니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갈등을 옹계 선정하고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작가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 이 문제를 옹계 풀었다.

무엇보다먼저 작가는 갈등문제에서 인물들의 성장과정과 그속에서 형성되고 굳어진 사상감정과 관점을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잘 안받침해줌으로써 갈등이 심각한 정치적예리성을 띠게 한것이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상철이와 지배인 림도식과의 갈등은 원수와 총을 맞대고 싸우는 적대적갈등도 아닌 비적대적갈등인데도 얼마나 참예한가.

그것은 인물들의 사상감정, 성격적특징을 이루고 있는 기본바탕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잘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상철의 삶의 보람의 전부는 자신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해빛보다 따사로운 손길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이다.

그의 희망은 오직 하나 건설에서 조립식을 받아들여 살림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지어 우리 인민들에게 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을 바치는 것이였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는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섰을 때에도 주저없이 꺾끗이 앞으로 나아갔고 언제나 당정책에 어긋나는 현상과는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견결히 싸웠던것이다.

참말로 상철이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

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영양분을 온몸에 지닌 참신한 새형의 건설자였다.

반대로 림도식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과 감정은 어떠한것인가.

림도식은 구두에 진창이 묻을세라 진창길을 조심스럽게 끌라디디며 다니듯이 생활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지위와 처지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저촉되리라 인정되는것에서는 할수 있는껏 멀리 피해가며 몸을 사렸고 반면에 자기의 지위를 높일수 있는 《출세》의 기회에 맞닥들리면 남들을 밀어내면서까지 앞장에 나서는 《위인》이었다.

넓은 사상에 물젖은 그는 당정책관철에 자신의 정력을 소모할대신 명예와 직위욕에 눈이 어두워 상부에 좋게 보이고 아래일군들에게 호령하고 훈시하는 판료주의자이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인간 즉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대결은 필연코 심각한 갈등의 예리성을 띠게 되었던것이다. 결국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에 나서는 우리 현실의 계급투쟁의 반영이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갈등설정에서 주목되는것은 생활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따라 갈등의 발생, 발전, 정점, 해결의 매듭을 깊이 승화시켜나간것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상철이가 벽돌쌓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오월이와 같이 건설장에서 일하다가 잠시의 실참에 뜻밖에 림도식의 출현으로 작품의 갈등은 심화된다.

이때 림도식은 그들의 진취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을 오히려 저속한 《련애》로 묘사하면서 상철을 모욕한다. 사실 그것은 청년들의 슬기로운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는 일종의 시비이기도 했다.

이때 비로소 작품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지만 작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섬세하고 예리한 필치로써 그들의 과거지사를 요약해서 펼쳐보임으로써 갈등의 심각화를 보장하였다.

갈등은 조립식시험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림도식이 상부의 지시로 시험건설을 맡아하게 되었지만 그는 항상 이것을 위험한 줄타기로, 어쩌면 자기의 지위의 안전성을 허물어버리는 견고치 못한 발판처럼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달가와 하지 않는다. 그는 부제조립중 총막판의 모서리가 깨어져 사고를 저지른번했을 때에도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보장하

지 못하여 월계획을 미달했을 때에도 심히 동요하며 본성 그대로 비당적인 행동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또 자신을 정당화한다.

상철은 그럴 때에도 락심하지 않고 그와 맞서며 조립식건설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다그치며 오히려 더 분발하지 못한 자신을 뉘우친다.

갈등은 여기서 개인리기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인 작업반장 지태설이 림도식의 견해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더욱 첨예하게 된다.

갈등은 반혁명분자 콕나봉의 책동으로 총막이 마사지는 사건으로 하여 절정에 이른다.

갈등의 정점 역시 이 사고를 상철이네 청년조립조의 불찰로, 부재의 견고성을 보지 않고 경제의 효과성만 내세우면서 설계를 작성한 문화린의 쓸데없는 《허영심》으로 인한것으로 보려는 림도식의 견해와 그밑에 숨어있는 콕나봉의 죄행이 편승되어 더욱 고조를 이룬다.

특히 작가는 갈등의 해결을 능숙한 기교로 처리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설계가 문화린을 만나보신뒤 몸소 건설장에 나오시여 상철이네 청년작업조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이 엉킨 매듭을 해명해주시며 이어 그들을 건설의 새로운 속도,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신다.

결국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천리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월을 앞당겨나가게 된다.

이처럼 작가는 작중인물들의 긍정적주인공들과 부정적인물들의 호상대립을 진보적인것과 보수적인것이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건설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전쟁에서 미국놈들과 싸워이긴 그 기세로 우리 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인간들의 운명선에 걸고 그를 정면으로 일관하게 끌고 나감으로써 주체형의 참신한 혁명가, 투쟁하는 새인간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그가 담고있는 사상에 숭성의 높이로 하여, 긍정적주인공들의 빛나는 형상으로 하여 독자들이 애독하는 작품으로 우리들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친근한 벗으로 되고있다.

필자는 금성청년출판사 기자

지난날의 계급투쟁에 대한 생동한 화폭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1부)을 읽고-

박춘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어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근로자들이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으며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의 력사와 그 진리를 인식시키는 력사주제의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르고있다.

지난해에 나온 박태원의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은 근로자들에게 계급투쟁의 력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19 세기말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참담한 생활을 하였으며 피눈물나는 노예의 고역살이를 하였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준다.

봉건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주인공 상민이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줄로만 알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짐승도 잘 안먹는 콩잎, 팔잎을 겨우나이 량식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의 집에서는 멀건 죽 한그릇을 놓고 세식구가 서로 둘러앉아 권한다.

금녀의 생활처지는 더욱 눈물겨운것이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아이 낳는것을 불안해하였고 봉건지배계급의 군포징수가 너무도 악랄했기에 아이를 낳아도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게 해달라고 밤마다 정한 물을 물동이에 담아 고목나무앞에 가서 신에게 비는것이다.

또한 고부군수의 배를 불리우기 위해 강제로 부역에 끌려나가야 했던 인민들의 처지는 어떠했는가,

지주놈에게 종곡을 빼앗기고 술마져 김침지에게 빼앗긴 길보는 굶어누워있는 자식들을 보다못해 지주놈의 집에 가서 장리쌀을 좀 달라고 하다가 면박만 당하고 돌아선다. 그리하여 마침내 밤중에 식솔을 데리고 어데로인가 도망을 치고만다.

순돌이와 서분이의 생활처지는 더욱 기가 막힌것이다. 한량의 빚때문에 몇해를 종노릇을 해야 하는 서분이, 한량의 빚은 새끼에 새끼를 쳐서 그것이 서른두량이 되여 순돌이는 서분이를 데리러갔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고만다.

이것이 당시 인민의 처지였다.

작품에서는 이와 함께 지주 리진사, 그리고 칠만량을 주고 고부군수의 자리를 산 조병갑이를 비롯한 이 시기의 억압자, 착취자의 군상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들의 악랄한 행동을 통하여 착취자들의 본성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깨닫게 되며 그들은 자기의 탐욕과 명예, 안일과 공명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게 된다.

고부군 지도를 올려다보며 그 넓은 땅을 제것으로 만들기 위해 백성들에게 행패질을 잘하기로 이름난 은리방을 걸으로는 그 죄를 다스리는척하면서 오히려 그와 결탁하는 조병갑의 음흉하고 교활한 행동은 이시기 봉건지배계급이 인민들을 기만하여 착취하던 상투적수법이었던것이다.

봉건지배계급의 반인민적인 행위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마다리법》을 만들어 위협과 기만적인 술책으로 돈을 빼앗아내기도 하며 몇끼씩 굶주려 일어나지도 못하는 농민들을 강제부역에 몰아내기로 한다. 거기에서 가을에 가서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여 한결에 열두말인것을 너말을 더 얹어 열여섯말을 쳐서 받는다. 농민들은 그 위에 묵은땅에서 거둔 곡식 지어는 안해의 해산쌀로 남겨둔 얼마 안되는 량식마저 모조리 관속들에게 빼앗기고만

다.

작품에서는 또한 봉건지배계급의 최고착취자인 왕의 악랄한 형상을 보여준다. 인민은 빈궁속에서 가쁜 숨을 쉬며 허덕이는데 밤새워 산데리아 휘황한 전각에서 유혹으로 세월을 보내는 왕과 왕비, 더 많은 돈을 빼앗아내기 위해 골몰하며 나라의 정사를 우롱하는 민비, 소설은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여 인민들을 억압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던 썩어빠진 사회제도의 부패성을 똑똑히 보여주고 종로 한구석에 넘어져 버림받고있는 척화비를 통해 봉건지배계급들의 매국배족적인 본성을 깨닫게 한다.

소설은 이와 함께 《익산란민》들의 최후의 소식을 전봉준으로부터 들으며 복수를 맹세한 상민이가 칼쓰는것을 배우는것이라든지 동학도들이 보은에 모여 반항의 기세를 나타내는 모습, 마침내 고부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싸움을 준비하는것은 압박과 착취가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라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농민들은 봉건지배계급의 폭압을 더는 참을수 없었다. 그들은 부당한 세금을 물라는 독촉에 《나는 없어 못내겠소. 안물면 사령들이 나온다니 저희가 나오면 죽이기밖에 더할가?》 하고 말한다. 어린 처녀 서분이가 자기를 구박하던 《주인아씨》에게 신작을 내던지는것도 매우 인상적으로 안겨온다.

작품에서는 이렇게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는 인간들의 본성을 보여주면서 계급투쟁의 합법칙성을 밝히었다. 이와 함께 작품은 반봉건투쟁이 반침략투쟁과 결부되어 진행되었던 시대상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작품은 우리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어떻게 《척왜척양》 투쟁으로 합류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세부들을 통해 보여준다. 왜놈의 《모찌떡》을 사먹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선약파를 사주는 오수동, 왜놈의 황아장수에게 불이 일어나지 않는 성냥을 던지는 젊은이, 명동 고개마루턱에 천주교 교회당을 지으려고 실어가는 벽돌달구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서울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실례로 된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반봉건, 반침략투쟁인 갑오농민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상민이, 순돌이, 강주부, 전봉준 등 인물들이 서로 도우며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도 나라를 근심걱정하고 인민을 위하려고 하는것을 통해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작품은 또한 동학도들에 대해서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준다. 왜놈들과 양국놈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오만하게 행동하는데 대해 분격해하면서 왜와 양을 소탕하자고 동학도들이 모여 결의한다. 그러나 교주인 최시형과 그말의 대두령들은 이 모임을 다만 교조 최제우의 죄를 신원받는것으로 그치려고 하며 전봉준을 비롯한 대중들이 간단한 무장이라도 갖추자고 하는데 대해 오히려 겁을 먹고 이를 극력 제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동학도 우두머리들의 반인민적본성을 깨닫는 동시에 애국적인민들은 언제나 나라와 인민을 위한 의로운 립장에 서있었다는것을 보게 된다.

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은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고부백성들은 모두 떨쳐나서라》고 웨치면서 인민들이 모여드는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증오감과 계급의식을 더욱 불려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지난시기부터 침략자들과 착취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온 자기 인민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더 크게 하여준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옛날 봉건악질관료배들의 행위를 초월하는 매국배족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남반부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더는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마침내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역적을 타도하고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독자들은 앞으로 소설의 제 2 부에서 보여줄 농민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한 형상적화폭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의 이 애국적인 투쟁속에서 억세게 자라는 사랑하는 주인공 상민이와 서분이, 순돌이의 모습, 그리고 오수동이나 전봉준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게 될것이라고 기대한다.

필자는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농촌마을의 학교를 찾아서

김정남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2중천리마애원고등중학교를 찾아가는 우리들을 태운 빠스는 시원스레 탁 트인 포장도로로 경쾌하게 달려가더니 이윽고 멀리 수림속에 솟아난 휴양각인듯 학교지붕이 바라보이는 언덕길우에 올라섰다. 차창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건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설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학교를 《자력갱생의 학교》로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받아안고 온 나라가 그 관철에로 들끓고있는 이때에 학교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은 마냥 더없는 흥분에 휩싸이게 되는것이였다.

그리 높지 않은 두록산밑에 자리잡은 학교앞으로는 농장벌이 펼쳐져있었다.

우리 나라 농촌마을을 찾아가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보통 학교였다.

경계좋은 언덕우에 3층교사가 높달랑게 솟은 광옆에 2층교사가 보기 좋게 나란히 선 학교운동장옆에는 하늘을 찌를듯 키높이 자란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이 한껏 풍치를 돋구어주고있었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20년나마 후대교육을 위해 교편을 잡고있는 김명재교무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를 돌아보았다. 그는 먼저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학교에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언제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된지 이태만인 1947년에 몇명 안되는 애원마을의 농촌아이들을 위해 경계좋은 이 두록산밑에 아담한 학교를 세워주시었다. 이 학교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학교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덕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사정이 그토록 곤란했던 1955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복구건설을 다그쳐야 했던 그때였건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학교를 크게 넓혀주시고 또다시 1976년에는 3층교사를 새로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고 학교를 알뜰히 꾸리는 일에서 이

룩한 성과에 대해 못내 기뻐하시며 천리마학교, 공화국창건20주년기념학교, 2중천리마학교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그이께서는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선물과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애원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옥도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승용차를 보내시여 리정순교장을 불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교장 리정순동무가 23년동안 후대들의 교육교양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치해주시며 바로 이런 동무가 혁명가라고 뜨거운 사랑과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그러시고 그에게 공훈교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우리는 먼저 정중하게 꾸려진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을 돌아보고나서 음악실로 들어갔다. 한창 음악을 지휘하던 음악교원 최기호선생은 자랑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악기를 받은 우리 학교에서는 음악소조원들이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줄 알게 되었을뿐만아니라 테제가 가리키는대로 전체 학생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줄 아는 예술적기량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과외시간을 보내고있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미래의 훌륭한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어가는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책에서 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어야 혁명실전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

김명재교무부장은 우리들을 아담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실험실로 안내하면서 지난기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학생들에게 혁명실전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주기 위해 교육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들려주었다.

6천여종의 생물표본이 마련되어있는 생물실을

비롯하여 력학실, 열학실, 광학실 그리고 한개 학급이 동시에 실험을 할수 있는 물리실험실과 화학실험실, 자연연구실 등 갖가지 실험실이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져있는것이였다. 교수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줄수 있도록 꾸려진 실험실들이였다.

혁명의 믿음직한 후계자로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학생들을 키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곳 교직원, 학생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꾸렸다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실험실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김명재교무부장은 생물교원 리지섭이 생물실을 꾸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를 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지섭교원이 실험실을 꾸리기 위해 불타는 충성심을 바쳐온 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한두가지만 적기로 한다.

학생들에게 부엉이를 그림으로가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 수십리가 넘는 험한 산속에 들어가 밤과 낮을 지새며 아찔한 벼랑우에 옥노를 놓아 부엉이를 잡아온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해주는것인가. 이곳 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리로운 새들을 보호하며 사랑하고있다. 학교의 정원과 교재원에는 밀화부리, 박새, 개구마리, 방울새, 딱따구리 등 10여종을 헤아리는 리로운 새들이 살고있다.

리지섭교원은 학생들이 리로운 새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그 새들의 생활을 보여줄것을 생각해냈다. 학생들이 제비둥지를 헤치지 않는것은 제비가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새라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 생각한 그는 학교정원에서 살고있는 새들도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유익한 새라는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높은 나무가지끝에 둥지를 튼 피꿀새둥지를 낮은곳에 내려다 보여주시기로 했다. 단번에 둥지를 낮은곳에 내려다놓으면 어미새가 놀라서 둥지를 버리고 달아날수 있었다. 그래 둥지를 튼 나무가지들 조금씩 낮추어 학생들이 땅우에서 볼수 있는 곳까지 내려놓았다. 피꿀새가 벌레를 잡아다 새끼들에게 먹여주는것을 본 학생들은 그제야 정말로 피꿀새가 유익한 새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리지섭교원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을 주기 위해 얼마나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엿볼수 있는것이이다.

교사들을 돌아본 우리는 학교 뒤뜰로 나갔다. 깨끗이 돌을 깐 포장길을 따라 서쪽으로 걷느라 가면 가지를 드리우고 키높이 자란 한그루의 섬잣나무가

있다. 이 한그루의 섬잣나무에도 이곳 교직원들이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충성심을 찾아볼수 있다.

이 희귀한 섬잣나무는 리정순교장이 전쟁시기 양덕땅에서 떠다가 옮긴것이다. 세번씩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가꾼 이 섬잣나무는 전쟁시기 미제놈들의 폭격에 상처를 입었었다. 그러나 상처입은 애 어린 섬잣나무를 리정순교장은 살려내고야말았다. 그 섬잣나무가 자라 해마다 열리는 열매를 교재원에 심기도 하고 여러 학교에 보내주기도 하고있다.

이 한그루의 섬잣나무를 가꾸듯이 이곳 교원들은 먼곳에 휴양을 가거나 출장을 갔다 돌아올 때마다 나무들을 떠다 옮기여 학교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며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이런 지성이 깃들어있기에 학교정원이라고 부르기는 너무도 숲이 우거졌 다싶은 이 숲속에는 고운 새들의 정다운 우짖음이 그칠새 없어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우리는 수차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전기를 일구는 꼬마발전소앞에 머물러섰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할데 대해 주신 교시를 아로새긴 교시판이 정중히 세워져 있었다. 알고보니 이 학교 실습지마다에는 교시판이 정중히 세워져있었다.

교무부장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지혜를 합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 꼬마발전소를 만들어냈다고 긍지높이 말하면서 물은 겨우 끌어왔으나 응집력을 파괴시켜야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원리를 못찾아 애먹던 이야기, 발전기의 부속품을 구해 오기 위해 헌쇠불이를 모아가지고 전기공장에 달려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꼬마발전소에서 나는 전기로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을 밝힐수 있으며 물리실험실에서 여러가지 실험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꼬마발전소에서 수차를 돌린 물은 양어장으로 흘러간다.

양어장에는 팔뚝같은 잉어며 붕어들이 꼬리를 치며 유유히 헤엄치고있었다. 교무부장의 말에 의하면 이 양어장에서 해마다 수만마리의 고기를 키워장과 논판엔 놓아준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양어장을 관리하면서 여러가지 물고기의 알깨우기방법, 키우는 방법을 실지 제손으로 익힐뿐아니라 여기서 키운 고기들로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고 표본도 만들고있다는것이이다.

우리는 수영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청소년학생들을 바다의 정복자로 키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만든 수영장이였다.

《우린 몇해전부터 아이들에게 물이 무섭다는 인식만 주고 통제만 할것이 아니라 바다도 훈련만 잘

하면 능히 극복할수 있다는 교양을 주면서 <300메터돌파목표>를 내세웠답니다. 그래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돌파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교무부장은 학생들이 누구나 수영을 할줄 아는것은 물론 우리 나라 강을 헤엄쳐 건널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준비시켜온것을 들려주었다.

지리실습장으로 발걸음을 다그치는 우리는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었다.

지리실습장에는 태양각도측정기, 방위관정을 위한 각종 자연지물, 자오선기, 일기에보신호기, 풍속계, 눈자, 우량계, 동결심측정기 등 여러가지 측정기와 관정기들이 규모있게 놓여있었다.

그리고 수영장결의 잘 꾸려진 자동차, 트랙토르 연구실에서는 김정호교원의 지도밑에 농촌기계화의 초병으로 준비해나가는 중등반학생들이 아버지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트랙토르를 타고 운전실습에 정력을 쏟고있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누구나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몰줄 압니다.》

김명재교무부장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교재원의 등나무아래로 향했다.

교재원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못해하는 우리들을 던지시 바라보던 교무부장은 자량이 넘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우리는 이 교재원에서 해마다 과일풍년을 맞곤 합니다.》

말그대로 교재원의 과일나무마다 가지가 희여질듯 열린 열매들이 향기를 뿜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바라볼수록 흐뭇한 교재원이었다.

학교에서는 앵두, 양벚으로 시작하여 살구, 복숭아, 그리고 사과, 배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10여톤이 넘는 과실을 수확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참대, 수삼나무, 호프 등 172종의 우리나라 식물이 자라고있는 10정보가 넘는 이 교재원에서 나무를 가꾸며 배운 지식을 확고히 넓혀가고 있는것이다. 50년이 지났다는 등나무는 200평방메터의 그늘을 던져주는 독서터로 리용되고있었다.

천여권을 헤아리는 각종 도서들이 비치되어있는 이 학습터에서 학생들은 꾸준히 책을 읽어 1만페이지 돌파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우리는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과 작문, 자기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낸 동요, 동시들도 읽어볼수 있었다.

이밖에도 학교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구락부까지 있어 학생강연회날에는 영화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학생들이 지덕체를 갖춘 미래의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자체의 힘으로 교육적환경을 훌륭히 꾸려놓는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기에 이 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라고 한다.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농장원들의 자녀들이다.

지난날 이들의 부모들은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던 소작농, 아니면 머슴군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고등중학교과정을 무료로 공부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학교를 농촌고등중학교의 본보기로 꾸려놓은 고귀한 경험과 열매는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학생들에게 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여야 하며 실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학교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도록 잘 꾸려진 교육적환경은 학생들에게 사물현상과 과학적원리에 대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사고를 계발시킬수 있게 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수천마리의 토끼를 길러내어 올해에는 8천장의 질 좋은 토끼가죽을 준비해놓았다는 말을 들으며 토끼동산을 지나 두룩산을 돌아본후 학교마당으로 내려왔다. 마침 회의에 갔다가 돌아온 리정순교장과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학교전경도 앞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미래의 참다운 일군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를 더 잘 꾸리겠습니다. 우리는 테제의 요구에 맞게 더욱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림으로써 아버지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학교>, <농촌고등중학교의 본보기학교>라는 파란만장한 치하를 주신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교장선생의 말을 듣고난 우리들은 크나큰 기쁨속에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실현되고있으며 앞으로 더욱 빛나게 실현될 그날의 학교를 그려보며 우리는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고있는 학교를 떠났다.